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 가족, 일, 나이듦의 의미를 중심으로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신 그 리 나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 가족, 일, 나이듦의 의미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배 은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신 그 리 나

신그리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양현아 (인)

부위원장 이나영 (인)

위 원 배은경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매매 당사자들의 경험이 수없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성매매 경험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소수의 연구들조차 소위 '젊은' 여성들의 경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피해 vs 자발'이라는 논의 구도 속에서 성매매 경험이 전체 생애 맥락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분절적으로 사유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성매매여성들과 함께한 활동경험과 학문영역에서 성매매 연구들과 성매매 현장의 괴리를 실감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결지 인근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60대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에 귀 기울여 보기로 했다. 구술생애사 방법론을 통해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발화하는 시점에서의 주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그들의 현재를 이해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2009년부터 연구자와 알고 지낸 여성들로 현재 S집결지 인근 쪽방촌이나 휘파리 골목에서 독장사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참여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생애사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전체 연구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창작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연구참여자들과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낸 '생애사 재구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연구에 구술자료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구술된 자료를 편집하고 시간축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함께 했다. '생애사 재구성'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생애를 중심으로 그들의 개별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가족, 일, 나이듦이라는 주제로 비교분석한 '생애사 분석'이다. '생애사 분석'은 연구참여자들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기반으로 중

심 주제를 도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생애사 재구성'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가족 내에서의 생애사건들은 각자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빈곤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가족의 생존전략에 따라 진학 대신 노동시장으로 방출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의 노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욕망이나 권리와는 상관없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성별화된 역할 분담에 익숙해져 갔다. 연구참여자들은 '빈곤의 탈출구' 또는 '자율적 독립의 기회'로 결혼이라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계급적 경계선을 넘어보고자 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연구참여자들 중 대부분이 이때 성매매로 유입/재유입되었다. 가족 유대가 약한 연구참여자들은 30년 가까이 S집결지를 중심으로 '일'하고 생활하면서 집결지 내에 삶의 지향을 두고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2)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노동경험에 대한 해석의 연속선에서 성매매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노동은 주로 저임금, 장시간의 고된 노동이었다는 점, 섹슈얼리티까지 자원으로 요구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을 성적 존재로 환원시켰다는 점,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식모, 버스안내양, 공장노동 종사자들은 국가, 성산업을 비롯한 전체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요보호 여성'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노동경험을 기준으로 현재의 '일'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가지는 착취성과 폭력성을 변별해 내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매매를 '일'로서 선택했다. 하지만 섹슈얼리티에 따라 등급이 형성되는 성매매 시장의 특성 때문에 '일'하면 '일'할수록 연구참여자들의 가치는 하락되었고 그에 따라 성구매자와의 협상에서 점점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고령의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를 지속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였다.

3) 나이듦에 따른 몸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세대와 '일' 하는 공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성매매 시장에서 여성의 '몸'은 외적 조건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 정도가 다르고 고된 육체노동을 수반한다는 점 때문에 자본과 직접 연관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외모로 경쟁력을 발휘하던 시기를 지나쳤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보다는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변화에 더 민감한 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둬야 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복지제도나 여성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은 스스로 생산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후의 삶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매매 '일'을 오래 지속한 여성일수록 성매매 공간 내에서의 통제력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성매매 공간에서의 통제력이 향상될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매매 공간에서의 삶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현재는 사회적 관계의 부재와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런 고통에만 천착해 있지 않는다. 자신과 사회를 재의미화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의지는 경험과 연륜이 만들어낸 생존전략이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었다.

이 연구는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성매매여성들의 경험과 선택을 구조화하는 젠더-경제 체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매매여성'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즉 사회구조가 그들을 타자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성매매 구조 안팎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연구와 실천에 함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그들은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행위와 개념이 놓여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매매여성들의 선택 또는 자율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할 수 없게 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경험들에 사회가 제대로 반응해 왔는지, 그리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게 되었다. 어떤 환경들이 연구참여자들의 '선택'을 구조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세대, 노동경험,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한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성매매, 성매매여성, 생애사, 가족, 일, 나이듦

학 번 : 2011-20203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5

1. 한국의 성매매와 국가개입의 역사 ····· 6

2. 2000년대 이후 성매매 연구의 다양한 흐름들 ····· 10

제 3 절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 17

제 4 절 논문의 구성 ····· 19

제 2 장 연구대상과 방법 ····· 20

제1절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0

제2절 자료수집 방법 ····· 26

제3절 자료수집 과정 ····· 28

제4절 자료분석 방법 ····· 36

제5절 연구윤리와 방법론적 고려 ····· 40

제 3 장 생애사 재구성 ····· 46

제1절 이우주 : 아내, 어머니, 노동자 지위 ····· 46

제2절 김수미 : 성매매/탈성매매의 경계 ····· 71

제3절 변옥희 : 제약된 '선택' ····· 97

제 4 장 생애사 분석 ····· 115
제1절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와 가족 ····· 116
1. 애정과 지원이 부재한 출신가족(family of orientation) ····· 116
2. 정상성 획득으로서의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 ····· 120
3. 유사 가족공동체로서의 집결지 ····· 128
제2절 고령 성매매여성의 일 경험과 정체성 ····· 134
1. 일의 이력과 삶의 여정 ····· 135
2. 성매매 '일'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평가 ····· 147
제3절 성매매 구조 안의 젠더-나이체제 ····· 154
1. 성매매여성의 나이든 '몸'과 건강권 ····· 156
2.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확장 ····· 161
3. 고령 성매매여성의 나이듦과 생애전망 ····· 164

제 5 장 결론 ····· 168
제1절 연구요약 ····· 168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후속 과제 ····· 173

참 고 문 헌 ····· 175

Abstract ····· 185

표 목 차

〈표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2〉 보조사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3〉 구술면접 진행사항 ·····34
〈표4〉 구술내용 편집기호 ·····37

그 림 목 차

〈그림1〉 S집결지 영업 형태별/공간별 구분 ·····22
〈그림2〉 연구단계 ·····26
〈그림3〉 연구참여자들의 공간 의존도 및 소속감 ·····131
〈그림4〉 연구참여자들의 일의 이력(나이순) ·····136
〈그림5〉 버스안내양의 생활상 ·····142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여성[1]'으로 살아가고 있는 50~60대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로, '피해 vs 자발'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구도 속에서 배제되어 온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성매매여성들을 상담 지원했던 20대 초반 '나[2]'의 활동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 여름, 나는 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수습으로 일을 시작했다. 긴급구조와 아침까지 계속되는 경찰조사,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관방에서 함께 자는 일들이 그 해 내내 거의 쉼 없이 내가 했던 일이었다. 그때는 공식적인 상담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3]'들과

1) '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 상의 '윤락'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법률 용어로 정착되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성매매'로 칭하고, 성을 파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이고 사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을 판 사람을 '성매매여성', 성을 산 사람을 '성구매자' 또는 '성구매남성'으로 칭하고자 한다.

2) 이 글에서 독자는 중간 중간에 '나(I)'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학술논문에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나의 사회적 위치와 입장이 연구 수행에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신광현(1996)은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나'로 지칭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논문의 주체를 합리적인 주체로 위장한다"고 지적한바 있다(183). 이나영(2012)은 구술사 또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입장이 반영된 재현물이라면서 연구자의 위치가 비가시화된 주체로 숨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원미혜(2002)는 연구자가 자신의 인식과 고민의 과정을 열어 보이는 것은 연구대상뿐 아니라 연구자의 인식 과정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이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가 연구대상과 나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 또한 연구대상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였다. 일상의 조건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실이라도 다르게 체험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인 '나'를 드러냄으로써, 구술생애사 방법론을 통해서도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숙제인 재현과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서술은 활동 과정에서 내재된 인식과 고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갈등과 도전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적 방식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연구과정은 곧 연구자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었다.

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언니'라는 호칭은 성매매 구조 내에서 여성들끼리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활동가와 성매매여성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직접 대면하면서 성매매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상담원 교육을 대신해야 했다. 처음 듣는 성매매 관련 은어들을 기억했다가 언니들이 이야기할 때 아는 척 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사고해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의 나에겐 그 언니들의 존재가 성매매에 반대해야 할 이유의 전부였다.

내가 활동을 시작했을 즈음은 성매매 구조 속 인권침해 요소들이 한창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끌고 가는 주춧돌이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나온 여성들은 '탈성매매여성'으로 불리면서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그리고 자립/자활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성매매여성들이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마주한 성매매 구조 밖의 세상 또한 성매매여성들이 빈곤과 폭력을 홀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구조 안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4] 나는 활동을 시작한지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고 있는 성매매 구조 밖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때부터

4) 2005년 활동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나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성매매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세대를 걸어온 그들과 나의 삶은 굉장히 달랐다.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는 것보다는 컸다.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내가 처음으로 상담 지원을 했던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빈곤, 이혼의 경험을 거쳐 성매매로 유입되었고 10년 이상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어렵게 성매매 구조에서 벗어나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성매매 밖의 세상은 냉정하고 독했다.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가 어떤 일을 하던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비춰졌나보다. 결국 창업을 준비하던 그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처음 그녀의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자활계획이 명확했던 사람이 왜 자살이라는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모두 견뎌놓고 왜 지금...' 그런데 몇 년이 흐른 지금은 그녀의 선택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적-인적 자원이 부재한 그녀에게 성매매 구조 밖의 세상은 빈곤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성매매를 선택했던 책임을 본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포항 대잠동에서 일하던 유흥주점 여종업원 8명이 빚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연쇄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성매매를 선택했다는 모든 책임이 성매매여성 개인에게로 돌아감으로 인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정박은자, 2011). 하지만 그 책임은 성매매 구조 밖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은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다. 내가 상담 지원했던 그 여성은 낙인을 이겨내지 못했기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결국 그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시선이었다.

나는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실천에 더 비중을 두고 일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지워버리는 사회적 통념은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한 이후에 생존해 가는 과정 또한 개인의 역량과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고정된 시선과 낙인은 그대로인데 여성들의 생존권을 내세워 성매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입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여성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여성학도의 길로 이끌었다. 성매매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상담자의 위치에 한정됐던 지난 활동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보아온 성매매 현장과 성매매 연구들 간의 괴리를 실감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성매매 연구의 지형은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지만 성매매여성들이 '일[5]'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학문의 과정에서 느낀 성매매 현장과 성매매 연구들 사이의 괴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좁혀질 기미가 없어 보였고, 이러한 배경은 나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했다.

이 연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 문제의식은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윤리적 문제로 돌리면서 '왜 여성의 성이 상품이 되고, 팔리기를 요구당하며, 실제로 팔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남성 중심 시각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여성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후로 불거진 '인권침해 vs 성노동' 논쟁 구도는 사회구조적 문제보다는 성매매 구

5) 성매매가 생계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를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존중하기 위해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잠시 유예시키면서 성매매 구조 안팎의 일을 구분하기 위해 성매매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작은 따음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일'이란 성매매를 말한다.

조 안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매매 구조 안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것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성매매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매매 경험이 다른 일상들과 만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성매매 현장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정책에는 일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매매여성들의 삶과의 괴리를 좁히기 어렵다. 셋째, 피해와 인권의 의미를 성매매 구조 안에 국한시킴으로써 그 의미들을 협소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구조 안팎을 넘나들며 구성되는 성매매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가려지고 '성매매여성'이라는 이름만 남게 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정체화하고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피해 vs 자발'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구도는 성매매 경험이 여성들의 생애에서 가지는 의미, 성매매 경험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각기 다른 경험,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차단해버리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실상을 가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여성 경험 연구들(김선화, 2006; 안준리, 2009; 민가영, 2009; 김연주, 2011a, 2011b)이 진행된 바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 10대~30대 성매매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성매매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의 전체 생애 맥락을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연구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 연구자들이 보고자하는 대상도 특정한 세대 또는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만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는 성매매 '일'에 평생을 종사해 왔고,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존재가 그동안 왜 드러나지 않았는가? 왜 드러날 수 없었는가? 현실에서 어떤 존재 또는 현실이 비가시화된다는 것은 감춰짐으로써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연루된 현실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특정 세대에 집중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50~60대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고령[6]' 성매매여성들은 오랜 시간 성매매와 탈성매매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구조 안팎의 공간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자기만의 전략들로 여전히 성매매 구조 안에서 다양한 삶의 결을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는 각 개인들이 성매매 구조 안팎에서 경험하는 적응, 갈등, 타협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고령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의 위치를 회고적으로 구성하면서 자기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성매매 경험이 가져오는 피해와 다른 경험들과의 상호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과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복합적 문제들 속에 공존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삶 속에서 성매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초기의 문제의식은 성매매가 사회의 도덕과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최병각, 2004). 1960년대 이후 성매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윤리적 타락이나 운명이라는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입장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지정책을 통한 개별 여성의 규제 및 교정 이상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힘들었다. 그 시각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여성주의 운동과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성매매 관련 선행연구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6) 성매매는 섹슈얼리티(젊음)와 젠더(여성성)를 자원으로 한 성서비스와 돈의 교환이다. 그래서 '성매매여성'이라 하면 보통 10~20대 여성들을 상상하게 된다. 실제로도 성매매여성들의 다수가 10~20대에 속해 있다. 보통은 50~60대를 가리켜 '고령'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성매매 시장에서는 50~60대를 '고령'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일'의 막바지에 놓여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특성과 여성의 젊음을 금전적 가치로 환원하는 성매매 시장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50~60대인 연구참여자들을 '고령 성매매여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하나는 한국의 성매매와 국가개입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이다. 먼저 한국의 성매매와 국가개입의 역사를 토대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살피면서 이중적 성규범에 개입하고 비판해 온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례집 중심의 연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중심의 연구,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보자는 '성노동' 이론 연구, 그리고 성매매여성들간의 차이를 강조한 성매매 경험 연구들을 중심으로 성매매 연구의 다양한 흐름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사회적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여성주의 성매매 연구의 지형 속에서 본 연구의 위치와 필요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성매매와 국가개입의 역사[7)]

한국에서 성매매가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성매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일제시대로 의견이 모아진다. 일제시대에 형성된 공창제[8)]는 "전형

7) 여기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한국의 성매매와 국가개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경자(1999), 이나영(2007a; 2007b), 박정미(2011)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민경자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98년까지의 성매매 관련 운동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나영과 박정미의 연구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 그간의 성매매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 그 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주목하면서 국가에 의해 관리된 형태로 성매매가 유지되어 온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중요한 연구성과를 남겼다. 특히, 과거의 성매매 관련 제도에서 현재의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작업은 성매매의 원인을 성매매 개별 여성들에게 돌리고자 했던 기존의 인식에 균열을 가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이 구성되는 방식에 비판적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의 성매매 정책과 실천들의 모순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했다. 다만, 이나영(2007a, 2007b)의 연구는 미군정기 기지촌 공고화 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박정미(2011)의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인 2005년까지로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범위를 확장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8)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조선이 개항된 이후 일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을 상대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증가하였고, 이후 조선인 성매매여성들의 수도 덩달아 증가하자 성매매 단속을 위한 규칙들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04년 4월 일본공사관이 〈경성영사관령 제3호〉를

적인 국가규제 방식의 성매매 제도"이며 "공창제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등록제, 정기적 검진,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집창화, 성매매여성들의 공간적 구획화, 정체성의 유형화를 통한 종별화, 게토화"이다(이나영, 2007a: 54-55).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제가 조선을 떠난 후 새로운 통치자로 입성한 미군정은 "점령의 목표로 '민주주의' 질서의 확립을 표방"하면서 1946년 부녀국(Women's Bureau)을 설치하고(ibid., 44) 1946년 5월 17일,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발포하여 부녀자의 인신매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금지한 것일 뿐 공창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ibid., 45). 이후 공창제폐지운동의 성과로 성매매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관심은 미군들이 안전하게 성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성병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공인-관리는 사라졌지만 묵인-관리는 살아남았다(박정미, 2011: 89)"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에는 가족과 생계를 위해 '성'을 파는 여성들이 급증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성매매지역인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군사적 효율성 고양"이라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성욕 충족을 용인하고 "일반 여성에 대한 강간을 방지"하며 "경제적 효용"도 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였다(ibid., 152).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을 등록시키고 성병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인-관리(ibid., 152)"의 형태로 실제로는 공창제가 부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 이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복지 관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인간존중과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윤락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해 공창 폐지를 선언하였지만 "1962년 4월 내무부·법무부·보건사회부가 공동으로 서울역 등 47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등 32개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설치하고, 특정지역 내 매춘을 보호·묵인했다(최병각, 2004:

통해 기생과 창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10년 조선통감부가 경부총감부령으로 〈유곽법창기취체규정〉을 거쳐, 1916년 2월 통감부 경무총감사령부령 제3호 〈체기작부치옥영업취제규칙〉 및 동4호 〈조선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공포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른다(이나영, 2007a: 54-55).

311)". 이후 근대화로 인한 농촌 몰락, 이농현상,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자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중소자본가들이 3차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면서 호스티스, 마사지걸, 면도사, 이용사 등 여성노동력이 대거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기존에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가 현재의 산업형 성매매로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정부는 3S(Sex, Screen, Sport)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호황을 누리면서 집결지 중심에서 일반 지역으로 성매매가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 완화와 성산업 지역 중심의 관광 서비스 제공을 국가에서 부추기면서 성매매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하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는 전무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은 인신매매, 폭력, 폭행 또는 감금, 갈취 등을 당했다 하더라도 '성'을 팔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받았고 선불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보호소로 끌려가 전업을 위한 기술을 배워야 했다. 이 때문에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온갖 인권침해와 착취를 견뎌내야 했다(민경자, 1999: 244-247).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성매매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교여연)[9]의 활동을 통해서였다(ibid., 247). 교여연은 1960년대 먹고 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절대 빈곤이 성산업 유입과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윤락여성 미연방지사업'을 실시했다(ibid., 248). 이후 교여연은 여성의 전화, NCC 여성위원회, 한국여성신학자 등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88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성매매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교여연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반대운동은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동 방향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성매매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낙인을 초래했다는

9)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8개 교단의 여전도회의 연합체로서 1967년에 창립되었다. 이 조직은 여성운동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의 중심체로서 역할했다(민경자, 1999: 248).

한계가 있었다(민경자, 1999: 250; 이동주, 2008: 17). 교여연을 중심으로 성매매 반대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1984년 카톨릭 수녀연합회를 중심으로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쉼터운동이 전개되었고, 1986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라는 연합체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운동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소리회는 성매매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 경험을 드러내면서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을 시도했다(민경자, 1999: 264-268).[10]

결정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한 기지촌 성매매여성 살인사건, 1995년 수용소 화재로 인한 성매매여성들의 사망사건을 통해서였다. 이에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착취와 일본식 원조교제의 증가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확대시키는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로 모아졌다. 그리고 인천여성의전화, 한소리회,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등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논의가 구체화되었다(민경자, 1999: 268-270; 이동주, 2008: 19-22).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된 직후에는 문 닫는 성매매업소들이 증가하는 등 잠시나마 개정법이 실효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성매매를 범죄로 여기는 인식은 드물었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다시 사문화되어 갔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성계는 개정법이 '윤락'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중적 성윤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 그

10)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며 성별화된 권력문제를 포함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이 예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의 집단적인 여성"으로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적 지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캐럴 페이트만, 2001: 274). 한국의 성매매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시작되어" "미군, 기생 관광"으로 이어지면서 보편화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로 인식하게 된다(이성숙, 2009: 199). 이를 두고 캐슬린 배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매춘화"되어 가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캐슬린 배리,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주의는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남성들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들에 도전한다. 동시에 '갈보', '창녀', '윤락녀', '매춘부'로 불리며 침묵 당하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여성주의는 국가가 여성의 신체에 접근할 수 있는 "남성의 성 권리"(캐럴 페이트만, 2001: 270)를 인정하는 동시에 성적 도덕성의 이중 잣대로 성매매여성들을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리고 성매매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민경자, 1999: 275-277).

성매매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00년 군산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군산 개복동에서 잇달아 발생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여성운동은 단순한 화재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침해 현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비슷한 시기인 2001년 여성부의 신설과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에서의 최하위 등급 판정이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면서 국가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성매매방지법[11]」이 2001년 11월 입법청원한 이후 2002년에 입법 발의되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여성운동이 의제화 과정을 통해 여성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왔던 성매매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담론화시킴으로써 얻어낸 성과물이었다.

2. 2000년대 이후 성매매 연구의 다양한 흐름들

한국의 경우 침략자의 제도에 의해 공창과 군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을 제외하면 한 번도 성매매가 합법이었던 적이 없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은 있어왔다. 그런데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은 크고 작은 논쟁을 낳았다. 여기에는 강력한 단속에 항의하는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시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시위에 나선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흐름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해외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신변종성매매에 대한 원인까지 성매매방지법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매매 관련 연구들이 급증하게 되었다.[12]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인 1990년대의

---

11)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주무부처: 법무부)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무부처: 여성가족부)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이들 법은 각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2) 오혜란, 2004; 원미혜, 2004; 2005a; 2010; 최병각, 2004; 고정갑희, 2005; 김경미, 2005; 김예란, 2005; 문은미, 2005a; 2005b; 2009; 정희진, 2005a; 2005b; 2005c; 오김숙이, 2005; 이영자, 2005; 김선희 외, 2005; 이나영, 2005; 김선화, 2006; 김주희, 2006; 이성숙, 2006; 문현아,

연구들이 법과 정책을 통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교화와 자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지형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0년대 이후 성매매 연구의 다양한 흐름들을 살피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금 성매매여성들의 경험 연구가 중요해지는 배경과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위치를 찾아 연구설계에 참고하고자 한다.

1)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및 과정에 관한 연구, 실효성 검토에 관한 연구, 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금지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및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성매매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의의를 소개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했다.

실효성 검토에 관한 연구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신변종성매매 등의 실태를 다루면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제언으로 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단위의 의식과 의지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성매매 금지주의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성매매방지법 개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기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탈성매매를 전제로 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법 규정에 대한 비판, 둘째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처벌법이 가진 한계에 대한 비판이다. 초기에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성을 파는 모든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이었지만 검토과정에서 법적 형평성과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성을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를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비범죄화하기로

2007; 엄상미, 2007; 유숙란 외, 2007; 이현재, 2007; 김애령, 2008; 민가영, 2009; 안준리, 2009; 이하영, 2009; 김지혜, 2010; 정미례, 2010; 김연주, 2011a, 2011b 등

되었다.

금지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은 일시적인 법과 정책이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이 '갈보', '창녀', '윤락녀'라는 이름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법과 공권력에 의지한 금지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지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들은 성매매여성들을 피해자로 일반화시킬 것이라 아니라 그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에 주목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조건을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성매매정책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3)]

2) '인권침해 vs 성노동'에 관한 연구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동시에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법 시행 초기,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사례는 수기집의 형태를 통해 전해졌다(다시함께센터 2004a; 2006a; 2006b; 2007,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07a; 2007b; 성매매없는세상[이룸], 2009).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성부(현재는 여성가족부)의 성산업 실태조사 및 지원현황보고는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성매매여성들은 대부분 10~20대 초반에 성매매로 유입되어 장기간 성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골반염, 위염, 피부질환 등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성매매 경험이 정신건강 또는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김소연, 2004; 다시함께센터 2006c)을 분석하면서 성매매가 가진 인권침해 요소들을 드러내고(원미혜, 2005a; 정희진, 2005c)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김현순, 2005) 실효성 있는 자활지원정책을 모색(서해정 외, 2005)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들의 연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주목하면서 구조 안의 피해자성을 드러내는데 효과

13) 원미혜(2010)는 반성매매 운동이 성매매의 원인을 남성중심적 제도와 문화적 관행의 문제로 초점을 전환시키고,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성매매여성의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변혁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반면, 여성의 행위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과잉 일반화하여 성매매여성에게 또 다른 방식의 '구별짓기'를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의 계급화를 답습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했다(6-8).

적이었다.

한편, 법 시행 직후 거리로 나와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성매매여성들(주로 집결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시위[14]를 계기로 법의 제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계들이 제기되었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을 성찰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성매매를 인권침해 및 피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제안이다. 성노동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성매매방지법 및 정책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근절운동을 넘어선 대응방식을 제시하고(원미혜, 2004; 이나영, 2005; 고정갑희, 2005; 김경미, 2005) 성노동자의 등장을 주체적 행위성으로 해석하며(국경희, 2007;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7; 이현재, 2009) 성과 노동의 관계를 재고하여 성노동을 이론화하기 위한 작업들(이희영, 2005; 문은미, 2009; 고정갑희, 2007; 2009; 국경희, 2007; 김정은, 2008)이 있다. 성매매 '일'을 노동의 개념으로 재구성하자는 논의는 성노동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명목 하에 당사자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자는 논의는 금지주의, 행위성,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만 주목할 뿐 성매매 '일' 그 자체가 가지는 인권침해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풀어내지 못해 설득력의 한계를 가진다.

---

14)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자 정부는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집결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성매매방지법이 애초에 집결지만을 목적으로 한 법은 아니었음에도 가시적인 장소인 집결지가 일차적인 타겟이 된 것이다. 이에 집결지에서 '일'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는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위협과 주거 장소에 대한 위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단속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겪는 업주, 주변상인들과 결합하여 법의 유예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2004년 9월 23일 미아리 텍사스에서 생계보장 및 단속 유예를 요구하면서 500명이 시위한 것을 필두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여러 집창촌에서 생존권 투쟁이 이어졌다. 저항의 방식도 단식, 항의, 방문, 피켓, 삭발, 촛불, 소복, 기습, 야간시위, 청원서 제출 등 다양했다... 이들은 국회나 정당뿐만 아니라 반매춘 관련 여성단체나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도 비판하면서 항의방문을 했다. 2005년 3월 5일 여의도에서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거리행진"에 기습적으로 참가하여 시위를 하면서 "성노동자도 여성노동자다. 여성 성노동자를 죽이는 여성계는 각성하라"고 하면서 전국성노동자준비위한여연 출범사를 배포하기도 했다. 5월 30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는 부산 완월동 성매매상담소 '살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2005년 5월 25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 한여연 다음카페 개설을 필두로 6월 29일 서울 올림필 체조경기장에서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5,000여 명이 모여 '성노동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이 공식 출범했다(고정갑희, 2007)."

3) 성매매 경험 연구

성매매여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실 성매매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성매매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중요하게 인정된 것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일이라 볼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법의 실효성 검토, 실질적인 정책방안 모색, 법 개정 논의 등은 학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아니라 성매매여성, 즉 성매매 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시도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다시함께센터 2006a; 2007,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07a; 2007b; 성매매없는세상[이룸], 2009). 사례집 형태의 연구들은 활동가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한 성매매 경험과 성매매 피해를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일상적 체험, 그리고 성매매 경험이 탈성매매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성매매 구조와 피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성산업이 만연해지고 취약한 노동 조건에 위치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성매매 유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넓어졌다. 특히 가출과 빈곤 상태에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를 주제로 한 연구(김주희, 2006; 홍현정, 2007; 이자림, 2008; 민가영, 2009; 김인숙, 2009; 김연주, 2011a, 2011b; 김은정, 2010)들이 급증했다. 김주희(2006)의 연구는 기존에 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연구들의 한계[15]들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지점들이

15) 김주희(2006)는 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십대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회화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근대적 청소년 보호 담론에 기대어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경향"에 문제제기하였다(김주희, 2006: 3).

교차하는 현재의 성산업을 설명하기 위해 티켓 다방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십대 여성의 '일'에 주목하여 십대 여성의 성매매 경험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성매매 연구들이 자주 다루지 않았던 티켓 다방의 구조와 특성을 잘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십대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 욕구(need)와 다방 '일'을 지속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성매매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민가영(2009)의 연구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발성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가진 차별성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유동하는 자발성의 개념을 발견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피해/자발, 보호/처벌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자발의 개념을 다른 선택 및 다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의 개념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매매 지원 정책과 실천에 기여한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김연주(2011)의 연구는 쉼터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을 분석했다. 청소년들은 젠더와 연령의 교차작용으로 인해 신빈곤층에 놓여있는데, 그 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체득하게 되는 아비투스는 성매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특성인 쉼터 거주 경험은 심리적·관계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십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게 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한 실천에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특정 시설의 경험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발견된다.

2007년에 이르러서야 "탈업소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한 젊은 여성들"에 국한된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세대 및 특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중장년, 노령, 장애 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40~50대 중장년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통해 성매매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엄상미, 2007: 2-3). 그 중 하나가 엄상미(2007)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비가시화 되어왔던 세대 및 계층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활동가이기도 한 연구자가 오랜 기간 중고령 성매매여성들과 생활하면서 인터뷰한 연구자료는 생애 맥락과 상황이 잘 분석되어 중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연구자 본인도 한계로 지적했듯이 특정

지역의 성매매여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찾고자한 정책적 함의에 다양한 형태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은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한계로 남는다. 원미혜(2010)의 연구는 "그동안 여성주의가 성판매 여성들의 체험과 위치를 충분히 이해해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전체 생애와의 연속성 속에서 당사자의 체험과 성판매 경험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인터뷰한 성매매여성들의 사례를 가지고 "시·공간적 작용력에 주목"하여 "'교차적 성 위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해석했다(1-3). 생애사 연구라 해도 긴 호흡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연구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의 생각과 해석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20~30대 성매매여성들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했던데 비해 이 연구는 40~60대,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집단에 대한 연구라는 점, 그리고 특정한 이론적·정치적 입장이나 연구자의 관점에 우선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성매매 연구와 실천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0년대 이후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지평을 넓히면서 성매매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성매매 경험 연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이 고려된 경험 연구가 수적으로도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성매매'가 아니라 '여성'에 방점을 찍은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애과정에서 성매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삶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삶이라는 이해 속에서 성매매 경험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술생애사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며 누적된 삶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령 성매매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다룬 엄상미(2007)와 원미혜(2010)의 연구는 이미 탈성매매하였거나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성매매와 탈성매매의 경계에 놓인 여성들의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진다. 현재의 상황과 위치가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세대 간의 차이뿐 아니라 지역, 성매매 종사기간, 생애경험 등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해석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족, 성매매 '일', 나이듦, 빈곤, 낙인, 성매매 공간에서의 일상 등을 중요한 분석내용으로 가져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제 3 절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아래 제시되는 연구목적은 고령 성매매여성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정보들과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수행 전에 설계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생애사건과 그 사건들이 성매매 유입/재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출이나 이혼 등 성매매여성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생애사건들이 성매매를 '일'로서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중요한 생애사건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사건들이 성매매 유입/재유입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된 배경이나 과정에 따라 자신의 성매매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구조 안팎에서 경험한 일의 이력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 경험을 중심으로 성매매 공간 안팎을 넘나드는 이동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초점을 성매매 '일'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노동경험과 성매매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기는 힘든 구조였다. 상담소 활동 당시에 내가 만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다른 일과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매매 '일'의 정당성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 '일'에 대한 낙인을

예상하기도 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의 경계를 자주 넘나든다. 이때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일까? 성매매 구조 밖의 일을 해석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방식은 그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 맥락을 보여주면서 현재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나이듦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한다. 나이듦은 성매매 공간을 살아가고 성매매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고령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성매매 공간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30년 가까이 성매매 공간에서 살아왔다. 성매매가 섹슈얼리티를 자원으로 하는 '일'이라면 성매매여성들에게 고령이라는 조건은 '일'을 수행할 때 더 불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성매매여성들의 나이듦을 '능력없음'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나이듦, 특히 성매매 공간에서의 나이듦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나는 나이듦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해석을 통해 성매매 '일'이 가지는 '경력', '능숙함', '숙련'의 의미가 이른바 '정상적' 노동시장에서 해석되는 그것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사건과 성매매/탈성매매와의 연관성, 성매매 구조 안팎의 일, 성매매 구조 안에서 발생되는 나이듦에 따른 변화와 연구참여자들의 해석을 분석하겠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과 구술면접을 진행하고 구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더 만들어졌다. 이 연구질문들은 연구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학술논문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 부분이 아니라 이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데 가족(출신가족, 생식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빈곤을 재생산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셋째, '성매매여성'이라는 정체성의 막바지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성찰하고 전망하고 있는가? 극복해야 할 생애과제는 무엇인가?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제2장 연구대상과 방법〉이다. 본래 제2장은 서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참여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생애사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전체 연구 과정, 그리고 구술면접 과정에서 발생된 연구윤리와 방법론적 한계들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별도의 장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 축은 〈제3장 생애사 재구성〉이다. 제3장은 연구참여자들과 내가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구술자료를 수집하였고 녹음된 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한 뒤 텍스트에 나타난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여 시간축에 따라 재구성했다. 재구성된 텍스트는 연구참여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제3장 생애사 재구성〉은 〈제4장 생애사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세 번째 축은 〈제4장 생애사 분석〉이다. 제4장은 주요 사례 세 개에 보조 사례 한 개를 추가하여 총 네 개의 사례를 중첩하여 분석한 연구텍스트이다. 제3장의 내용을 토대로 개별 체험자들의 삶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가족, 일, 나이듦이라는 주제로 비교분석했다. 이 장은 연구참여자들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제3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제5장 결론〉은 이 연구가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 및 실천에 긍정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제4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 2 장 연구대상과 방법

"생애이야기(life story)는 일생에 걸친 성역할과의 대결과 내적 의미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적합한 연구자료"로 "한 개인의 일생에 걸친 다양한 선택과 행위 양식은 물론, 그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과 해석에 대한 정보를 포함"(이재인, 2004: 3)한다. 그래서 구술생애사를 통한 성매매 경험 연구는 "기존에 불변적이고 단일화된 것으로 표상된 성매매여성에 대한 재현을 갱신(이희영, 2007)"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는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복합적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에 접근함으로써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젠더-경제 체제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그 결과로서의 성매매에 주목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로는 30년 이상 성매매에 종사해 온 50~60대 고령 성매매여성들을 선정했다. 서론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인권침해 vs 성노동', '피해 vs 자발'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었다는 점, 특히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은 이론적·실천적 논의에서 자주 배제되어 왔다는 점,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도 살아온 삶 전체와 그 안에서 성매매의 위치를 회고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방법론적 고민과 연구 수행 과정, 연구참여자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생애사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범주적(categorical) 접근으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서술하여 이 연구의 인식론적·방법론적 기반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1절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S집결지 인근에서 '펨프[16]', '독장사[17]', '휘파리[18]'

16) '펨프'는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다 주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는 영업형태를 일컫는다. 펨프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이며 과거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펨프와 휘파리의 중

로 '일'하는 50~60대 여성들이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1950~60년대에 출생하여 성매매가 급증하는 시기인 1980~90년대에 성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인의 삶을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집단이다. 이 여성들은 모두 30년 이상 성매매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가씨[19]'로, 또 어떤 때는 펨프로, 그리고 지금은 휘파리 또는 독장사로, 법의 분류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성매매 행위자'로 위치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활에 대한 의지가 낮고 자영업의 형태인 독장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행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탈성매매를 전제로 한 자활중심 정책은 주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일'하고 거주하는 지역은 유리방 집결지와 공간 및 형태상으로 분리된 휘파리 골목과 쪽방촌이기 때문에 유리방 집결지 중심의 단속에서도 종종 제외된다.[20] 즉 이들은 피해자도, 일탈자도 아닌 위치에서 어느 쪽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간 형태(호객행위로 '아가씨'들에게 남성들을 연결시켜주고 드물게 자신을 찾아오는 남성이 있을 경우 '성'을 판다. 보조연구참여자 김수연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로 일하기도 한다.

17) '독장사'는 업주 없이 혼자 영업하는 것으로 자영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S집결지의 경우 업주 밑에서 일하던 여성('아가씨')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업주로부터 독립하여 '독장사'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18) '휘파리'는 일본어로 '잡아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연구참여자와 보조연구참여자 모두 '독장사'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변옥희는 휘파리, 김수연은 펨프겸 휘파리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김수미와 이우주의 경우 특별한 호객행위 없이 찾아오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19) '아가씨'는 성산업 공간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이다.

20) S집결지의 주된 단속 대상은 유리방 골목과 휘파리 골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유리방 업소 단속이 심해지면 오히려 쪽방촌을 찾는 남성들이 증가한다는 구술자들의 말은, 쪽방촌은 성매매여성과 경찰들에게 성매매집결지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 S집결지 영업 형태별/공간별 구분[21)]

연구참여자들은 변옥희를 제외하고 모두 S집결지를 중심으로 '일'해 왔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과 차이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 경험과 해석에는 S집결지의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이, 학력, 계급/계층, 노동경험, 그리고 폭력의 경험까지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김수미와 변옥희는 각각 52세, 51세로 비슷한 연령에 속하며 인신매매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수연과 이우주는 각각 64세, 63세로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고 이혼, 사별의 생애사건을 겪으면서 성매매로 자녀들을 부양해왔다는 점에서 유

21) '휘파리 골목/거리'는 S집결지, 속칭 '유리방'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쪽방촌'은 S집결지에서 조금 떨어진,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쪽방촌'은 일반 가정집과 섞여 있고 '유리방' 및 '휘파리 골목/거리'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형태 및 제도적 환경(단속, 폐쇄 정책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에서도 일하는 공간에 따른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지역명을 비롯해 공간적 구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수미, 김수연, 이우주는 가정폭력 경험을, 변옥희는 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폭력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유입 이전에 경험한 노동의 유형도 비슷하다. 당시 대표 여성 직종이라 간주되었던 식모/애기담살이, 버스안내양, 공장노동 등의 이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한편, 김수미와 이우주는 거리와 형태상 집결지와 분리되어 있는 쪽방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거세진 단속과 저항 담론으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반면, 김수연과 변옥희는 집결지 골목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포함하는 휘파리와 펨프로 '일'하기 때문에 단속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므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좀 더 예민한 편이었다. 연구참여자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과 주거형태이다. 김수미, 김수연, 변옥희는 성매매 공간에서 '일'과 생활을 겸하고 있으나 이우주는 출퇴근 형식으로 집결지 공간을 '일'의 공간으로만 활용한다. 분석 내용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가족과 주거형태는 성매매 '일'과 공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나이 (년도)	최종 학력	유입 시기	종사 기간	성매매 형태 및 지역	주요 생애사건	주거 형태
이우주	62세 (1950년) 호적나이 58세	초졸	1981년 (27세)	32년	펨프→독장사 (S집결지에서 32년)	- 14세 애기담살이 - 15세 상경 - 버스안내양으로 일함 - 19세 결혼 - 27세 이혼 - 27세 성매매 유입 - 46세 재혼 - 58세 이혼	자녀와 동거 (전세)

김수미	52세 (1960년)	중졸	1979년 (19세)	33년	아가씨→펨프 →독장사 (목포에서 약1년, S집결지에서 32년)	- 19세 인신매매됨 - S집결지로 이동 - 20대 후반 탈성매매 - 30세 결혼 - 30세 이혼 - 30세 성매매 재유입	영업장 (월세)
변옥희	51세 (1961년)	초졸	1978년 (17세)	34년	아가씨→ 여관발이→ 독장사 (오류동→군산 →부안→수원→ 성남→청량리→ S집결지)	- 고아원에서 성장 - 14세 식모로 일함 - 성폭행으로 가출 - 식당, 피부관리숍, 버스안내양,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함 - 17세 인신매매됨 - 43세 결혼	영업장 (월세)

〈표2〉 보조사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나이 (년도)	최종 학력	유입 시기	종사 기간	성매매 형태 및 지역	주요 생애사건	주거 형태
김수연	63세 (1949년)	초졸	1992년 (43세)	20년	아가씨 →독장사 겸 펨프 (S집결지에서 20년)	- 13세 아버지 사망 - 14세 병따개 제조 공장 등에서 일함 - 19세 결혼 - 21세 출산 - 37세 남편 사망 후 식당일 - 43세 성매매 유입	영업장 (월세)

연구참여자 이우주(가명)는 1950년 전라남도 B군에서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열한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열다섯 살에 상경하여 버스안내양으로 일하다 열일곱 살에 동거를 시작하여 두 딸을 얻는다. 이십대 중반, 남편이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구술자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한다. 갈 곳이 없었던 구술자는 고향친구가 '일'하고 있는 S집결지를 찾아가 펨프로 '일'을 시작한 이후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스스로 '성'을 팔기로 결심한다. 마흔다섯 살에 재혼하였으나 가정폭력으로 2011년에 이혼하고 작은 딸과 함께 살며 낮에는 쪽방촌에서 '성'을 팔고 저녁에는 손자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김수미(가명)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돕다가 열일곱 살에 전기 공장에 취직하였으나 길에서 인신매매되어 목포로 팔려간다. 몇 개월 후 업소를 출입하던 상인의 도움으로 S집결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33년을 S집결지에서 '아가씨'로 살게 된다. 현재 김수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쫓겨나 인근 쪽방촌에 월세 방을 얻어놓고 살면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을 판다. 현재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로 59만원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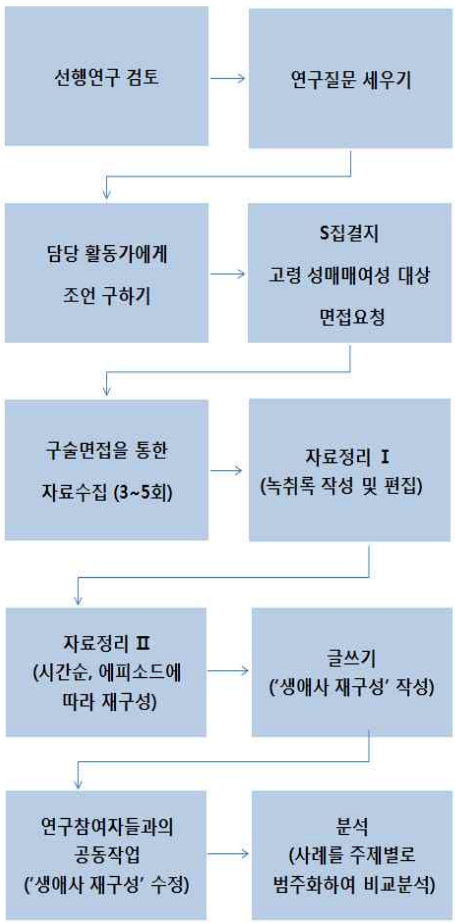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변옥희(가명)는 1961년에 태어나 고아원에 맡겨졌다. 초등학교 졸업 후 열네 살에 어느 집 수양딸이 되지만 실제로는 식모살이였다. 이때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날로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호프집에서 한 여성에 의해 광명시 오류동에 있는 성매매업소로 인신매매 된다. 그리고 군산, 수원, 성남, 청량리를 거쳐 S집결지로 오게 된다. 영업형태는 방석집, 유리방, 여관발이, 독장사 등 다양하다. 현재 S집결지에서 쪽방을 얻어놓고 생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김수연(가명)은 1949년 서울에서 맏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봉틀 일을 하며 다섯 식구가 어렵게 먹고 살았다. 초등학교 졸업 후 병따개 공장, 옷 공장 등에서 잠깐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열아홉 살에 결혼한다. 서른일곱 살이 되는 해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고 식당일, 아이 돌봄이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인이 S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S집결지를 찾게 된다. 그리고 현재

까지 20년간 S집결지에서 '성'을 팔며 살고 있다. 처음에는 업주 밑에서 아가씨로 '일'하다 나이가 많아지자 독장사의 형태로 '일'하며 펨프를 겸하고 있다.

제2절 자료수집 방법

〈그림2〉 연구단계



윤택림 · 함한희(2006)는 구술자료의 종류를 구전(oral tradition), 구술 증언(oral testimony),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로 분류하면서 "구술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58)"이라고 정의한다. 구술생애사는 구술자가 연구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불러오는 구술사적 측면과 시간에 따른 삶의 과정과 그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생애사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윤택림, 2004: 99-105). 기존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적 역사학, 인류학 논의에서 구술생애사는 남성중심 역사 서술에 대한 대안적 자료로서만 그 이용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구술생애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구술사가 과거의 역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현, 즉 현재적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이 적용되고 있다(배은경, 2008: 74).[22]

22) 이에 대해서는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중 pp. 19-43 참조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구술사가 여성주의 방법론이 되려면 단순히 여성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논의(김성례, 2002: 34)도 제출되었다.[23] 즉 체험의 사실성뿐 아니라 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때 여성주의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루너는 구술자에 의해 구성된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story)를 통해 구술자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전희경, 2011: 31에서 재인용). 따라서 구술생애사를 통해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발화하는 시점에서의 주관적 사실들을 통해 그들의 현재를 이해해보겠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구술생애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첫째, 생애사가 가지는 경험의 ①사실성(truth)이라는 특성은 남성중심 역사쓰기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를 가능하게 한다(윤택림, 2008). 둘째, 구술생애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구술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므로 이야기에 나타난 의식구조는 구술자의 정체성과 변화하는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윤택림, 함한희, 2006: 172). 셋째, 구술자의 ②서사형태(narrative form)는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삶의 경험을 해석하는지 보여준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이면의 맥락, 즉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재인, 2006: 66). 이것이 가능할 때 구술자의 숨겨진 의식과 감정, 행위의 방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이재인, 2004: 4). 넷째, 구술자료는 개인의 경험을 매개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③맥락(context)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생애사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구성물"로서 "해당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창작적 구성물"이다(이희영, 2005: 130)". 즉,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험의 구체성 속에서 사회를 문제 삼을 수 있는(ibid., 133)"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구술생애사가 가진 간주관성, 공동작

23) "여성의 삶에 미치는 젠더의 영향을 해석하는 것이 여성주의 연구 방법론의 공통된 과제. 구술사,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는 여성주의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이다(김성례, 2004: 30)"

24) Personal Narratives Group(1989)은 여성의 개인 서사를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1)맥락(context), 2)서사형태(narrative form), 3)구술자와 해석자의 관계(narrative-interpreter relation), 4) 사실성(truths)을 제시했다(3-15).

업[25]의 성격은 ④구술자와 해석자(연구자)의 관계(narrative-interpreter relation)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구술생애사가 가지는 위와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시간성) 성매매 개별 여성의 삶을(총체성) 주체의 입장과 시각에서(주관성) 해석해 보려는 이 연구의 접근과 잘 맞아떨어진다. 성매매 경험을 '자발 vs 비자발'로 이분화하지 않으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경험을 포괄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구술생애사는 사회적·문화적 구조에 대한 분명한 분석 없이 개별 여성의 행위성(agency)만을 부각시키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들을 보완하는 하나의 연구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다.[26] 즉,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특정한 사건 또는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전체 생애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제3절 자료수집 과정

이 연구는 2009년 S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활동가의 위치에서 연구참여자들을 처음 만난 이후로 약 3년 동안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일명 '유리방' 형태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작한 직후 S집결지 여성들과 대면할 기회를 찾고 있던 활동가들은 우연한 기회에 구청 직원으로부터 집결지 인근 쪽방촌에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나이든 여성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업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이 활동가들의 집결지 출입에

25) 윤택림(2004)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구술자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술자가 "편집과 글쓰기에" 참여하는 구술사 연구의 공동작업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윤택림, 2004: 101).

26) "행위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성차별적 구조의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을 빈곤에 취약하게 하는 구조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힘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의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여성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접근할 수 있다...구조의 피해자로만 접근될 때 여성들은 무기력한 존재로서 변화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구조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행사되지 않지만, 역으로 여성들의 행위성 역시 구조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정미숙, 2007: 81)."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집결지와 거리가 있고 독장사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먼저 방문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쪽방촌은 유리방 집결지와 달리 일반 주택가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처음 몇 주간은 여성들의 시선을 피해 관찰을 시도했다. 그리고 인근의 교회나 복지단체의 조언을 얻어 조심스럽게 방문하였을 때, 쪽방촌 여성들은 자신을 "엇다 팔아먹는 줄 알고" 활동가들을 의심하고 경계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여성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쪽방촌 여성들은 업주의 감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층상담이나 지원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활동을 그만 둔 후에도 몇몇 여성들과 연락을 지속하고 지냈다. 쪽방촌을 제일 처음 방문한 활동가라는 것이 여성들이 나를 기억하고 관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때때로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 주변에 볼일이 있을 때 잠시 들러 삶은 계란에 맥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다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만남과 이별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계 맺음은 나를 신뢰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섭외 요청은 2011년 겨울,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의 페이퍼 작성을 위해 수행된 심층면접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2년 5월, 논문의 연구목적 및 질문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애사 연구를 위한 면접을 요청하게 됐다.

"어차피 (여기서 일하는 것도) 다 아는데" 다른 이야기는 못할 것도 없다는 여성, 그동안 나와 함께 의료지원을 받으러 다닌 기억을 떠올리며 "보답"해야 한다는 여성들이 기꺼이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나서주었다. 연구초반에 설정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대표성보다는 개별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기준에 맞는 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초반에 세웠던 기준들을 깰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섭외를 시도했다. 이런 원칙 때문에 김수연과의 구술면접은 두 번의 만남으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연구에서는 보조사례로만 활용할 것이다.

구술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다양한 전략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어떤 이는 자주 연락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반면, 다른 이는 내가 수용하기 힘들 만큼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기를 극도로 경계하는 반면,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위기에 개입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길 바랬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는 특정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히려 개별 연구참여자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처가 더 유용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원칙 없이 각 상황에 대처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가 구술내용의 질과 깊이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나의 입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욕구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27)]

제일 처음 만난 연구참여자는 김수미(가명)이다. 김수미는 2011년에 처음 만났다. 현장기능강화사업 시행 초반인 2009년, 상담소에서는 쪽방촌에서 성매매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여섯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여성을 더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이 바로 김수미이다. 활동가들이 쪽방촌에 있는 여섯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도 김수미의 존재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것은 그만큼 김수미가 다른 여성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연구주제 및 목적이 구체화되면서 김수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시 김수미는 외부와 거의 단절한 채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상태였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흔쾌히 인터뷰를 받아들여줬고 면접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는 등 자주 대화를 걸어왔다. 마지막 구술면접(2012. 11. 19)에서 김수미는 자신의 생애사를 재구성한 글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곤 연구가 끝나면

27)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과정은 공식적인 만남인 구술면접 이외의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방문을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했고 그때마다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사가곤 했는데 연구참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선상님이 뭐를 사다줬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치 내가 연구참여자들을 차별한다는 식으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소소한 헤프닝이었지만 그런 일들에 일일이 대응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연구과정에서 큰 스트레스 중의 하나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예쁘게 책으로 묶어 선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미는 자신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경험이 많지 않다. 성매매 경험을 굳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은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아무도 그에게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김수미는 치매로 병상에 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두 번째로 만난 연구참여자 이우주(가명)는 내가 상담소 활동가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도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2009년 겨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이섬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처음부터 활동가들의 방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이우주는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우주와의 구술면접은 이우주와 가깝게 지내는 김숙진(가명)의 도움으로 성사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김숙진이 아들의 반대로 고사하게 되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이우주를 소개시켜 준 것이다. 이우주는 본인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는가 의아해 하면서 선뜻 허락해 주었다. 이우주와 구술면접을 진행하면서 나의 위치가 구술내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상담원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성매매 경험에 국한된 이야기들이 계속됐다. 그래서 이우주에게는 성매매 경험이 전체 생애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활동을 그만두고 학생의 신분으로 이우주와 다시 만나자 여자로서의 삶, 일생의 이야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아마도 이전 관계에서는 서로가 상담원과 내담자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경험만이 핵심 주제로 여겨졌나 보다.

다음으로 만난 연구참여자는 변옥희(가명)이다. 변옥희는 김수미, 이우주와 인터뷰하기 위해 쪽방촌을 오갈 때 마다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변옥희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우리는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처음에 이 연구는 집결지 인근 쪽방촌에서 '일' 하는 나이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변옥희와 마주쳐도 간단히 눈인사만 나눌 뿐 연구참여자로 섭외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변옥희

는 휘파리 골목에서 독장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옥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변옥희는 여러 집결지를 거쳐 S집결지로 왔고 쪽방촌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자 흔쾌히 승낙해주었고 며칠 뒤 구술면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와는 달리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질문에 짧은 대답만 이어갈 뿐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 인터뷰를 어렵게 마치고 돌아온 뒤 손님이 없다고 우울해 하는 변옥희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하루는 포장마차 주인이 전화를 받았다. 변옥희가 술에 취해 자기 전화기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는 변옥희의 전화기가 맞으니 꼭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사실이 변옥희에게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 변옥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본인의 편에 서 주었다는 것이 나를 신뢰하는 기반이 된 것 같다. 그 일을 계기로 두 번째 만남부터는 이전보다 편안하게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연구참여자는 김수연(가명)이다. 김수연은 변옥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김수연과 변옥희는 바로 옆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서로를 돌보며 지내는 단짝이다. 변옥희는 움직임이 불편한 김수연을 대신해 식사 준비 등을 돕고 김수연은 친구가 별로 없는 변옥희의 유일한 대화 상대이다. 변옥희와 구술면접을 마치고 녹음기를 끈 상태로 뒷정리를 하고 있었을 때 변옥희가 조심스럽게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변옥희를 통해 김수연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수집한 뒤 김수연을 다시 찾아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수연은 연구자인 나를 집결지를 폐쇄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여성계'로 간주하면서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여기 없어지면 안돼요", "여성단체에서 돈 다 해먹는다매?"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침묵을 유지했고 침묵을 견디다 못해 내가 질문을 던지면 "몰라요", "그게 다야", "기억이 없네", "뭘 더 얘기해?" 등 본인의 경험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변옥희를 통해 김수연이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는데 김수연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김수연의 태도에는 몇 가지 이

유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첫 번째는 라포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술면접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김수연의 현재 심정이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예민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두 차례의 구술면접을 진행하였지만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아 구술면접을 종료했다. 두 번의 만남으로는 김수연의 생애와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슷한 또래의 연구참여자 이우주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4장 생애사 분석〉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술면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2012년 6월~11월까지(6개월간)이며 구술면접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각 연구참여자별로 3~5회씩,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주로 연구참여자들의 영업장)에서 진행되었다. 구술면접은 "살아온 얘기 좀 해주세요"로 시작해서 별도의 질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연구참여자가 구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했다. 3회부터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참고하여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주었을 때, 이야기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연대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예 생략되었으며 구술면접 직전에 겪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두 시간 내내 그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28]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첩된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일관된 내러티브를 구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술자료를 시간순서에 따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참여자들과의 공동작업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구술면접 과정에서 서로의 위치와 세대가 달라서 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28) 구술사생애사는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으로 자서전과 달리 청자인 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윤택림, 함한희, 2006: 170). 그렇기 때문에 구술생애사 연구의 성패는 구술자와 면담자와의 상호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도 이야기 나누는 장소, 구술 당시의 면담자와 구술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구술에 대한 면담자의 적절한 반응과 질문, 구술면접 직전에 구술자가 겪은 사건 및 사고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다. 또한 연구 수행과정에서 내가 경험한 방법론적 갈등과 윤리적 문제도 공동으로 생애사 재구성 작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이 된다.[29] 그래서 나는 이 연구에 구술자료를 제공해준 여성들을 '연구참여자'라고 부르기로 했다.[30]

〈표3〉 구술면접 진행사항[31]

구분	김수미	이우주	변옥희	김수연
1차 구술면접	2012. 6. 23 (14:00~16:00) 구술자 자택	2012. 9. 10 (9:00~11:20) 구술자 자택	2012. 10. 5 (10:40~12:10) 구술자 자택	2012. 10. 12 (13:00~14:40) 구술자 자택
2차 구술면접	2012. 6. 29 (14:00~16:00) 구술자 자택	2012. 9. 19 (9:00~11:15) 구술자 자택	2012. 10. 20 (10:00~12:10) 구술자 자택	2012. 10. 16 (13:00~14:50) 구술자 자택
3차 구술면접	2012. 7. 3 (18:00~20:00) 구술자 자택	2012. 10. 12 (9:30~11:00) 구술자 자택	2012. 11. 19 (13:00~15:00) 구술자 자택	
4차 구술면접	2012. 7. 20 (16:30~19:00) 인근 까페	2012. 10. 23 (14:00~15:00) 구술자 자택		
5차 구술면접	2012. 11. 19 (15:00~17:00) 구술자 자택	2012. 11. 19 (10:00~12:30) 구술자 자택		

생애사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수십 장의 문서를 들고 연구참여자들을 다시 찾았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에서 귀찮음까지 다양했다. 김수미의 경우 한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눈물이 터져 끝까지 읽어 내려가기 위해 몇 차례 다시 방문해야 했다. 이우주는 읽을 시간을 요구하여 3주의 시간을 드린

29) 이에 대해서는 제1장 5절에서 '연구윤리 및 방법론적 고려'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0) 구술면접, 이야기 나누는 상황이 전제될 때는 '구술자'라는 명명을 혼용하여 쓸 것이다.
31) 녹음을 전제로 한 구술면접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뒤 다시 방문했는데 꼼꼼히 수정하여 설명해 주었으나 공동작업의 시간이 길어지자 나중에는 귀찮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변옥희는 글을 읽을 줄 몰라 대신 읽어주었는데 "그게 아니야"라며 다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새로운 구술이 계속되었다. 공동작업의 과정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기억들을 함께 풀어가는 지난한 과정이면서 구술면접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3장 생애사 재구성〉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주체성이 혼합된 자전적 여성 서사(autogynography)(조옥라 · 정지영, 2004: 53)"라고 볼 수 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지 못한데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나와 세대가 다른 50~60대 여성들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초반부터 나의 긴장은 상당했다. 여성들과의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설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내가 연구참여자들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연구질문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나를 다급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연구참여자들이 너무 엄청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의 고통이나 상처가 어떤 경험의 흔적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상흔을 성매매 경험 탓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반복해서 상상하면서 당시의 경험과 고통에 공감하고자 노력했다. 동시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해석하는 자세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세대가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다차원적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한계이다. 정보 및 지식의 부족은 때때로 연구참여자들의 중요한 경험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가령,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일 경험은 이야기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내가 그들의 일 경험에 대해 적절히 호응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그들의 경험이 성매매와 갖는 연관성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데 있었다. 글쓰기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시대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이

해하기 위해 1970~80년대의 한국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도시로 간 처녀》, 《별들의 고향》등을 찾아보면서 영감을 얻고자 노력했다.

방법론적 고민과 구체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직면한 녹취, 편집, 글쓰기,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남겼다. 우선 이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된 기간은 2012년 5월~11월까지로 구술면접(각 연구참여자 마다 3~5번)이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의미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과 2009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 왔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기억에 의존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가 일관적이기 않았기 때문에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장과 4장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4. 자료분석 방법〉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과 처음 만나게 된 배경과 세대 차이가 낳은 심리적 거리감도 문젯거리였다. 처음 상담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다시 연구참여자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상담 때와는 달리 성매매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정책지원의 '제공자-수혜자'의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연구참여자들이 나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되는 낙인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일까.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관계에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성매매 상황에 대한 구체적 구술이 더 많이 생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4절 자료분석 방법

구술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녹취를 풀어 다음 구술면접에 참조하였으며 나의 기록과 기억에 의존한 비언어적 행위를 최대한 반

영하기 위해 구술면접이 이루어진 직후에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녹취록은 맞춤법, 표준어에 상관없이 말하는 대로 기록했으나 본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임의로 편집을 수행했다. 녹취록에 사용된 편집기호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구술내용 편집기호[32)]

기호	내용
소괄호 ( )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어휘 삽입
중괄호 〈 〉	표정, 몸짓 등의 묘사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술상황에 대한 해설
대괄호 [ ]	면접자의 질문
“ ”	구술자가 직접 인용한 다른 사람의 말
‘ ’	구술자의 혼잣말 또는 생각
,	말이 쉬었다 이러질 때
.	의미상 말이 끝날 때
…	말끝을 흐릴 때
~	말끝에 실리는 억양 또는 길게 강조하여 발음할 때

1~2회 구술면접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해주세요”로 시작해서 구술자가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해 갔다. 이때 적절한 호응이나 추임새, 또는 불명확한 발음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외에는 전적으로 귀를 열고 듣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참여자 김수미와 이우주의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꾼이었다. 하지만 김수연과 변옥희는 적절한 때 질문이나 호응이 없을 경우 구술이 중단되는 등 침묵의 시간이 긴 편이었다. 1~2회 구술면접이 모두 완료

32) 본 논문에서 사용된 편집기호들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에서 사용된 기호들을 토대로 약간 변형하여 사용했다.

된 후 녹취록을 살펴보면서 생략되거나 모순적인 내용,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된 내용에 한해서 당시의 감정을 묻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준비했다. 생애사가 시간에 따라 정리된 것은 질문지에 따라 구술면접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간축으로 재구성된 생애사는 3~5회 구술면접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3장 생애사 재구성〉에서는 1~2회 구술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혹시 그것이 체험된 생애와 차이가 있거나 감정선 없이 건조하게 구술되었다 하더라도 구술자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 1~2회의 구술내용 속에 구술자의 의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5회에서 추가로 구술된 내용은 1~2회 구술내용에 보충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구술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1~2차 구술면접도 공동연구의 성격을 가지지만 녹취록 편집과정(구술내용 중 구술자가 수정을 원하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특히 동료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하는 등)과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공동작업'이 진행된 것은 3차 구술면접부터라고 할 수 있다.

〈3장 생애사 재구성〉 1차 글쓰기 작업은 전적으로 내가 수행한 것이다. 가끔 문자나 전화로 추가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3~5회 구술내용을 토대로 시간순서에 따라 재구성했다. 글쓰기는 해당 구술내용을 보여주고 제시된 구술내용을 전체 생애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구술자의 이야기와 나의 해석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길어지고 지루하더라도 이것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방식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간단하거나 사소하게 구술된 내용도 되도록 모두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생애경험이 산발적으로 나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연구자인 내가 임의로 연구참여자의 삶을 재단하지 않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밝히고자 한다. 비록 이런 과정이 이 연구에 크게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연구참여자 간의 암묵적 약속이기 때문에 공동연구로서 이 연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생애 이야기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분량이 적고 어떤 부분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야기된 내용과 시간에 비

례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완료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시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1차로 작성한 〈3장 생애사 재구성〉은 2012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연구참여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주로 "씹", "호객행위" 등 직접 사용한 언어라도 자신의 일과 삶을 비하하는 표현과 불법행위(손님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해 주길 원했다. 그리고 동료여성에 대한 내용도 삭제해주길 요구했다. 공동작업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보인 특징은 본인의 생애가 '피해자/희생자' 또는 '주도적 행위자' 어느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불쌍한 여성으로 남고 싶지도, 그렇다고 성매매를 하는 현재의 삶이 모두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도 원치 않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애사 재구성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다시 만나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야말로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임파워링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확신이 든다. 〈3장 생애사 재구성〉은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을 만들어 제시했다. 3장은 구술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전환점(turning point)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기에 겪은 경험이 전체의 삶과 성매매 유입/탈성매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작성했다.

구술면접 이전의 연구설계는 연구참여자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각 생애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연구질문에 따른 발견들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생애사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을 해석하는 것과 분량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편집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많은 연구들이 시간순에 따라 생애를 간략히 요약하고 본문에서는 분석 범주 안에 여러 사람의 구술내용을 배치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리브리히 등(Lieblich A et., 1998)은 이를 범주적(categorical) 접근으로 분류하면서, 범주적 접근은 전통적인 내용 분석 방법으로 연구자

(researcher)가 어떤 그룹에 의해 형성된 문제 또는 현상에 관심을 가질 때 채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12-13). 하지만 내가 이 연구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연구자의 시각으로 각 경험을 재단하는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범주적 접근에 따라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과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경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대신 별도의 장(4장)을 구성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된 공통된 경험들을 범주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한 사람의 생애 이야기 전체를 다루는 방식)과 범주적 접근을 구분한다고 해서 총체적 접근이 연구자의 시각이 배제된 완전히 객관적인 생애경험이라는 뜻은 아니다.[33] 이는 〈제2절 자료수집 방법〉에서 구술생애사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제5절 연구윤리와 방법론적 고려

구술생애사 연구가 연구참여자와 나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특성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로서의 나의 자질(귀 기울이기, 괄호치기, 공감하기 등)과 방법론적 한계(거리 유지, 재현의 문제 등)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찰을 필요로 했다. 여기서는 내가 경험한 성찰의 지점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연구윤리와 방법론적 고민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묻기'에서 '듣기'로

구술생애사 연구는 '묻는 자'에서 '듣는 자'로 연구자의 위치 변화를 요구한다(이나영, 2012: 190). 연구참여자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기고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의 서사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술자가 말하기를 거부하

33) 이나영(2012)은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글 쓰는 과정은 연구자의 위치가 드러나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애초에 구술자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투명하거나 객관적인 주체가 아니라 구술자와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역사를 (재)생산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181).

거나 어떤 '사실'이 구체적으로 말해지지 않을 때, 나는 침묵을 깨고 개입하곤 했다. 구술면접을 마치고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야 내가 깬 것이 침묵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은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놓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더 문제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아래 구술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연구참여자에게 내가 행한 폭력의 단적인 예이다. 내가 가진 '사실'에 대한 집착이 연구참여자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집요하게 묻고 있었다.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연구참여자들마다 자신의 상처된 경험을 다루고 이야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듣고자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묻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연구참여자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도록 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와 나 사이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지점이 되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행했던 폭력이 종종 발견되었고 연구과정 내내 성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 [이모 공장에서 일하실 때 뭐, 에피소드나 그런 거... 없어요?] 어렸었지. 너무 오래돼서 몰라~ 그런 거. [그래도~] 생각이 잘 안나. 그냥, 공장에 다녔어. 아~무일 없이. 몰라~ 그냥 생각이 안나. 아무 탈 없이 일 다녔어, 그냥. [그래도 뭐, 지난, 옛날에 뭐 있었던 일이나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추억될 만한 게 없어. [그래도 이년 정도 일하신거 잖아요. 병뚜껑 공장에서...] 다니고... 놀다가 또 그 재봉, 그, 실밥 띠는 그거 다닌 거지. 잘 기억이 없어. 별~ 나게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애. [음...] (중략)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신랑이요? 신랑은 이제 누가 얘기해가꼬 만났지. [소개로?] 응. [그래서 연애하시다가 결혼 하신 거예요?] 응, 응. 〈침묵...〉 [쫌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모, 이러면 얘기할게 없는데...] 그것뿐이 없는데? 〈약간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 뭘 자세히 얘기해야 돼? [뭐, 연애할 때 얘기라던지...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셨는지...] 〈쫌 감정이 상하신 듯, 목소리 높이며〉 아, 소개로 만나가꼬 몇 번 만났어~ 신랑하고. 그러다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한 거지. 뭘 어떻게 더 얘기해! 그걸 어떻게 더 얘기해야 돼! (김수연 2차 구술면접_2012. 10. 16)

2.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경험을 들어야 하는 자와 말하고 싶지 않은 자 사이의 문제가 내가 경험한 두 번째 딜레마이다. 이 문제는 연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결국에는 연구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지만 연구 초반에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연구참여자들마다 과거의 경험을 극복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다. 김수연과 이우주는 김수미와 변옥희에 비해 성매매 공간에서 활기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수미와 변옥희가 신세타령의 형태로 서사를 구성하는데 반해, 김수연과 이우주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형태로 서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수연과 이우주는 마치 과거를 이겨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김수연과 이우주가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적은 편이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삶이 자기 식으로 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의 주어진 삶을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이끌어 내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 속의 트라우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는 김수연과 이우주도 마찬가지였다. 이우주는 나와의 친분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하게 된 사례이다. 이우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거를 떠올릴 때 마다 두통에 시달려 약을 복용해야 했다. 심지어는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악몽을 꾸는 일도 잦아졌다고 한다. 나는 이우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는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이 당시의 상황만큼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우주와의 공동연구를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해야 할 것인가. 이 연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34]

> 저기 뭐야, 머리 아파. 그 남자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 〈일어나 서랍을 열어 약을 찾는다〉 그 남자 얘기하면, 머리가 띵해버려. 돌아버릴 것 같애. 후... 〈한숨〉 [약 드시게요?] 응. [약까지 드시면...] 아니, 아니야. 그 사람 얘기하면은, 왜, 선생님 거 뭐야. 이런 말 있잖아. 머리끝이 슨다. 그거 겪어 보셨어요? 안 겪어 본 사람은 몰

34) 이나영(2012)은 '너는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이 연구를 하는가'라는 질문은 페미니스트 연구 수행의 첫걸음이며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198).

라요. 이 남자한테요, 진짜 살면서, 머리끝이요? 머리가 서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머리가 슨다니까. 머리가 진짜로 이렇게 서요! 내가 그걸 느꼈어. 인간이 아니기 땜에,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 얘기는 안할려고. 평소때도 생각을 안할려고 마음먹었는데, 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네. (이우주 1차 구술면접_2012. 9. 10)

3. '고통'에 공감하기

나는 2009년 중반에 연구참여자들을 알게 되어 2009년 후반부터 의료 및 자활지원을 위한 심층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연구 시작 이전부터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공간 안에서 겪은 몇몇 에피소드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녹취를 전제로 한 공식적인 구술면접(3~5차례)을 제하고도 수십 번을 연락 및 방문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육체적·심리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나는 연구참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도 수차례 녹음 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읽어야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에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힘든 경험들에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여 어쩔 때는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간의 경험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가진 입장에서 한발 벗어나 관찰할수록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들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도 함께 모호해지는 듯 했다. 연구 전체를 구상하고 조율하면서 지치고 둔화된 나의 감정은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 애써도 고스란히 연구참여자에게 전달되었을 것 같다. 소중한 경험을 풀어 보여주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죄책감이 들었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구술면접에 참여하려는 노력, 그리고 나의 면접 태도를 살피며 스스로 성찰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으려고 했다.

4. 연구참여자와의 거리 유지

> "연구자가 지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어두운 동굴을 헤매는 것에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경험 제공자'는 연구자 앞에 서서 불을 밝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동굴이 밝아질 때쯤 길잡이는 필요 없게 된다. 연구자는 더 이상 증언자의 이야기가 필요 없는데 증언자는 연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계속 만나자고 할 때 연구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정희진, 2000: 16)."

연구 수행 과정에서 겪는 다른 문제들이 연구자인 나의 성찰로 해결 가능했다면, 연구참여자와의 거리 유지와 관련된 문제는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대답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다. 연구참여자 김수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는 등 시시때때로 나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몇 시간씩 통화에 응하기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김수미에게 위로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김수미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나의 여건상 매번 김수미의 대화 요청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나의 위치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디까지 개입하여야 하는가', '언제까지 응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이었다. 혹시 일일이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를 위해 본인을 이용했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놓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김수미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했을 때 김수미는 매우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김수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있는지 평소처럼 '길~게' 신세타령을 하지는 않는다. 연구참여자와의 거리 유지와 관련된 문제는 이 논문이 마무리 되고 연구물을 전달하는 최종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기에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5. 글쓰기의 고통

내가 아무리 연구참여자들의 고통에 공감해보려고 노력해도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충분했을 것이다. 고통은 개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언어로 표현/소통되는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희진, 2000: 13).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의 고통 속 행복과 즐거움을 이해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이들의 고통과 울분, 행복과 즐거움을 재현하는 문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과 이론적 설명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욕심 사이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희진(2000)은 '아내폭력'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평등은 서로가 가진 자원을 나누되, 각자의 자원이 '경험 대 이론'으로 이분화, 위계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力說)한다(17). 이론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커질수록 희미해져 버리는 '사실'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글쓰기(재현) 과정에서의 강약 조절을 필요로 했다. 연구참여자가 말하는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려하니 내가 임의로 경험의 맥락을 부각시켜야 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추측이고 짐작에 불과하다는 회의가 어깨를 짓눌렀다. 이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시키지는 않을지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고통의 목격자인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은 없다. 내가 경험한 글쓰기(재현)의 고통은 구술생애사 방법론이 재현의 한계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생기는 고통이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추상적인 기대는 현실이라는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재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놓지 않았다. 그 결과물이 3~4장에 제시된다. 글 속에 연구자인 '나(I)'를 드러내는 것, 〈생애사 재구성〉을 연구참여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것, 이야기 되지 않은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마련한 것 등이 글쓰기(재현)의 문제를 두고 내가 고심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제 3 장 생애사 재구성

제1절 이우주 : 아내, 어머니, 노동자 지위

이우주의 서사는 첫 번째 이혼(27세)을 전후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혼 전까지의 이야기는 사회규범에 저항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자신의 의도와 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이혼 후의 이야기는 본인의 의도나 전망보다는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삶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우주의 서사는 주어진 삶의 역경을 이겨낸 '강한 여자' 이미지로 연결된다. 이는 "말에도 힘이 있다[35]"는 이우주의 철학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이우주의 서사에서 반복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라는 표현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60년 삶의 회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 아동기(1950~1964년)

1) 어머니의 죽음 : "쟤가 어떻게 살까, 열한 살 먹은 애가..."

구술자 이우주(가명)는 1950년 전라남도 B군에서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36] 구술자가 태어난 전라남도 B군은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차도 안 다니는" 십리 길을 걸어야 겨우 오일장에 갈 수 있는 산골짜기였다. 구술자는 1950년에 태어났지만 호적에는 1954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 가려면 큰 산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4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그만큼 고립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술자는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35) 이우주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에도 힘이 있다"는 말은 '말이 씨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6) 구술자는 1950년에 출생하였으나 호적상에는 195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술자는 대부분 호적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호적상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겠다.

귀엽게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풀어놓는 "맞아보지는 않았어요", "사랑은 받고 살았어요" 등의 구술은 과거를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폭력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현재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술자의 어머니는 구술자가 "철도 들지 않은" 열한 살에 돌아가신다. 그 날은 구술자의 소풍날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막내딸의 얼굴을 보고자 숨을 헐떡거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기다리고 있었고 소풍에서 돌아온 막내딸의 얼굴을 보시고는 금방 눈을 감으셨다. "꼭 엄마만 쫓아다니면서 어리광부리"던 막내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쟤가 어떻게 살까, 열한 살 먹은 애가..."하며 걱정하시던 동네 할머니들의 염려와 달리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나는 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잘 견디어냈다고 한다. 구술자는 1차 구술면접에서 "철도 들지 않는 이제... 열한 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유도 몰랐죠"라고 간단히 어머니의 죽음을 설명한 뒤 "열한 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라는 나의 질문이 있은 뒤에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풀어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 열한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사학년 때 있잖아요. 그게 O월 O일이예요, 음력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O월 O일 인데, 그때만 해도 정말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소풍을 가요, 가을 소풍.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고구마를 캐다가 그걸 쪄서, 그걸 간식으로 주는 거라. 그걸 소풍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있다가 오니까, 우리 집이 쫌 외딴 곳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딱 도착하니까 우리 집이 외따른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나갈 때 고구마까지 이렇게 쪄주고 그러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가보니까 완전히 돌아가시지는 않고, 숨은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영혼도 그런가봐요. 보고 싶은 사람을 봐야만 숨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중략) 아마 돌아가실려고 목에서 가래 끓으면서 돌아가실려고 그 영혼이 막내딸이라도 보시고, 깩까닥 하더라고. 깩까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이제 오빠들은 스무 살이 넘었으니까, 아니까 돌아가셨다고 울고 그러는데, 나는 울지도 않아요. 참 대담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열한 살 때고, 꼭 엄마만 쫓아다니면서 어리광부리고 하는데, 〈울먹거리며〉 동네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울음 폭발, 떨리는 목소리로〉 "쟤가 어떻게 살까, 열한 살 먹은 애가" (중략) 그니까 동네 할머니, 엄마들, 내 위에 있는 분들

> 이 더 많이 운거야, 나를 보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그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대담했나봐요.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나는 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열한 살짜리가. 그래가꼬 남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씩씩하게 그렇게 잘 다니더래요.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2) 첫 일자리인 애기담살이 : "밥이라도 먹고살겠다고"

같은 해 구술자의 큰 오빠가 결혼을 하여 올케와 함께 살게 된다. 하지만 구술자는 "가정일도 잘 모르"는 나이 어린 올케가 맘에 들지 않았다. "철이 조금 일찍 들은" 구술자는 열한 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아버지의 식사까지 모두 챙겨야 했고 자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올케와의 갈등은 깊어져 갔다. 구술자는 우등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배우고 싶은데서 욕망이 있었"지만 "먹고살기도 힘든 때" 오십리 밖에 떨어진 중학교 진학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당시 구술자의 고향 사람들은 광산촌에서 소일을 하거나 남의 집 일을 도와가며 겨우 먹고 살았다. 그렇지 않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고 싶어서" 도시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여자들의 경우 도시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거나 식모로 일했는데 구술자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전라북도 고모 댁으로 "애기담살이"를 떠난다. 구술자는 고모 댁에서 또래 사촌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잡일을 주로 했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구술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들의 어깨너머로 "엘비씨"와 펜글씨를 독학으로 익힌다. 일 년 정도 고모네 손자들을 봐주며 생활하던 구술자는 고향이 그리워 돌아오지만 올케와의 갈등 때문에 고향에서 지내지 못하고 상경한다. 구술자가 일자리를 찾아 상경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 내에서 구술자가 맡아왔던 전통적인 돌봄의 역할을 올케가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올케가 없었다면 구술자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대신 아버지를 부양해야 했을 것이다.

> 쪼금씩 자라면서, 서울에서 살면 남의 식모살이라도 하면서 밥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어... 그... 밥이라도 먹고 살겠다고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나는 뭐 안내양이 좋아서 안내양 짓을 했지만, 식모살이들을 거~의 많이 했어요. 보면은, 친구들이 에, 지금 만나서 모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남의 집 살이를 많이 했어요.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2. 청소년기(1965~1968년)

1) 임금노동과 가족부양의 의무 :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구술자는 서울로 올라와 아는 고향 언니의 소개로 버스안내양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차가 없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구술자는 차를 타는 것을 좋아했다. 단정한 복장과 기숙사 제공이라는 조건의 버스안내양은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직업이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체격도 좋고 미모도 좋아 “중학교도 나와야 되고 한다는데” 비교적 쉽게 버스안내양으로 일할 수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구술자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은 “진짜”, “참”, “정말”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날들이었다. 특히 남학생들이 “가방에다가 뭐도 숨겨가지고 와서” “연애하자고” “쫓아다니는” 등 하루하루가 “에스...프레스(에피소드)”의 연속이었다.

> 버스 안내원으로 이제... 어렸을 때도 이상하게 버스 안내원이 그렇게 좋아보이더라구요. 이렇게 차 타고,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버스 안내양하는 게 참 좋아 보여. 참 그때는 버스 안내양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뭐 중학교도 나와야 되고 한다는데, 그래도 어... 어렸을 때 쪼끔 미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나 가도 환영을 받았어. 그리고 귀여움을 받고 자랐어, 어른들한테. 그래서 정릉에서 서강 가는 1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1번 버스... 으... 버스 안내양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안내양하면서 되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때는 남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다녔잖아요? 가방,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에다가 뭐도 숨겨가지고 와서 나를 주고, 버스를 타면... 응... 그런 에스...프레스가 있었고... 또... 연애하자고... 어, 쫓아다니는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참 진짜, 거기서 참 재미나게 일을 했었어요. 정말, 거기에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사감 선생님들도 있어요. (중략) 그 분들도 참 잘해줬고. 기사님들도 나한테 잘해주고.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그러는 동안에 구술자의 둘째오빠가 서울로 올라와 구술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병역거부로 도피 중이던 둘째오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째오빠의 상경은 구술자에게 부양의무가 되었다. 다행히 “월급 외에도 수입이 쫌 생기는 게 있으니까” 공장, 식모살이 등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둘째오빠가 시골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어 셋째오빠가 군대를 제대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 아무 기술이 없었던 셋째오빠는 취직을 위해 운전을 배우고 있었다. 구술자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던 셋째오빠를 약 2년간 부양했다. 구술자는 그 당시를 피할 수 없는 가난의 현실 속에서 가족 부양까지 책임져야 했던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 내가.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오빠, 둘째 오빠라는 분이 군인을 안 갔어요. B에서 살다가 군대를 안가니까 잡으러 올 꺼 아니예요. 잡으로 오니까는, 서울로 도망을 오셨어. 딸 둘을... 나눴고(낳아 놓았고), 올케하고 시골에다 놔두고, 오빠만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 오빠를 부양을 〈목소리 톤을 약간 높이며〉 하게 됐었어요, 내가. 응... 부양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으... 안내원은 돈을 꽤 잘 벌었었어요. 어떻게 하든가 뭐, 월급 외에도 수입이 쫌 생기는 게 있으니까. 뭐 식모살이 그런 것 보다는 훨씬 났었어요, 수입이. 그러니까는 우리 오빠를 부양을 하고 살았어.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우리 오빠가 어떻게 자리가 잡혀서 시골로 내려갔어, 이제 그 오빠가. 근데 셋째 오빠가 군에를 제대하고, 또 그 오빠가 서울로 온 거야. 내가 서울로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장가도 안 갔는데. 그래서 제대하고 오빠가 또 서울로 오셔가지고, 또 그 오빠를 부양을 하고 살았었어.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2) 안정된 삶에 대한 욕망 : “시집을 쫌 가봐야 되겠다...”

구술자는 예쁜 외모에 “끼가 많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성적으로 매우 자유분방했던 구술자는 맘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꼭 데이트라도 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었다. 스스로 “요조숙녀”가 아니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1960~70년대, “첫 번째 남자를 만나면 평생 그 사람과 살아야 된다는, “몸을 주면, 그~런 게 쫌 있었”던 때에 구술자는 “그런걸 묵사발시키고” “사겨서 연애하고 싶으면 하고” “맘에 있으면 주는(섹스를 하는)” 등 “쫌 개방되어 있”던 여성이었다. 이후의 구술에서 “정말 요조숙녀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라며 성적으로 자유분방했던 자신의 성향이 성매매를 선택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등의 생애 이야기는 젠더역할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여성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가 쫌 끼가 많아요. 끼가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남자를 내가 먹어야 돼. 응. 이상하게 처녀 때, 그런 끼가 쫌 있었는가 봐요. 내가 어디를 가면, 어... 어... 쫌 괜찮다 하는 남자 있으면은 그 남자를 어떻게 꼬시던지 데이트를 해야 돼, 내가. 같이 데이트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헤어져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정말 요조숙녀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무리 친구가 여기 있다하더라도 여기까지 못 오지.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정말 우리 애기 아빠 만나기 전까지 연애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면 연애했고, 그 사람이 원해도. 〈잠시 멈춤〉 [연애했고?] 응, 연애했고. 그런데도 어쩌면 임신이 그렇게 안 돼. 피임을 안했는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아서지요. 만약에 그 어렸을 때, 내가 생리를 열아홉 살(호적나이로 열일곱 살)에 있었어요, 생리가. 늦게 있었는데. 열아홉 살(호적나이로 열일곱 살) 후에도 내가 연애를 했잖아요. 외간남자하고.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고. 정말, 뭐라고 할까... 내가 즐기고? 내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 나한테 겪어간 사람도 많지. 겪어간 사람도 많고. 내가 원하면 그 사람을 다 내 손안에 쥐어 버릴려고 생각했고 〈웃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 내 돈도 써가면서, 내가 차 값도 내야하잖아요. 그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내, 내 욕망을 채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구술자는 버스기사가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고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활발하게 생활하던 구술자에게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내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일이었다. 마침 아는 언니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펜팔을 통해 서로 정을 쌓았다. “당시 혼자 사는 게 너무 슬퍼, 싫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시집을 쫌 가봐야 되겠다’하고 막 마음을 먹고”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고된 일과 근무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욕망했던 것이다. 하지만 구술자는 좋은 대학에,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 따르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편과의 만남을 “배움이 없어서 선택을 못해서”라고 표현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것은 둘이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믿었다. 구술자의 구술내용은 자본과 학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 현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기숙사에 언니가 자기 주위에 총각 있는데 "참 괜찮다" 그래. 그러면서 그 총각의 주소를 알려주더라구요. 그 분이 이제... 나의... 애들 아빠야. 근데 그때 당시 혼자 사는 게 너무 슬퍼, 싫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시집을 쫌 가봐야 되겠다' 하고 막 마음을 먹고, 그 분하고 펜팔을 하다가, 그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동거를 하게 됐지, 처음에는. 동거를 하고 살다가... 또... 너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노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힘든 세상을 정말 많이 살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 복도 없었지, 형제간 복도 없었지, 남편 복까지 없더라구요.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3. 성년기(1969~1989년)

1) 생계와 가족생활 : "남편 복까지 없더라구요"

구술자는 동거 기간을 거치면서 남편의 경제력을 파악했지만 "둘이 부지런히 벌어서 살면 되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971년 첫째 딸, 1973년 둘째 딸을 출산한다. 그러나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없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외국으로 "노동일"을 떠나게 되었고 혼자 각종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구술자는 우연히 Y를 만나게 된다. 총각이라고 속인 Y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과 달리 "충청도 사람이라서 쫌 온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구술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감춰 두었던 20대 젊은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그대로 실현했다. 알콩달콩 연애 경험이 없었던 구술자에게 그 당시는 "서로 죽자, 못살자" "너무 재밌게" 보낸 시간으로 기억된다. 몇 년 뒤 남편이 외국에서 돌아왔고 가정이 있는 구술자와 Y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Y는 구술자의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제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결국 평소와 달리 "행실이 많이 안좋아"진 구술자의 외도는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하면서 살다가, 어... 딸을... 큰 딸을 71년도, OO월... OO월 OO일날 낳고, 둘째 딸을 73년도... 어... OO월 OO일날 낳고. 형제를 낳았어요, 형제를 낳(았)는데... 형제를 낳고... 그래도 없이 살지만 참 뭐 그냥 남의 것

> 탐내지 않고 일단은 이제 부부라는 것이 맺어졌으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부부라고 맺어졌으니까 그냥 딸 둘 다복하게 열심히 키우고, 부업해 가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큰 애 초등학교... 들어가는 때에? 어느 남자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남자가, 그니까 나쁜 남자지, 그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는, 그때 당시 솔직한 얘기로 돈을 벌러 갔었어요, 외국으로. 노동일? 근데 그때만 해도 스물 몇 살이니까 외롭잖아요, 내가. 젊은 나이에. 그래서 미모는 괜찮았는데 속이 텅 빈 남자여가지고 어... 제비는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로 생겼어. 그래서 그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우리 신랑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남편도 있고 딸도 있는 거 다 알면서 나를 이혼을 시켰어. 애기 아빠하고 이혼을 시켜서, 나는 나대로 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가정이 있으면서도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중략) 그 남자가 여자가 있었기에 같이 살림도 못하고 살게 됐지. 응. 그래서 참 원망을 해봐야 할 수 없는 그거지.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구술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구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그 상황에서도 구술자는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혼이나 도망은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 무서워서 못사니까 도망가”라는 큰 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래? 어! 어린애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저걸 몰랐지?’하면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는다. 곧바로 필요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지만 돈 한 푼 없이 구술자가 갈 곳은 마땅치 않았다. 방황하다 찾아간 곳은 20대부터 S집결지에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는 고향친구 W였다. 구술자는 종종 남편과 S집결지를 방문하여 W와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곤 했었다. 그때마다 구술자는 “남의 남자하고 잔다고” 생각되는 여성들하고 밥 먹는 것도 꺼려할 만큼 “깔끔”했다고 한다. 그게 친한 친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랬기 때문에 S집결지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구술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당장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동안 구술자의 남편은 W를 찾아가 “OO이 엄마 좀 마음 달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술자와 절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Y로 인해 결국 결혼 8년 만에 이혼하게 된다. 구술자는 남편과의 이혼을 이야기할 때마다 Y가 이혼을 “시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이라는 생애사건이 구술자의 의도와 달리 Y로 인한 결과였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큰 애가 “엄마, 아빠 없을 때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걔 말만 들고... 도망갈 생각은 안했지.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어떻게든 내 자식이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그때는 이제 가난하니까는 방 하나에서 넷이 자잖아요~ 지금 사십년이 넘었으니까~ 사십년, 삼십년이 넘었다 인제. 우리 애기가 이제 사십... 자다가~ 폭력을 쓰면, 그렇다고 크게 폭력은 안 쓰고. 이제 자기...이... 저기에 못 이겨서 팔딱 일어나. 자다가 뭔 생각이 나면. 그래가지고 어...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하면은 애들은 괴롭지~ 또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하니까. 그니까 이제 그날이 학교를 안가는 날이었나 봐. 아빠가 나가고 없으니까 “엄마, 엄마, 아빠 저기할 때까지 없는 데로 가서 살아버려, 엄마 괴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 어! 어린애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저걸 몰랐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3차 구술면접 - 2012. 10. 12)

2) 이혼 후 경제적 독립 : “친구가 있기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Y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지만 정작 Y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구술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S집결지에서 지내야 할 형편이었지만 구술자는 S집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마침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동두천에 보증금 없이 싼 방을 얻고 장롱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갈 데, 올 데도 없는” 생활에서 자신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작은 돈이지만 수입이 생긴 것은 구술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Y와도 가깝게 오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계에 면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다섯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된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6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세심한 작업을 요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장롱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구술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하여 친구W가 있는 S집결지로 오게 된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옮겨온 데에는 Y와의 인연을 끊기 위한 구술자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술자의 가정을 깨뜨린 Y가 자신의 가정을 지켜가면서 구술자와의 사이를 오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나도 정~말 이 동네가 너무 여기서, 발 딛기 전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그 사이가 내가 한 번씩 놀러왔어요. 결혼 생활하

면서. 친구가 있으니까. 그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남자하고 잔다고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요, 저는 그 아이들하고 밥도 안 먹구요, 그 수저로 밥도 안 먹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깔끔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정말로 순간적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걔가 나를 쫌 이상하게 봤어요. 친구도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 친구도 이렇게 몸을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친구라고 정말로 친구도 싫고, 친구랑 밥도 먹기 싫었었어요. 그렇게 깔끔했던 나였는데... 생활이 그대를 속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그 남자 하나, 애기 아빠 말고. 애기 아빠하고만 살았어도 여기까지는 안 오죠. 근데 그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남자로 인해서, 유부남. 자기는 총각이라고 속였어. 물론 총각이라고 속였어도 내가 유부녀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안했으면 좋았는데, 외롭다 보니까.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구술자는 “처음에는 몸을 준 게 아니고” “사람을 모셔다가 아가씨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펨프로 ‘일’을 시작했다. 그때 구술자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구술자의 친구W는 “처녀 때 몸을 팔고” “결혼 후에는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술자는 W가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들을 모셔다 아가씨를 해주”면서 화대로 받은 돈의 3분의 1을 수입으로 가졌다. 구술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원해서” 이 동네에 오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괜찮다며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남자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그 사람은 가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는데 혼자서 일단은 이 동네서, 처음에는 몸을 준 게 아니고, 음... 그거... 사람을 모셔다가... 아가씨들한테 연결을 해줬어. 펨프라 그러대? 중간 거래잖아. 펨프라 그러대? 그래서, 펨프로 시작을 했지, 처음에는.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그렇게 펨프로 ‘일’하는 것은 “내 몸 안 섞고” “벌이도 괜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가씨가 부족해 손님을 데리고 와도 연결해 줄 수가 없게 되자 W와 구술자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둘러앉았다. 의논 끝에 자신이 직접 손님을 받기로 결심한다. 그동안 성매매라는 ‘일’을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 온 구술자에게 그 결정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방법을 궁리해 보

아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前)남편과 살고 있는 아이들의 학비라도 보태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항상 본 남편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본 남편한테는. 그리고... 음... 그랬는데, 그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고, 나만 이렇게 희생한 거잖아요. 그니까 가정파괴범이잖아, 그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하고는 정~말〈강조하며〉 상종도 안하려고 내가 떠나왔어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 옆에서 살림집을 얻어놓고 살았는데, 그 사람, 음... 이제... 보기 싫다고 서울로 나왔어요. 나와서, 몇 년을 혼자서 살다가, 그 이제...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3) 성매매/탈성매매의 경계 : "살 곳이 없으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구술자는 S집결지에서의 삶에 순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매매로 돈을 조금 모은 후에는 다른 지역에 조그만 불고기집을 운영하는 등 삶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동업하던 사람이 떠나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한 적도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시장에서 장을 봐와 장사준비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술 먹고 해롱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돈이 모이기는커녕 외상을 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지경이었다. 결국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접고 현금이 생기는 S집결지로 돌아와 '독장사'의 형태로 '성'을 팔기로 한다. 구술자는 "갈 데가 없으면 여기(S집결지)"로 오곤 했는데 성매매 '일'은 현금장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었던 것이다.

> 그... 그러다가, 또 내가 여기가 너무 싫어~ 나는 또 돈이 생기면 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한거야, 마음속으로. 이 동네가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불고기집을 한다고 불고기집을 냈지? 실패. 불고기집을 내가지고 불고기집 실패했지. 또 왔어. 갈 데가 없으면 여기를 오게 돼. 여기 오면은 현찰이 생겨버리잖아. 손님 하나 모셔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와리 떼주니까. 삼분의 일 떼주니까. 그러면 이제 모아서, 또 돈 생기면은 또 뭐 한다고 나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좋아서 사는 게 지금까지도 아니고. 또 돈 좀 모아지면 저기 마장동에 아는 사람 있다고 거기 가서 포장마차를 해보라고 해서 마장동 도살장에 들어가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다가 또 거기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또 여기에 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현찰이 생기니까. (중략) 그니까 여 동네사람들도 그럴꺼야.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 물론 여기가 친구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안 왔지~ 그런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와 가지고. 살 곳이 없으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 딛어 놓은 지는 거의 이십년 됐다고 봐야죠.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구술자는 S집결지로 오게 된 것을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구한테 뭐, 인신매매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저기 팔려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가 이곳에 없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후회를 해봤자 자신의 탓으로 모든 결론이 돌아올 뿐이었다. 구술자는 친구에게 “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또 돈도 벌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당시를 되돌아보았을 때 이 공간과 ‘일’이 아니었다면 “더 방황할 수도 있고” “더 힘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S집결지가 가장 가까운 생계수단이었던 것이다.

4. 중년기(1990~현재)

1) 재혼 : “그런 오기를 부리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됐는데”

S집결지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 구술자는 Y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Y의 “각시”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소식을 들은 구술자는 Y를 설득하여 함께 살 것을 권유한다.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추억에 대한 미련, 그리고 Y로 인해 가정을 잃었다는 “오기”가 복잡하게 얽혀 구성된 행동이었다. “왜 나 혼자만 살고 고생을 해야 되나”라는 구술자의 생각에는 갑작스런 이혼으로 겪게 된 경제적 빈곤과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구술자와 Y는 가정을 꾸려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자는 서로에 대한 다짐으로 입양기관을 통해 18개월 된 남자 아이를 입양한다. 그러나 아빠의 재혼과 입양을 반대하는 Y의 자녀들 때문에 구술자는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S집결지로 올 수 밖에 없었다. 손님이 있으면 동료여성들에게 잠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손님이 없을 때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식으로 생활했다. 그러다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는 집에 아이를 맡

기게 된다. 구술자는 Y와의 재혼을 회상하면서 “오기를 부리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다.

>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남자가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잖아요. ‘니 여자 없으니까 한 번 살아보자’ 그런 오기가 생겨, 〈말을 잠시 중단했다가〉 그니까 그런 오기를 부리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됐는데... 그 일이 십오 년 전으로 올라가면 될꺼예요, 아마. 십오 년 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만나면서 그때 당시 한 돌 지나고 육개월, 그니까 십팔개월 된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었어요. [그 남자랑 살면서?] 네, 그 남자랑 살면서. 그니까 나도 오기가 생기고 ‘니 여자 없으니까 나도 한 번 살아보자. 왜 나 혼자만 살고 고생을 해야되냐’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은 임대해서 딸 주고 살았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집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너랑 한 번 살아보자. 내 신세 망쳐놨으니까 한 번 살아보자’ 그래서 끈이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십팔개월 된 애기를 입양 해가지고 살림을 시작하고 혼인 신고를 구십구 년도에 했어요. 구십구 년도, 지금이 이천십이년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우리 십팔개월 된 아이를, 정~말 그 아이를 또 이 동네에서 키웠어요, 내가. 다리 밑에서 키웠어요, 걔를. 그 이제, 정말, 손님이 있으면 친구가 봐주고. 여 다리 밑에, 큰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서. 친구가 봐주고 가서 연애하고. 또 안 그러면 거기 밑에서 같이 놓고. 또 손님 있으면 가서 연애하고 나오고. 그러다가 애기한테 못 할일을 시킬 것 같아서, 친구의 시누가 있어. 그 시누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한 이년인가... 그 친구 시누가 봐줘서 이년 후에 걔를 집에다 데려다가 길렀죠.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아이를 입양한지 2년이 지나서야 Y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구술자는 Y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정~말 나는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한다. 당시에도 구술자는 S집결지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 남편은 구술자가 펨프로 ‘일’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을 파는 것은 알지 못했다. 남편은 구술자에게 ‘일’을 그만 둘 것을 요구했지만 경제력이 없는 Y와 살면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려면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계속 남편을 설득해 가면서 ‘일’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의처증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직업이 없었던 남편은 우울증까지 생겨 구술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일삼게 된다. 구술자는 남편한테 속인 것은 “죄악”이지만 “아들 잘 길러보겠다고” “몸 만” 준 것이지 “정주고” 한 것은 아니라며 ‘일’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었다.

> (생략) 정말, 결혼생활... 자기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근데 그 남자는 몸을 판 줄은 모르고 펨프한다는거, 자기도 여기 와봤으니까. 와서 친구 신랑하고 술도 먹고 가기도 하고. 지네 딸 서른 한 살짜리 여기 데리고 와서 있다가도 가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때는 영업은 안코 펨프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돈은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이 동네만 떠나오라 그거예요. "그럼, 너는 돈은 안 벌어다 주고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청소부를 다니래요. "나는 청소부는 못한다. 그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물론 남편한테 속인 것은 내가 죄악이죠. 내가 남의 남자를, 정~말〈강조〉 돈을 보고 몸을 섞은 거지, 정주고 했다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고. 그래도 입양했죠. 그 아들 잘 길러보겠다고... 정~말, 아니면은 걔도 . 그때 당시 그 남자. 돈벌이를 하죠. 안줘. 어디 쪼끔 나가서 돈을 벌어도 그걸 나를 안줘. 그럼 나는 어떻게 생활해. 나는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했더니 그 사람한테, 남자는 직업이 없으면요, 의처증하고... 의처증하고... 그게 뭐죠? 어... 그보다 우울증? 우울증이 생기더군요. 우울증하고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날더러 서방 있다고, 긁는거라. 아주 정말 자다가도 화딱 인나가지고 폭력을 쓸라 그러고, 신랑 있다고. 정말 이 동네서도 알다시피, 정~말 몸은 주지만, 누구 어떤 사람들은 기둥도 냅두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은 정~말 가정하고 여기하고 교회 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거든. 교회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집. 그거 밖에 몰라. 세 바퀴 밖에 몰라.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30여년을 S집결지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생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구술자는 "하나님은 남의 남자하고 관계하는 거 안좋아"하신다며 도덕적·윤리적으로 성매매를 해석하면서 갈등하던 시간을 지나 "그쪽(유리방) 문을 닫으니까 여기 가만히 살금살금들 와서" 성매매를 한다, 성매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남자들의 "스트레스 풀어주"어 "성범죄, 강간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2009년부터 구술자가 '일'하고 있는 쪽방촌을 매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는 구술면접 때까지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조용하니 있는 듯 없는 듯 사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현했고 손님들을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로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2) 남편의 폭력 : “악마하고 산 세월”

남편의 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구술자를 찾아와 강제로 섹스를 했다. 구술자는 남편을 “악마”, “사자”, “정신병자”로 표현하고 있다. 의심에, 폭력에, 강제로 섹스를 하는 남편의 행동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구술자는 이혼을 생각할 수 없었다.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남자하고는 끝까지 살려고” 마음먹었고 입양해 온 아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1일 부부의 날,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 남편의 폭력으로 구술자의 다리가 부러졌고 주말 밤이라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구술자에게 남편은 또다시 강압적으로 섹스를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술자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의 병(의처증)을 고쳐주지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도 않았다. 이때 구술자가 생각한 이혼은 함께 살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합의 없이 섹스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구술자가 지난 13년 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등 남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강압적 섹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술자는 “내가 이 동네서 살아서 의처증이 왔는지~ 여기는 남자 소굴이잖아, 일단은”이라며 남편의 의처증에는 “물론 내 잘못도 있지, 솔직한 얘기로”라고 이야기한다. 구술자가 13년간 남편의 폭력을 참고 견딘 데에는 남편의 의처증이 구술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나 이 사람, 우리 광수(가명)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어디까지라도 가서 살겠지만, 이 남자는 정~말 너무 싫으니까 이 남자랑 이혼만 하게, 이혼하고 그냥 같이 한 집에서 살겠고롬. 이혼만 하더라도 쪼끔 덜할꺼 아녜요. 폭력은 안하고. 이혼만 할 수 있게 해다오. 그리고 폭력을 써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했었어요. [실제로 때려요?] 예〈강조〉, 예. 정말 이가 부러져가지고, 폭력을 해서, 이가 부러져가지고 정말 이 해 넣는데 백 얼마를 손해를 보고, 그런 남자하고 십삼 년을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아침저녁으로 섹스를 달라 그래. 그 남자가. 그니까 환자잖아요. 어~디

> 가정 남자가 아침저녁으로. 그리고 그 잠자는 것도 한 방에서 자면서 정말 "여보" 이렇게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섹스를 달라고 하면 정말 흥분이라도 돼서 주지만, 〈목소리 낮추며〉이 동네에서 사는데, 남자라면 지겨운데 느닷없이 딴 방에서 자다가 그것만 달라고 하면은, 정~말 사자보다 더 무서워. 정~말 그거 한 번 그냥 줘버리면 될 텐데,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응? 〈다시 목소리 낮추어 소곤대듯이〉여기는, 응? 그래도 돈이라도 벌죠. 미워도, 이뻐도 정~말 부부생활을 그 사람이랑 했어도요, 그건 부부가 아니고 악마하고 산 세월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정말 희생을 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 남자 얘기만 하면 머리끝이 슨다 그러죠. 지금 머리끝이 슬라 그러네.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던 2011년 11월 어느 날, 남편은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라며 구술자에게 이혼을 제안한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구술자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동안 스스로 일궈온 모든 살림까지 포기한 채 맨 몸으로 나와야 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양해 온 아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긴 과정 동안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할 일들이 겁나서 위자료를 포기한다. 그리고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는 화장품, 옷가지 등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집을 나온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구술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에게 남긴 상처, 아들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합쳐진 것이다. 이혼 당시 구술자는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 쪽방촌에서 생활하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엄마와 아빠를 이해하게 될 때쯤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아들을 입양했으며 아들을 통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줄 생각이다. 지금은 엄마와 아빠를 원망하겠지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면 이해해 줄 것이란 믿음이 구술자에게는 확고하다. 구술자는 다시 아들의 안부를 편하게 묻고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남은 숙제라고 했다.

> 그래서... 음...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는가... 〈생각하다가〉 우리, 우리 애기, 우리 광수(가명)가 정말, 걔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숙이

(가명)한테, 또 말을 잘하니까, 전화, 문자를 하던가. “엄마가 너무 광수가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쫌 통화 좀 해볼 수 없을까나” 하고 한 번 해보라고 할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걔는 지네 아버지 말이... 뭐라 그럴까? 법이지. 지금 중삼인데, 발랑까지질 못했으니까~ “엄마 만나지 마라. 엄마 나쁜 사람이다” 하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더러 그랬거든요. “아들, 정말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헤어진 거, 너도 지겹지?” 그러니까 그렇대. 엄마하고 싸우고 그런 거를 봤기 땜에, 지겹지. 근데 마음은 편할꺼야. 엄마도 마음은 편해. 물론, 아버지도 편하겠지. 허나, 지금에 와서 엄마가 잘했다, 아버지가 잘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한테 얘기해주면 니가 이해를 못해, 아직. 니가 성숙했을 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삼 때쯤 됐을 때는 내가 하나부터 엄마의 생활을, 진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하는 식으로~ 딴거는 안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저(나)하고 어떻게 해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숙제가 풀릴 꺼 아녜요. 보니까 어느 연속극에서 아들이 엄마를 되게 미워했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떠니 자기 아버지가 너~무 저거해서 자기를 놔두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고 나중에 엄마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연속극을 봤어요. 그런데 지네 아버지가 뭐라고 쇠뇌 교육을 가르치겠어. “니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여자 나뻐” 그렇게 얘기할 꺼 아녜요. 그죠?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3) 이혼 후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나쁜 거는 안 볼수록 좋잖아요”

구술자는 이혼 후 낮에는 쪽방촌에서 ‘성’을 팔고 저녁에는 손자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남자와의 재혼은 처음부터 딸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의 삶이니까” 딸들은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구술자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걸 지켜보는 딸들의 마음도 아팠다. 엄마가 그 남자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딸들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때마침 새롭게 사업을 열면서 S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둘째 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여성들처럼 쪽방촌에서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구술자는 한 곳에서의 답답한 생활을 피해 출퇴근의 형식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손자를 돌봐주기로 한다. 구술자는 마지막 구술면접에서 어렵게 둘째 딸의 이야기를 꺼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두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둘째 딸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 하

지만 구술자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딸도 인내하거나 희생하며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구술자는 결혼생활을 실타래에 비유하면서 꼬였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술자는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13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딸만큼은 가위로 툭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응원하고 있다. 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구술자가 가졌던 결혼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술자에게 이혼은 그 동안 인내하며 견뎌온 시간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허탈감을 낳았다. 현재 구술자는 20대 중반 때 만난 남자와의 인연, 그리고 그로 인해 흘려보낸 세월을 돌아보며 지난 60년의 생애를 새롭게 성찰하고 있는 중이다.

>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런건 없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또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많잖아요. 싸움질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 뭐야, 그런 거 저녁에 안보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나쁜 거 안 볼수록 좋잖아요. 좋은 거만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참 좋아요. 여기서 내가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 때로는.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구술자는 가장 가까운 딸들에게 조차 자신의 성매매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큰 딸은 “너~무 순하게 커서” 구술자가 “이렇게 남한테 몸을 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살 소동”이 일어날 만큼 완고하고 둘째딸은 함께 살면서 엄마가 S동에서 펨프로 ‘일’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작은딸에게는 어디로 출근하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공유할 수 있어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구술자와 나는 2009년부터 상담원과 내담자(client)의 사이로 알고 지내다 내가 2010년 상담소를 그만두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구술자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구술자가 쪽방촌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현재 근황은 어떠한지 정도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구술자는 구술면접에서 “숨길 게 뭐가 있어” “다 아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내가 구술자의 성매매 경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숨길게” 없는 이유인 것이다.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 경험은 구술자를 성매매로 이끌었고 생매매 ‘일’

덕분에 구술자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구술자의 노동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분위기이다.

> [이모 그러면 이모한테 어려운 일 생기거나 마음속으로 제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 사람은? 아니,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뭔 일 있으면, "딸아~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런 거는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금방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나 이만 저만하는데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있어요. 제가 잘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지만, 이번에도 딸한테는 하나도 얘기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선생님한테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인제... 에...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면 우리 두 딸하고 그렇지... [여기 안에서는 재희(가명)이모고?] 재희 이모고, 준기(가명)이 이모고... 안에서는 나 혼자 일대일은 하나님이고 우리 집에서는 또 어려운 일, 여기서 있었던 쬐끔 그런 일은 우리 작은 애 한테 저거를 하고~ "엄마 요새 무슨 일 있어?" 집에 있을 때는 전화가 잘 안와. 여기 준기(가명)이모한테도 집에 있을 때는 잘 안와. 재희(가명)이모한테도 전화를 잘 안하고. 문자로 보내고 그러지. 근데 이번에 이런 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고하니까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느 남자하고 술 한잔 잘못 먹어가꼬 무슨 일 있나보다" 이제 경찰서 가고 뭐 조서꾸몄다는 소리는 않고, 딸한테는 그냥 넘어가야죠. 또 이런 얘기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일 있으면 여기 단체에서 연락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또 뒤늦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무슨 일 있으면 빨리 경찰한테 신고하고 여기다(여성단체)가 연락하고.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4) 일터로서의 쪽방촌 : "재밌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쪽방촌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고가도로 아래의 작은 구역을 가리켜 거주자들이 부르는 별칭이다. 한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작은 크기로 방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집의 크기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골목에 들어서면 OO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식사를 기다리는 노숙자들로 북적거리고 노랫소리, 수다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를 지나 조금 고유한 지점에 도착하면 구술자가 '일'하는 집이 보인다. 좁은 골목 안에 두 세 개의 건물이 있고 바로 그곳에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모여 산다. 열시쯤이 되면 성매매여성들의 방문이 열린다. 구멍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모

습, 가게 앞에 묶어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언뜻 시골의 작은 마을을 연상케 한다. 구술자는 이곳에 열시쯤 출근한다. 늦잠을 자거나 집안일이 쌓였을 때는 더 늦게 출근하기도 한다. 일과 준비를 마친 여성들은 방문을 끈으로 묶어 열어두고 작은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 모습은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담배를 피거나 큐브게임을 하는 등 각기 다르다.

전통형 집결지, 일명 '유리방'이라 불리는 업소에서는 여성들의 업소간 이동이 잦은 편이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한편,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만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쪽방촌의 경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많게는 30년 이상을 이곳에서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쪽방촌에서 지내는 삶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없는 형편의 여성들에게는 서로가 친구이자 가족이다. 얼마 전 윗집에 사는 남자의 폭력으로 경찰이 오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관련된 몇몇 여성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동안 불안하게 생활해야 했다. 평소에는 함께 모여 술도 마시고 수다도 떨던 주위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여섯 명의 여성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가해자에게 함께 욕을 퍼부어 주거나 경찰조사 때 서로의 증인이 되어 준 것이다.

> [그러면 여기가 쫌 위험하잖아요. 노숙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은 데니까. 그럼 잦진 않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모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슈퍼?] 없어. 그냥 이모들끼리... 이모들끼리 해결하고. 슈퍼도 뭐, 말로만 저렇게 하지, 힘도 없고〈강조〉. [거기 아저씨도 있잖아?] 아저씨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누가 정말 죽인다하고 저기하면 자기 몸을 바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 없어요. 그니까 자기들이(각자가) 희생을 당해야 돼.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그렇지만 항상 오순도순 지내는 것만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서운해 토라지기도 하고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구술자는 "재밌어 보이는데 때로는 손님들 가지고 서운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손님은 "내 남편도 아니고 니 남편도 아니고" 그

냥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서운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로 풀기 위해 노력한다. “골이 깊어지면” 이곳에서의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뿐 아니라 “손님 쫓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중심에 구술자가 있다. 구술자는 여섯 명의 여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맏언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작은 일로 서로에게 오해가 쌓였을 때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려는 구술자의 성격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 [제가 오면 옹기종기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골마을처럼 참 재미있어 보여요] 응, 그럼으로써, 재밌어 보이는데 때로는 손님들 가지고 서운할 때가 있어. [이모들끼리?] 이모들끼리. 그렇지만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말자. 그것이 오래가면은 골이 깊어져 버리잖아요. 그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메꾸기가 힘들잖아. 때로는 모르고도, 모르고도 하는 것도 서로 오해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 셋은 그러지, 항상. (중략)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욕하잖아요. 친할 땐 친하고 엎어져서 싸우고 그러면 되게 웃끼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서운한 게 있으면은 남한테 새(어)나가지도 않게 의논적으로 해결하고 그러지, 그걸로 싸우면 ‘아이구 저것들 술 먹을 때는 좋다고 그러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운다’ 그럴꺼 아니예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단골이. 단골이, 만약에... 왔어. 모르고. 내가 모셨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모셨어.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런가봐.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를 쫌 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한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밖에 앉아 있을 때 “내 남편도 아니고 니 남편도 아니니까 그냥 왔다가 싫으면은 다음에는 이리갔다가 저리로 갈꺼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다투면 손님 쫓는 것 밖에 안 돼. 손님이 여기 안 와버리잖아, 챙피하니까. 그니까 셋(구술자, 재희, 준기)이서 잘 의논을 하죠.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구술자에게 쪽방촌을 찾는 손님들은 상대적으로 “신사 같은 분”들이다. 이곳의 성매매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단골손님들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길게는 십년가까이 단골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매매여성들은 본명을 쓰는 대신 가명을 씀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보호한다. 성구매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

해 노출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쪽방촌의 여성들은 단골손님의 이름, 하는 일, 가족관계까지 모두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성매매여성들과 달리 가명도 사용하지 않는다. 구술자는 나를 가리켜 "선생님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성매매여성들뿐 아니라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취약한 환경에서 노숙자, 노인, 술 취한 사람 등을 상대할 것이라는 시선을 뒤집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구술자는 "손님을 가려가면서" "진상도 안 받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한다. 이것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에 나타난 분명한 변화이다. 일부 연구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성구매자들 또한 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손님을 가려 받거나 손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성매매가 과거보다 더 평등해졌다고 재정의할 정도는 아닌데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젠더불평등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5) 성매매 : "배운 도둑질 남 못준다고... 남한테 가서 구걸하느니"

구술자는 현재 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 '일'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력 있는 딸들이 있기 때문에 왜 아직도 성매매를 지속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구술자는 "아들을 가르쳐야 되고" "노후대책"도 세워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손 딱 놓고 놀 수는" 없다. "성격상도 그렇고 힘도 아직은" 식당일도 거뜬히 할 수 있지만 육십이 가까워 일하던 사람들도 고돼서 그만 두는 판국에 생전 해보지도 않은 일을 시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현재 손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일'이 가진 시간의 유용성은 구술자가 성매매를 적당한 '일'로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아플 때 쉴 수 있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남는 시간에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수입도 줄어든다. 그렇지만 "큰 돈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이 들고 하니까 그냥 남한테 가서 구걸하느니" 성매매로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현재 아들 앞으로 서너 개의 보험과 주택부금, 노인연금을 넣고 있다. 얼마 뒤 만기가 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다른 삶을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구술자는 쪽방촌에서 "가게집이랑 웃고" "하루 가는 거" "재밌고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지역보다 복지도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일'은 안하더라도 이곳에 남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쪽방을 여러 개 임대해 다른 사람들한테 월세를 주고 살아보려 한다. 여기서 월세를 준다는 것은 아가씨들에게 방을 내어준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직접 몸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술자는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이든 여성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어차피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굳이 직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듯했다.

> 큰 복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고 작은 복은 자기 능력에 딸려 있다고 그래요, 잉? 부지런하고 그러면 더 잘살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은 딱 보면은 정해져 있더라고. 뭐 큰 복권은 하늘에서 맞혀주면은 맞고. 여기 손님도 꾸~준히 적다보면은 그 달이 그달이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난달에 이백 벌었어.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만원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삼백 벌고 사백 벌고 오백 벌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여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나이 들고 하니까 그냥 남한테 가서 구걸하느니 편안하게 쫌 살다가... 휴...〈한숨〉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아직도 여전하다. '생계형 성매매'로 불쌍하게 여기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든 여성들이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하냐는 듯 비난도 많다. 구술자는 "몸하고 웃음하고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제~일 밑바닥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꿈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자녀들의 존재는 구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어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구술자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꿈이었다. "바람이 났으니까" 여자로서의 삶은 성공했다 말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구술자의 지난 30년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수많은 비난 속에

서도 “누나가 여기 있어줘서 참 고맙다”, “느그들은 천국가야 된다”는 손님들의 말은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힘이 된다고 한다. 구술자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배운 도둑질 남 못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한데서 온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꼭 성매매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변의 시선이 구술자의 해석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그니까 그렇게 큰 벌이는 안 되지만, 식당가서 일하면 모르겠어요, 요새는 한 백 오십만 원 받을랑가? 더 줄까? [그것도 안 주겠죠.] 그것도 안 주겠죠? 또, 이렇게 시간도 있고 음... 내가 볼일 보고 메어있지 않고. 그래서 정~말 악척(악착) 떨면서 안하잖아. 저녁 때, 어, 갈 데 가버리고 아침에 늦게 나와 버리고, 볼 일 다 보고 나와 버리고. 그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 방, 다섯 칸 정도만? 내가 얻어. 얻어가지고 그 독방 관리하면서, 쪽방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돈을 전혀 안 벌어 버리면 사람이 쫌 그렇고, 이 동네서도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할머니들도 그렇게 방 얻어가지고 쪽방 놓고 용돈 쓰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나이가 먹어지면 더 식당일은 더 못하고 그렇다고 식당 시작할 수도 없고. 이제 지금 하다가도 식당도 퇴직해야 할 나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근데 식당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안 될 문제고. 그래서 나의 그거(희망)는 그래요, 또 손 놔버리고 활동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다면 그냥 어디 여기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다면은 그렇게 쪽방 얻어가지고 생활이라도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생활하고 싶어요.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6) 삶에 대한 성찰 : “지금 이렇게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구술자는 “무슨 설움, 무슨 설움 그래도 배고픈 설움이 크다고” 지금 서울에 와서 이렇게 배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중록을 써볼까” 싶을 만큼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지난 60년의 인생은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구술자에게 사랑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누구를 탓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첫 번째 구술면접에서 구술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만큼 대담했다고 자신을 설명했다.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성격은 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구술자가 좌절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로 아들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구술자가 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준다. 구술자와 비슷한 또래인 보조사례 연구참여자 김수연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인 목표의 유무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는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해 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 지금 이렇게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런 시골에서, 정말, 어... 이렇게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본 아빠하고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어... 잘 키워서 우리 애들 성공했다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 너무 그렇게 없이 살았어도,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쫌 일찍 들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고 그~렇게〈강조〉 힘들게 살았는데도, 부모의 원망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참 고맙다.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구술자는 구술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웠다. 다른 여성들에 비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겨 활용하고 있는 구술자는 나로부터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30대 때 배우려다 포기한 미용을 다시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특별히 직업을 전환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또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 상담원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메이크업 그것도 괜찮고... 또 미용 같은 것도 나는 진짜 나이가 사십대만 되도 미용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냥~ 어디 봉사하러 다니고 싶고 그런다~ 〈잠시 쉬었다〉나 이럴래, 그럼. 나 여기서 쫌 이따 일 안하게 되면 미용 배워다 봉사 좀 하러 다니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용도...] 이렇게 짤라서 말아서 파마만 해주면 되잖아~ 노인네들. (중략) 막 집 고쳐주고... 그럴 때 보면 가서 막 미용 같은 거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저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여기서 일 하면서도 공짜로 가르쳐 준다면 나 진짜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 해볼까? (2차 구술면접 - 2012. 9. 19)

제2절 김수미 : 성매매/탈성매매의 경계

김수미의 생애 이야기는 출신가족에서의 경험으로 시작되어 최근 겪은 어머니의 죽음과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끝난다. 가족 내에서도, 집결지 공동체 내에서도 유대 관계를 잘 발달시키지 못한 김수미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약간의 과장을 덧붙인다. 김수미의 서사에서는 유독 본인을 주어로 삼는 부분이 눈에 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다른 인물들(주로 가족)의 이야기와 혼합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진학, 결혼 등 중요한 생애경험을 자기 의도 및 전망과는 무관하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사가 수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물론,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희생적인 여자'로 그려진다. 하지만 젊은 시절 성매매 공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 할 때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도 눈에 띈다. "지겨워, 지겨워", "진짜 힘들게 살았어" 등 신세타령의 서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사를 연결하는 중심 이미지도 '억압과 희생'의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1. 아동기(1960~1975년) : "이쁘게 했어, 우리 아버지가"

구술자 김수미는 1960년 서울에서 5남 3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콩나물도 팔고 뭐시고 팔고"하는 "슈퍼집"을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양장점에서 일하셨다. 구술자는 어린 시절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크~게 집짓고" "부자"로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평안북도 사람으로 "일본말도 잘하고" 외모도 "예쁜" 사람이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구술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하나 없는데 똑같"은 성격을 가져, 싸움 한번 보지 못했을 정도로 평온한 가정이었다고 회상한다. 구술자는 어머니가 마흔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였고 큰 언니와 스무 살 차이가 난다. 두 살 터울의 막내 동생은 "똥그란" 모자를 쓰고 오빠들에게 안겨 "뽀뽀 받고"

놀러 다니던데 비해, 구술자는 “만날 언니가 입던거”만 물려받으며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첫 번째 구술면접은 구술자가 오랜만에 집에 다녀온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일까? 유독 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내가 아홉 살에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네 살, 나 아홉 살... 옛날에... 가게 했어요. 슈퍼 했죠. 콩나물도 팔고 뭐시도 팔고... [어렸을 때 가정환경은 어땠어요?] 부자로 살았죠. 건너가면 딱 떡볶이 팔어... 떡볶이... 벌어서 집지었잖아요. 크~게 집지었어요. 돈이 다 있어지요. 돈이 많이 있었지...(생략)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2. 청소년기(1976~1980년) : “징그럽게 일을 많이 했어”

구술자는 신림동에 있는 K중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다. 당시에 언니, 오빠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막내 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식사와 집안청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짬밥” 준비까지 모두 구술자의 차지였다. 구술자는 “서른 밥”을 지었다가 어머니로부터 핀잔을 받고 “쪼그만 방”에 들어가 “서럽게” 울었던 경험, “일만 많이 하고” “놀러도” 못 다니면서 오빠들 품에 안겨 놀러 다니는 동생을 부러워했던 경험으로 어린 시절을 묘사한다. 구술자는 열아홉 살이 되면서 전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평생 서울에 살면서도 “남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일만 하며” 살아온 구술자는 월급을 타는 날이면 “딱 가방 매고” “양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동생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 지겨워, 지겨워. 말도 못해, 나는. 보면은 아가씨들은 엄마한테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참 말도 못해, 나도... 그냥... 열아홉 살에 일하고 공장에서 밥 해주고. 밥하고 말도 못해, 나는 말도 못해. 방 두갠데 오빠들은 여기 쭉 자. 그리고 여기 아빠, 엄마, 동생 자는 거야. 오빠들 다 자니까 아휴... 내가 뭐 알았나? 열아홉 살 그니까 그냥 잤지! 밥도 어떻게 못하잖아. 알아? 모르지? 엄마가 나와서 쫌 해주면 좋지. 부엌에서 하라고. 밥도 서른 거. 밥도 맛이 있어? 맛이 없지. 혼났지. 매일 혼나. “쌍년아 밥도 못해! 야, 너 어떻게 시집은 갈래? 배우고 가, 쌍년아!” 이러는 거야. 아이구, 나 쪼끄만 마루 하나 있어. 밥 다 주고... 다 주고 쪼

꼬만 방 하나 있어. 거기 가서 막 울었네. 서럽잖아~ 꼬마가 뭐 알아? 모르지? 근데 시키는 거야. 동생이랑은 안하고... 나만 시켜. 아휴 징그럽게 일을 많이 했어. 개도 있지, 뭐 있지. 시장에서 짬밥 가져다가 줘야지, 뭐하지, 나는 일 많이 했어, 나는... 놀러도 못 갔어, 나도. 막내가 놀러 많이 갔지. 오빠가 안고. 모자 탁 쓰고 가는 거야. 나는 집에 있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놀러 안 가봤어. 남산도 몰라. 어딨는지 몰라. 안 가봤어. (2차 구술면접 - 2012. 6. 29)

3. 성년기(1981~2000년)

1) 목포로 인신매매 됨 : "내가 몸 팔았어. 처음에는 술 팔고..."

내 몸... 까만차 건달이 많잖아요? 건달. 근데 큰 지갑 들고서 모르고 잡아넣는 거야. 넣는 거야 막. 목포로 막 가는 거예요. 밤에~ 불을 끄고 목포로... 몰라, 건달이야. 아가씨들 막 팔고. 길에서 그냥... (중략) 월급 삼십만 원 받아 보나스 이십만원 받고. 뭐 놀러갈려고 영등포에 왔어, 춤 출려고. 영등포에. 잡았어. 잡아갔어. 딱 미는 거야. 그 보니까 목포야... 밑에는 술집팔고 위에는 사마또 몸 파는 거야. 밑에는 술집이야. 배 오면은 술 팔아요. 그 위에는 몸 파는 거고. 내가 몸 팔았어. 처음에는 술 팔고... 여기 목포는 소주 콜라타고 콜라를 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돼! 안주를 막 먹어야 되잖아. (그래야)안주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삼백만원 나와 술값이. 이거는 팀도 안줘. 다 합해서 준단 말이야, 백만원. 또 하기 싫어 다섯 시에 일어났어. 큰 통에, 물통이 있어요. 그거 다 받아야 하잖아. 물 받게... 그래서 목포는 4시 5시에 일어나요. 물 받고 빨래 다 하고 다시 자는 거야. 안 그러면 맞아죽어. 그 했어. 다섯 달... 여섯 달은 내가 일했어요. 그니까 내가 섬에 올라갔어. 내가 두 달 일했어. 술 먹으면 안 좋잖아. "몸 팔래요. 나 갈래요"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1980~1981년으로 추정되는 어느 날, "월급 삼십만 원을 타고 춤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지갑을" 든 남자 4명이 구술자를 "까만차"에 "잡아넣"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동생은 집에 있었고 그날은 구술자 혼자 나이트클럽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차가 끊"긴 늦은 시간이었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차 안은 깜깜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목포였다. 남자들은 구술자를 "밑에는 술집"이고 "위에는 몸 파는" 업소에 70만원[37]을 받고 "팔아먹"는다. "집

에 가야"된다고 발버둥치는 구술자를 건달들이 "옷 다 벗기고" 방에 가둔 채 "막 때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5~6개월을 '일'한다. 처음에 구술자는 술만 파는 아래층에서 손님 접대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배가 들어올 때만 겨우 손님이 있었고 매상을 올리기 위해 안주와 "콜라 탄" 술을 죽어라 마셔도 모든 술값이 업주에게 직접 지불되어 구술자에게 떨어지는 수입은 한 푼도 없었다. 빚을 갚고 나가기가 막막해진 구술자는 "몸 팔래요"하면서 2층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시작한다. 목포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구술자 인생의 첫 번째 성관계(sex)였다. "연애[38]"가 "처음"인 구술자는 "애기니까" 모르고 시작했지만 "피나오"고 "찢어져" "한 달은 약 먹고" 고생했다고 한다. 그 기간은 구술자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고 헐어진 시간이었다. 게다가 "연애"가 "처음"인 구술자는 "연애만 해주면 끝"인줄 알았다가 "서비스"가 없다고 불평하며 직접 "(비디오)테이프"를 틀어주는 손님으로부터 "핥고 뭐하고" 하는 것을 배우길 강요받는다. 구술자는 "딱 잡으면 노~래"있는 남자의 성기로부터 "벌레"와 "에이즈"가 옮는다는 것을 "테레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매일 고무(콘돔)를 끼고" 하거나 병든 성기를 확인하기 위해 "아예 불을 끄"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전략을 개발시킨다. 구술자는 폭력과 피해 속에서 살아갈 전략을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

> [목포에서 처음 손님 받았을 때 이모 감정이 어땠어요?]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이모가 원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을게요] 〈망설이다가〉 애기 때는 아프죠. 애기니까. 그걸 알았나? 연애처음 하니까 피나오잖아. 찢어지잖아. 한 달은 살았어요. 약 먹고... 혼났어! 옛날에는 텔레비전... 비디오 나와. 테이프 있죠? 그거 틀어줘, 손님이. 그거 보고했어. 몰랐어, 나는. 연애만 해주면 끝이야. '아! 근데 서비스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하는 거야. 야~ 나는 그거 몰랐어. 배웠어, 테레비에서 배웠어. 보고 그냥. 알아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구나. 다 핥으고 뭐하고 하는구나.' 나는 연애만 하는 거지, 나는 몰랐어. 다 해주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 아가씨들은 폐가 안 좋아. 다 남자들 꺼 빠르니까... 그거 물 먹으면 안 돼! 물... 병이 많아... 그거 보면은 잠지가 병

37) 1981년 기준 70만원은 2012년 현재 가치로 약 650~700만원에 해당된다.

38) 성매매여성들은 업주에게 아빠, 엄마, 삼촌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구매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연애'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업주, 성구매자, 성매매여성들 사이의 권력 및 위계관계를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정한 계약 및 거래로 둔갑시킨다.

이... 밤에 불 끄면은 안 돼. 아~예〈강조〉 안 돼! 지금은 남자들이 불 끄고 하지? 안 돼! 딱 잡으면은 물이 노~래 있어. 그거 병이야. 그럼 안하면 돼. 그거 뭐야. 폐, 암 뭐야? 병이 많잖아요? 그거 안하면 돼요. 그거 보면은 내가 다 봐. 그거 보면은 안하면 돼. 그래서 내가 병이 없잖아요. (중략)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많았어. 그니까 고무 쓰는 거야. 조심 할라고 아가씨들은. (생략) (2차 구술면접 - 2012. 6. 29)

구술자는 "자꾸자꾸 하니까" "배우게"되는 노하우로 병원 한 번 가지 않고도 성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도 "매일 꽁치고" "빚만 팍팍 올라가"기는 마찬가지였다. 함께 '일'하던 "아가씨들이 도망갔다 하면" "몸 다 벗고" 심하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십년을 살지, 삼십년을 살지" "여기서 죽어도 부모도 모르게" 죽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전통형 집결지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 이모', '주사 이모'로 불리는 사람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한다. 당시 목포 업소에도 '아모레 아저씨'로 불리는 화장품 판매업자가 들락거렸는데, 구술자는 용기를 내어 "서울에 뭐 없어요? 그러면 쫌 넣어주세요. 쫌 가게요... 집이 서울인데 가고 싶어요. 여기는요, 무서워요. 도망가면 맞아 죽어요"라며 서울에 있는 성매매 업소 알선을 부탁한다. 구술자는 아모레 아저씨의 도움으로 선불금 70만원을 받아 목포 업소에 빚을 갚고 S집결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

[목포 가기 전에 공장에서 일했어요?] 팔았어. 밑에 술집이고. 술 먹으니까 내가 올라가버렸어. 주인한테 쫌 올라가게 해주라고... 다섯 달인가 일했나봐 내가... 근데 아모레 아저씨가... 화장품 하나 살라고... "좋은 주인이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 아저씨가 그러면 "빚이 얼마냐?"그래 "서울에 뭐 없어요? 그러면 넣어주세요. 쫌 가게요... 집이 서울인데 가고 싶어요. 여기는요 무서워서요. 도망가면 못가요 맞아죽어요."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한번 왔어. 그런데 주인하고 목포 주인하고 아모레 아저씨하고 같이 얘기했어. 보내주라고. 빚이 얼마인가 따지고 나 칠십 남았다고 주고. 아모레 아저씨가 빚 받아서 줘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기(S집결지) 쫌 있었지. 많이 있었지... 아구 계속 있으면 병들어 죽을껀데, 목포? 집에 못가, 맞아 죽는 거야. 때리고 병나고 죽는 거야, 나는. (2차 구술면접 - 2012. 6. 29)

구술자와의 인터뷰는 특별한 질문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마지막

두 번의 인터뷰는 질문지에 따라 기존 구술내용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구술자는 인터뷰 때마다 인신매매되어 목포로 팔려간 이야기를 정확히 같은 표현을 사용해가며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인신매매된 당시의 정확한 나이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목포에서 '일'하던 당시 '연애'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빚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2층 업소로 올라간 이야기, '연애'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면서 아파했던 이야기, 손님들이 서비스를 요구하자 포르노 비디오를 보며 '연애'를 공부했던 이야기, 서울로 알선을 요구했던 이야기, 모두 내가 인신매매하면 떠오르는 것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곳에서 어떤 피해를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적응해 갔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술이었기 때문이다.

3) S집결지 정착 : "(손님)방이 열두 개 있더라"

S집결지에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 약 40여개가 모여 있다. 하지만 구술자가 '일'하게 된 업소는 큰 도로에 있는 상가, 또는 철강공장 2층으로, 속칭 '휘파리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구술자의 증언에 따르면, 2층에 올라가면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고 각 방마다 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곳은 유리방에서 '일'하는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다. 구술자가 처음 S집결지에 왔을 때 업소는 여러 개 있었지만 '일'하는 아가씨들은 거의 없었고 업소 주변도 "껌껌했"다고 한다. 구술자가 '일'하는 곳은 "방이 열두 개 있는" 업소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었지만 아가씨는 고작 세 명뿐이었다. 이는 "손님이 독방에 꽉" 찰 정도로 성매매가 성행했다는 사실과 세 명의 여성이 열 두 개의 방에 들어오는 수많은 손님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술내용이다.

> 내가 오십 둘이지만 뭐뭐 다해봤어요. 진짜 참 힘들게 살았어. 힘들고... 힘들게 살고 그냥 빚도 많고... 도둑이 많네. 도둑이 많어. 내가 보니까 아가씨가 없어, 옛날부터. 껌껌해. 불도 없어요. 불도 없고 껌껌해. 방이 열두 개 방이 있더라. 나 혼자고 껌껌해. 손님들 다 독방 넣는 거야. 이게 빚이 많아요. 도망갈라고... 아버

> 지가... 엄마가 남편이 있어. 한 번씩 도망갈라고 하면 때리는 거야. 때려버리는 거야. 옛날에 건달이 많았어. 아가씨 도망갈라 그러면 때려버려... 말도 못해... 막 약 먹고 그래. 심했어요. 얘네들, 뒤에는 마약을 맞아. 주사. 주사 맞으면 빠~갛게 있잖아요. 주사.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구술자가 '일'하는 업소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엄마[39]"는 주로 내부 운영을, "아빠[40]"는 아가씨 관리를 맡고 있었다. 구술자는 "아가씨가 도망갈라 그러면" 아빠와 건달들이 달려와 방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했다. 성매매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은 여성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은 여성들을 마약 또는 술에 기댄 삶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때로는 정해진 화대보다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 "오빠~ 맥주한잔 하자"고 꾀거나, 술 취한 손님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여성들이 손님을 설득하여 방으로 들어가면 건달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미리 돈을 받아가는 것이 성매매 업소의 관행이기 때문에 모든 화대는 업주에게 직접 전달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에게 화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술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거(화대) 먹으면 맞아죽기" 때문에 긴 밤을 끊고 밖으로 나가 "영화도 보고, 술 먹고 여관 가서 한 번 주고 오"는 것이 그나마 팁 정도는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기도 했다고 한다. 손님들에게 더 많은 화대를 요구하거나 돈을 빼내는 행위는 업주로부터의 갈취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취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구술자는 침대 밑에 몰래 "족보(장부)"를 숨겨두고 하루의 수입을 꼬박꼬박 기록했다고 한다. 업주들이 셈이 약한 여성들을 속여 빚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주인이 욕도 하고 뭐하고 때리고 막 그랬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돈 못 벌면 때리고. 아휴 말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심하고... 돈도 못 번다고 맞고... (중략) 영감들 오십대들 술 많이 먹고 오지? 그럼 방에 모셔. 그리고 똥그란 통 있지? 거기다가 버려. 그럼 소리 안나. 나도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술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주고, 나는 버리고. 먹고 또 따라주고. 옛날에 돈 많이 뺐어, 나는... 나도... 시계를 봐. 열두시 안 보내. 한시에 보내. 껌껌할 때 보

39) 성매매여성들이 여자 업주에게 쓰는 호칭이다.
40) 성매매여성들이 남자 업주에게 쓰는 호칭이다.

내버려. 사람 없을 때. 그럼 찾아오잖아. 여기 OOO 시장 있지? 멀리멀리 납두고 와. 그러면 집 몰라. 택시타고 오는 거야.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어. 내가 버리고 와. 치마도 입으면 안 돼.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택시 불러 타. 아가씨 불러. "나갔다 올게~" 그러고... 매일 그랬는데 내가. 총각들은 안 잡아. 영감들. 오십대, 육십대 잡고, 사십대 잡고 그래. 영감들이 많어~ 돈 많이 가져와. 아가씨들이랑 놀라고. 술 먹으면 몰라. "아저씨! 영감! 술 한 잔 사올까?" 그러면 돈 줘~ 이따~ 만큼 지갑에 많아. 십만원... 만원짜리가 많어. 그럼 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십만원, 이십만원 냅 둬. 다 빼면 안 돼. 차비 있어야 되잖아. 그만큼만 너(넣어) 주고 다 빼는 거야. 십만원 빼고, 만원짜리 너(넣어)주는 거야. 차비하라고. 빼도 몰라. 얼른 버리고 와. 와서 문 걸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으면 돼. 몰라. "아저씨 나 알아요?" 그러면 모른데... "나랑 연애했어? 나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예요~" (생략) (3차 구술면접 - 2012. 7. 3)

3) 단속, 그리고 수용소 경험 : "삼일남았다, 이틀남았다..."

20년 전인 1980년대에도 성매매 단속은 매우 심했다고 한다. 당시 국가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통행금지까지 풀어주며 성매매를 관광산업으로 장려, 알선했다는 사실과는 대조적 현실이다. 단속의 대상은 대부분 업주나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이었다. 유리방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은 짧은 치마와 높은 신발을 신고 '일'한다. 하지만 구술자는 거리에 나와 호객행위로 손님을 직접 "물어야"하고 단속이 있을 때마다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주로 운동화를 신고 '일'했다고 한다. "큰 빌딩이고 농이고 다 열고" 들어오는 경찰들을 피해 구술자는 화장을 지우고 "아줌마 바지"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식모예요"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업주의 도움으로 다시 업소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생략) 신발은 구두 못 신었어. 운동화. 형사 오면 막 뛰어야 하잖아. 구두 신으면 넘어져. 콱 넘어져. 진짜 많이 넘어졌다. 다치고 뭐하고. 옛날에는 구두 못 신었어. 경찰이 자주 나오니까. 백차도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 못 신어, 아파서. 운동화 신고 경찰 오면 막 뛰는 거야. 다다다다 숨어버려. 그럼 못 찾어. 문 걸고. 밤에 다 잘 때 문 열어. 다 찾어. 다 잡어 갔어. 우리는 숨었지. 다른 아가씨들은 다 잡아갔어. 여기 세 명, 네 명 다 잡아갔어. 나는 안 잡아갔어. 늦게 나

가니까 어떻게 잡어. 농에 들어갔는데. 문 다 잠궜는데! 꽁꽁! 큰 빌딩 있지? 다 열고 들어와. 형사들은 아가씨들 다 잡아가. 주인도. 주인들은 다 도망갔어. 아가씨들도 도망가고. 얼른 도망가야지 안 돼. 다 찾어. [이모 젊을 때?] 젊을 때지... 뭐 스물... 다섯, 넷 될 때... 사복입고. 아가씨 옷도 입으면 안 돼. 아줌마 바지 있지? 그거 입는 거야. 물어보면 여기 식모예요. 그러면 몰라 아가씬줄. 머리 이렇게 하고〈실제로 머리를 헝클어 보이며〉 그러니까 모르잖아. "너 누구야?" 그래 "여기 식모예요." 그러면 모르고 가.〈웃으며〉 화장하면은 잡아가. (3차 구술면접 - 2012. 7. 3)

가끔씩 손님들과 술도 한잔씩 해야 했던 구술자는 "포주들이 (경찰)누구누구 나오니까 들어가라고" 미리 알려줬음에도 술에 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남에 있는 수용소"에 한 달 동안 구금된 경험이 있다. 당시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는 강조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단속으로부터 여성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구술자는 "뭐 배워주고 실 이런 거 하면서" "담배도 못 피고" "답답한" 생활로 "삼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회상한다. 단속적발 경험이 처음인 여성들은 일시 보호라는 명목으로 약 한 달 동안 구금된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일 년 동안 지내야 한다. 구술자가 지냈던 강남에 있는 수용소는 당시 수서동에 있었던 동부여자기술원으로 짐작된다. 구술자는 일시보호 후 언니에게 인계되어 퇴소할 수 있었다. 이때 일시보호소에서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여성을 인계해가도록 했기 때문이다(이옥정 구술/엄상미 글, 2011).

[예전에는 수용소 같은 곳도 있다고 그러던데...] 나도 가봤어요. 한 달. [거기서는 뭐하고 지내요?] 음... 뭐... 머리 하고... 뭐 배워주고. 실 이런 거 하고... 빨래하고. 뭐 해요. 가면 또 한 달되면 집에 가고. 보호자 와서 가고. 또 들어와. 또 일하는 거야. 아가씨들 빨래 입은 거. 그거 다 빠는 거야, 그냥. 나 한 달 살았다. 우리 언니가. 강남에서 우리 언니가 강남 사니까. 전화했어, 오라고. "수미... 알아요?" 안다고 "내 동생인데요" 다 얘기해버렸어. 언니가 빼줬지. [수용소가 강남에 있는 거였어요?] 네, 강남. 쭉 있어 이렇게. 방이. 나무야 나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없어, 강남. 모르지모. 여기 여섯 명, 여기 여섯 명 다 있고. 아가씨들은 또 해요 또 해. "누가 뭐라 하냐?, 가자" 이러는 거지.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삼일 남았다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나가고 싶어. (생략) (2차 구술면접 - 2012. 6. 29)

구술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신매매, 가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은 나의 질문에 의한 대답으로 구술된 것이다. "큰 버스 있죠? 그거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들어갔는데 뭐. 다 잡고 들어가는 거야"라는 구술내용으로 보아 수용소 경험이라는 것이 성매매여성이라면 한번쯤 가지고 있는 보통의 경험이고 수용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구술자에게는 큰 의미로 각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구술자가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은 가족들이 구술자의 성매매 경험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구술자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수용소에서 퇴소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불러 인계해 가도록 하는 규정은 구술자의 언니가 "동생이 S집결지에서 씹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언니에 의해 어머니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구술자가 재가출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4) 경제적 주도권의 박탈 : "신랑이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신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심했어. 말도 못했어. 한사람이 신랑 있었어. 여자들 돈 많이 벌어야지 신랑들 해주잖아. 옷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돈도 주고... 돈 안 벌면 맞아죽어. 여기 아가씨들은 돈 못 벌었어요. 아가씨들 신랑이 있으면 안 돼. 깨끗이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신랑들 있으면 안 돼, 다 도둑놈들이야. 내가 싫어. 나는 안했어. 그니까 (아가씨들은) 빚이 많았었지.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구술자가 "신랑"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흔히 기둥서방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매매여성들 주변에 기생하면서 한편으로는 업주와 손님, 경찰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수입을 전부 갈취하는 역할을 한다. 항시 폭력의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업주 또는 삼촌이라고 불리는 건달들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와 착취를 동시에 경험한다. 구술자가 기둥서방을 가리켜 신랑 또는 도둑놈

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호와 착취를 동시에 행하는 기둥서방의 기생적 삶을 잘 설명한다. 구술자는 다른 여성들은 “옷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해야 하는 신랑 때문에 “빚이 많았었”지만 자신은 신랑이 없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돈 벌고 빚도 갚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구술자는 목포에서 S집결지로 오면서 받은 선불금 70만원과 ‘손님 방’을 꾸미는데 소요된 비용을 합쳐 총 1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징그럽게” 손님이 많은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빚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업주들이 몇 백 원짜리 우유를 몇 천 원씩에 팔아먹고, 빚이 없는 여성들에게 “너 텔레비전 안 살래?”, “너 냉장고 하나 사라”면서 빚을 지게 만드는 구조는 구술자가 “돈을 다 까먹”고 “또 신나게 벌어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 냈다.

> 여기서 많이 팔았지. 손님 많이 오네~~ 그래서 많이 팔았지. 많이 벌었네. (중략) “여기 수미가 있어요?”하면서 자주와. 방이 여러 개니까. 오천원이니까. 많이 벌었어요. 돈도 다 깠어. 주인이 “수미야, 너 텔레비전 안 살래?” 그래... “살게요” “너 냉장고 하나 사라” “얼만데요?” “이십만원” 근데 빚이 없었지. 나는 빚이 없었어요. 돈 벌었다고... 근데 다 까먹은 거야. 다 까먹어. 주인 뭐 사주고 밥통 사주고 뭐...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버는 거야. 버는 거지 뭐 신나게.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5) 가족공동체로부터의 배제 : “엄마가 다시 나가면 안 된다 해줘야 하는데.”

구술자의 성매매 ‘일’에는 거리에 나와 호객행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오고가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구술자가 S집결지에 온지 3~4년이 지났을 즈음, I에 사는 오빠가 S동을 지나는 길에 구술자를 보게 된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구술자는 “너 집에 안 갈래?”라는 오빠의 권유 한 마디에 업소를 도망쳐 귀가한다. 구술자가 골목 여기저기에 건달들로 꽉 차 있던 집결지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징그럽게 손님을 많이 받아” 빚을 모두 “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건강했던 아버지는 풍으로 병상에 누워계셨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오빠들의 싸움은 잦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구술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심지어 “칼 가지고 와서 찌”르는 등의 폭력적인 상황은 구술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두려

움이었다. 결국 “만나면 만날 싸우는” 오빠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집을 다시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는 구술자가 그동안 왜 집에 올 수 없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냉정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크게 작용했다. 구술자는 초반 인터뷰에서 오빠들의 잦은 싸움을 언급하며 “지긋지긋”해서 “나와 버렸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엄마가 다시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말라고 해줘야 하는데”라는 속마음을 드러낸다. 오빠를 만난 반가움, 집으로 돌아가자는 오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던 구술자는 한 달 만에 다시 집을 나와 S 집결지로 돌아간다. 구술자는 그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 스물네 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들은 안 좋아해. 반가워서 뭐 그런 거 없어. 집에 가니까 안 좋아해. 오빠도 그렇지, 언니도 그렇지, 동생도 그렇지 다 안 좋아해. 그래서 나와 버렸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니?”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응, 안 물어봐.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었어. 자식도 많아서 그런 거 없고. 지겹지 뭐. 찾으면 좋은데 안 찾았지. (중략) I에 오빠가 사니까 한 번씩 택시 잡을라고 여기 있는 거야. 보면은 내가 숨는 거야. 챙피해서. 내가. ‘야, 내가 나가보자. 오빤데...’ 그럼 어떡해. 만났어. 만나서 차도 먹고 얘기도 하고. 오빠가 집에 가자 그래서 하루 오빠 집에서 자고 갔다고. 엄마 집에서 두 달 살았지! 또 나와 버렸어. 싫어서. 아가씨들은... 집에 있다가 나가버려. 집에 못 있어~ 답답하니까. 엄마가 다시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마라. 해줘야 하는데. 냉정한 거야. [가족들은 이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몰라! 말하면은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또 나왔어. 싫어서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냐. 내가 나가고 말지. (4차 구술면접 - 2012. 7. 20)

6) 보름 만에 깨진 결혼생활 : “서른에 또 나왔네... 씹 팔았어”

구술자는 20대 후반에 스스로 집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구술자가 집에 들어갔을 당시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사진만이 구술자를 반기고 있었다. 한편 구술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했다. 특히 언니를 통해 구술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

고 “너 씹팔았지?”라며 차갑게 추궁하기에 바빴다. 몇 개월이 지나, 구술자는 어머니의 소개로 한 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한 배려는 결혼이라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업도 모를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시작된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직후 “테레비 쓴거”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이 시작되었고 “집게로 보지를 찢는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까지 다다르자 구술자는 오빠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 놓는다. 화가 난 오빠들은 구술자의 남편을 폭행하고 이를 본 시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혼 생활은 보름 만에 깨진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낸 구술자는 “오빠들 얼굴 보기도 안 되고 엄마한테도 챙피해서” 다시 집을 나온다. 이것이 구술자의 두 번째 가출이었다. 특별히 갈 곳이 없었던 구술자는 다시 S집결지로 돌아와 “먹고 살기” 위해 “또 일을” 시작한다. 당시에는 미안하고 창피한 가족들의 공간보다 십년을 가까이 지낸 업주와 친구들이 있는 성매매 공간이 구술자에게는 더 “편하고 좋은” 곳이었다.

> 〈눈물을 닦으며〉 내가 서른, 시집을 갔어요. 서른, 서른, 서른에... 또 집에... 들어갔어. 우리 신랑이 스물아홉이야. 큰 오빠가 시집을 보내줬어요... 엄마가 좋다고 그냥 성당에서 뭐 엄마 친구들 많잖아? 근데 결혼식도 다 했어요. 그릇까지 커피까지 다 사줬어요, 엄마가. 근데 한 달, 보름 살고 나와 버렸어. 찝게 있죠? 보지 찢는다고... 찢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예요?] 〈목소리를 작게 낮추며〉 보지 찢는다고... 찝게, 찝게 있죠? 그걸로 보지 찢는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 오빠한테 얘기했죠. “오빠 이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텔레비전 쓴 거 가지고 왔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나보고. 새 거 가지고 오라고. 또 사줬다! 쓴 거는 집에 가져가고 다시 오빠가 새 거 사줬어. 막 바가지를 하는 거야. 돈 때문에 왔어. 부자니까... 집이 오빠 부자니까 뭐뭐 다 사주고 뭐. 돈 때문에 장가왔어. 근데 보름 살고. 내가 밖에 나가버렸어. 싫어서 내가, 그니까 서른에 또 나왔네... 씹 팔았어. 그래서 옛날에 씹 팔아먹었어.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7) 실명 : “나도 씹 파는데 어떡해...”

다시 돌아왔지만 S집결지는 예전만큼 활기 있지 않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구술자는 같은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구타를 당해 왼쪽

눈을 실명한다. 평소에도 술주정이 있는 그 여성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발로 치는” 바람에 “안 맞을려고” “수건으로 가렸”는데도 구술자의 “눈깔이 까만게 나와버렸다”. 사람들은 “얼른 신고하”라고 했지만 구술자는 “나도 씹 파는데 어떻게” 신고하겠냐며 “같이 (감옥에)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애 엄마”인 가해자가 “불쌍해서”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가해자도 성매매여성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감안하여 하루에 4만원씩의 약값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루 이틀 주고, 생각나면 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함께 ‘일’하는 여성으로부터의 폭력, 그로 인한 실명, 그리고 이후 “더 돈 벌껀데”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은 “그런데 어쩌겠어”라며 의외로 간단히 받아들여진다. 구술자는 눈이 실명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에 더 분노했다. 눈은 실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미 있어요?”라며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는 구술내용으로 보아 실명이라는 경험이 성매매 ‘일’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 내가 한 번씩 건너가잖아? 그러면 “언니, 내가, 내가 미안해... 술 먹고 때린 거... 내가 모르고 때려버렸어... 미안해, 언니” (중략) “언니, 조심할께요. 한 번씩 놀러 와요. 드릴께요” 그런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놀러오니까 “흥” 이러는 거야. ‘요년 봐라~ 내가 왜 신고를 안했지? 감방 살게 냅둘껄’ (중략) 탁 보고 돈 주는 거야. “야, 돈이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2차 구술면접 - 2012. 6. 29)

4. 중년기(2001~현재)

1) 건강에 대한 긴장 : “시집 못가. 병신 나(낳아)”

구술자는 성기에 “벌레”가 생기거나 “가렵고 따갑고” 할 때마다 자가 치료를 해왔다. 한 번도 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유일하게 몇 차례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억을 떠 올린다. “네 번, 다섯 번”은 “애를 뗐는데” 심하게는 임신 6개월 때 낙태를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구술자는 “툭탁툭탁 짜르고” “큰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까만거 그걸 휴지통에 버리”는 걸 보면서 “심장이 막 까매지고” 아팠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구술자에게는 그 놀라고 아픈 경험보다 쉬지도 못하고 다시 나와 ‘일’해야 했던 경

험, “애기 비우면 더” 아픈 몸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손님을 받아야 했던 경험이 더 강하게 기억되는 듯하다. 구술자가 낙태 경험을 설명할 때마다 강조한 “그것도 빚이야”라는 말은 누구보다 성병과 피임에 철저했던 자신에게 닥친 임신과 낙태,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늘어난 빚을 감당하면서 느낀 막막함과 답답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빚의 증가는 업주의 감시 및 통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혼자 계셨어요?] 주인이랑 같이 갔지. [그리고 바로 일하고?] 삼일... 삼일 쉬고 나와 버렸어. 그니까 그냥 한 달 쉬어야지. 보름은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삼일 쉬고 나와 버렸어. 주인이(한테) 빚이 많아서 나와 버려. 아이고, 이거 어떡해... 몸도 아파요. 많이 아파. 애기 비우면은 더 아파. 아이고, 어떡해... 한 달은 푹 쉬어야 되는데... 삼일 딱 나와. 그랬어. 돈 벌을라고. (2차 구술면접 - 2012. 6. 29)

> 내가 애기를 많이 뗐어, 다섯 번은 뗐어. 그니까 애기를 못나. 떼고떼고 그리고 피임약 먹어서 못나. 피임약 많이 먹었어. 생리대는 피가 안 나와. 많이 여섯 달 애기 떼버렸어. 애기 띠고... 삼십만 원에 떼버렸어. 그것도 빚이야.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구술자는 42세의 나이에 폐경을 맞는다. 구술자는 그 원인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피임약, 반복되는 임신과 낙태, 잦은 성관계, 그리고 술과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술자는 구술면접 중간 중간 담배를 집어 물고는 “선생님은 담배피지 마요”하면서 곳곳에서 담배 피는 여성들을 향해,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향해 “애기 못나(낳아), 병신 나(낳아)”라며 한숨짓곤 했다. 이것은 30년 이상을 성매매, 그리고 술과 담배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폐경이라는 결과와 연결하면서 구성한 건강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임약 복용, 임신과 낙태, 잦은 성관계, 그리고 술과 담배는 성매매여성들만 영유하는 생활습관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성매매가 결국에는 “여자도 아닌 몸”을 만들어 버렸다는 구술자의 해석은 성매매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 안하고 싶어. 여잔데 하고 싶으잖아요. 물 없어. 많이 하니까 여자들 물 있으면 다 빠져나가. 물이 없잖아요. 말라버려 없어, 나는. 연애하면은 남자가 다마 있고

동그란 거 있고... 그러면 나 연애 못해, 내가. 다마 있고... 고무 있고. 내가 안했어 무서워서. 염증 나요. 옛날에도 안했어. 겁나서. 보내버려. 여기는 OOO가 드러워요. 깨끗이 이런 거 없어. 밑에 꺼 깨끗이 닦잖아? 근데 안 헮어 오는 거야. 이 있죠? 그게 있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돈 주버려. 여보내고. 옮으면 안 되지. 나도 오래 살아야지. 그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야. 그냥 물이 말라서... 물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모들은 물이 없어. 젤 있죠? 젤질 하는 거야. 고무끼고... 고무에 발라서. 모르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다 꾀가 있어, 다... 옛날에는 몰라... 피임약 먹버려막 그랬어요. 그니까 애기를 못 낳는 거야.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많이 먹으면 나쁘대. 많이 먹었어. 그니까 생리도 피가 안 나오는 거야.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2) 폐경, 그리고 퇴출 : “오십 넘어서 하면 병신 돼요”

내가 씹 팔고 돈 벌어서 사고. 또 벌고 그러는 거지. 화장품 사고. 그러니까 병나는 거야. 병신 되는 거야. 쪼끔하고 그만둬야지, 그게 좋은 거야. 마흔에 딱 그만둬야지. 오십 넘어서 하면 병신 돼요. 허리도 못 써요. 오십 되면요... 사십 되면 물 나오지? 오십 되면 물도 안 나와... 말러. 딱 그만둬 버려야지 더 하면 안 돼. 여자들은. 콱 물도 안 나와. 물이 나와야지, 여자들은 물 안 나오면 여자 아니야. 말러버려. 남자들이 느면은, 남자들이 빽빽하잖아. 아파서 연애도 못해. 헐어요... 헐어서 못해.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하고 싶어. (3차 구술면접 - 2012. 7. 3)

성매매여성들에게 성행위의 시간과 강도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들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성매매의 조건은 돈과 사정(射精)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성서비스의 교환이다. 따라서 아무리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정에 이르지 못하면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발기와 사정이 잘 안 되는 나이든 남성들은 성매매 시장에서 기피되는 대상, ‘진상[41]’ 중에 하나이다. 한편 성매매여성의 나이듦은 더 악조건 속에서 더 강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다. 구술자는 마흔두 살에 폐경을 맞고 스스로 여성성을 잃었다

41) ‘진상’은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지칭할 때 쓰는 은어이다. 성매매여성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성구매남성을 표현할 때 ‘진상’이라는 은어를 쓴다. 주로 술 취한 손님, 나이 많은 손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등이 ‘진상’으로 표현된다.

는 상실감에 휩싸인다. “물도 안 나오면 여자도 아닌” 몸을 가진 구술자는 스스로 성매매 ‘일’에 지쳐감과 동시에 성매매 시장에서 퇴물 취급을 받는다. 결국 그 많던 손님들은 사라지고 “육십, 칠십” 발기가 안 되서 “약(비아그라) 먹고” 오는 손님들만 상대해야 했다.

> ‘나이가 먹었구나... 허리가 아프구나. 나도 안해야겠다.’ 나이가 쪼끔 젊으면 다시 하고 싶어.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싫어. 삼십대만 되면은 다시 멋~있게 한다. 더 잘할 수 있어. 삼십대(에)하면 옷도 이쁘게 야한 거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싶어.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먹으면 젖이 쳐지고... 폼도 안 나잖아. 그때가 좋은 거지. 날씬하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아줌마잖아. 총각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폼이 안나. 나이가 먹으면 쳐져.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손님들의 연령은 어느 정도예요?] 응, 나이도 많아. 칠십. 사십. 오십도 와. 팔십도 오고... 팔십된 사람들은 싫어. 밑에가 재미가 없어. 사십이 오십이 딱 좋아. 칠십, 팔십은 잠지가 죽어버려. 재미없어. 오래오래하고... 술 먹으면 오래해. 빨리 안 나와. 사십, 오십대는 괜찮아... (3차 구술 면접 - 2012. 7. 3)

“여기 수미 있어요?”하면서 찾아오는 단골손님들 덕분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구술자는 “지갑이 없는(비는) 날이 없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재밌게 살았다고 이야기한다. 구술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백차” 오면 막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있었고 아가씨들은 오고가는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느라 거리가 매우 분주했다고 한다. “(손님) 잡고 뭐 하고” 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던 당시는 구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활기 있고 생기 넘치는 기억이다.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은 놀려고 빵 먹고 그러는데” 구술자는 친구 없이 혼자 보냈다는 구술과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구술자에게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울릴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생략) 내가 또 적어. 시간값 하고 긴 밤하고 적어. 이거 적으면 안 돼. 몰래 적어야지. 주인이 보면 안 되잖아. 팁 나온거, 시간값 다 적어놔야지 안 적으면 다 까먹어버려. 까먹어. 주인도. 얼만지 딱 보면은 내가 얼마 벌었구나... 삼백 벌었나봐... 또 가서... 일하고 밥 먹고 일없으면 나가는 거야. 화장품사고 뭐하고. 잡고

> 뭐 하고 잡고... 그때가 재밌었어. 잡고... 손님하고 얘기하고... 딸래미가 와서, "엄마가 오래"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어. "수미언니, 엄마가 오래. 가봐~" 갔지. "수미야, 돈 많이 벌었네? 백오십만원 벌었구나." 보너스 줬어. 십만원. 수고했다고. 참 그때가 좋았어. 보너스 주고. 십만원 받고. 재밌게 살았어. 쓰고 먹고, 술 먹고 김밥 먹고. 열두시 되면 배고프잖아? 그럼 김밥아줌마가 와. 주인이랑 다 나와. 김밥아줌마! "엄마 뭐 먹을래? 먹어, 먹어" 사주는 거야. 재밌게 살았지. 주인도 엄마, 엄마 부르고. 팁도 다 주고. (3차 구술면접 - 2012. 7. 3)

"또 벌면 되는구나. 펑펑 써버"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구술자는 "나이가 먹으니까 손님도 안 붙어" 업주로부터 그냥 삐끼나 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구술자는 이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나이듦을 실감하게 된다. 이후 "손님 없으면 슬퍼"서 "술 먹고" "막 울고"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저금 같은 거"도 몰랐던 시기에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었던 구술자는 먹고 살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가씨에서 삐끼로 '일'의 형태를 변화시켜 나간다.

3) 성매매가 아닌 일 : "힘들어서 못해먹어"

구술자가 '일'하고 있는 업소의 주인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다. 당시는 구술자를 찾는 손님이 없어 매일같이 술로 날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다. 업주의 딸은 "빚이 많으니까 여섯 달" 동안 업주의 간병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다. 업주의 고향인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간 구술자는 이동이 불편한 업주의 대소변을 모두 받아내며 6개월 동안 간병인의 역할을 했다. 업주를 돌보는 것은 "똥 냄서 나서" "술 안 먹으면 못"하는 일이었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징그러운" 시간이었지만 구술자가 받은 보수는 "한 달에 이십만원, 삼십만원"에 불과했다.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구술자는 다시 S집결지로 올라와 업소를 옮겨 삐끼로 '일'하기 시작한다. 구술자는 "한 번씩 손님 오면 받고 또 손님 없으면 아가씨 넣어"주면서 변화된 삶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한다. 구술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간병사로 일했던 경험이다. 구술자에게 간병일은 10대 후반에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제외하고는 성매매가 아닌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힘든 노동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수는 '삐끼라도 괜찮다, S집결지로 돌아와야겠다'는 구술자의 결심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아휴 거기가면은 힘들어서 못해먹어. 술 먹고 해야 되는데, 술 안 먹으면 못해. 똥냄새 나서... 우리가 밥도 못 먹어. 막 올라오니까. 그니까 허리가 안 닦아 주면 등이 헐어서 병신 돼. 내가 그냥 싹 닦아주고 분도 발라주고 그랬다고. 허리가 깨끗해. 노인네가. 그렇게 잘했어 내가. 밥도 못 먹고. 술만 먹고 살았어. 술. 술. 먹으면 다 나오니까 막. 밥 못 먹었어요. (중략) 아이고, 나 밥도 못 먹었어. 안하고 싶어. 많이 해봤지. 닦아줘야지. 몸도 뚱뚱하지... 다리, 어깨 다 닦아줬지... 아이고, 세수도 해주지... 딸래미 그냥, 아들도 많어. 술 사왔어. 먹고 해. 그거 먹고서 살았네... 아휴... 참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 아찔해 나는. 생각하면 아찔해. 그렇게 살았다우. 아휴 참. (3차 구술면접 - 2012. 7. 3)

4) 성매매 '졸업' : "돈 버른 것도 없고... 다 빚이야"

"돈 버른 것도 없고, 다 빚이야. 또 씹팔고 뭐하고... 또 빚이네... 까고 까도..." 업소를 옮겨 아가씨와 삐기, 그리고 업소의 살림을 간간이 도우며 생활하던 구술자는 수입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음에도 방값, 업주의 살림살이 구입 등으로 나가는 돈은 여전히 비슷했다. 수입의 절반을 업주에게 주는 조건으로 들어간 마지막 업소에서는 하루에 10만원 벌기도 버거운 구술자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때 구술자의 나이가 마흔 아홉, 2009년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S집결지에는 문 닫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매일 같이 순찰 차량이 집결지 주위를 돌면서 호객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구술자의 삐끼 '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술자는 정해진 수입을 채우지 못하는 날이면 아침 7시까지도 호객행위를 계속해야 했다고 한다. 결국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몸은 점점 허약해지자 업소에서는 구술자를 내보내기로 한다.

> 마흔 아홉에 내가 엄마를 찾았지... 아홉에 찾았는데 뭐가 없어. 돈 버른 것도 없고... 다 빚이야. 또 씹팔고 뭐하고... 또 빚이네... 까고 근데 사람이 돈 못 벌으니까 너 집에 가라는 거야. 뚱땡이가 주인이야 옛날에... 내가 들어갔어. "야 수미야, 방값이 삼십만원인데 내라..."그래. 그래서 내가 냈어. 뭐하나 사래. 그래서 내가

> 삼십만원에 샀어. 그러면 빚 못 까니까 (내 물건)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몸에 나와 버렸지. 벌은 거 없어, 다 빚이야. "너 집에 가". 마흔 아홉에 내가 부모 찾았어.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차비도 없이 몸만 나온 구술자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찾기로 결심한다. I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엄마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결혼 실패 이후 서른 살에 집을 나온 구술자가 약 20년 만에 집을 찾은 것이었다. 어머니를 찾은 구술자는 "수미가(도) 같이 살자..."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는 싫다. 나가라 그래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구술자에게 어머니는 차가운 물을 뿌린다. 거실에서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뜨거운 물을 담은 통을 안고 겨우 잠들어 있을 때였다. 더 이상 어머니 옆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구술자는 그날 새벽 다시 마지막 가출을 결심한다. 구술자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에게 냉대한 이유를 언니를 통해 구술자의 과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 씹 팔았지?"라는 어머니의 추궁에도 끝까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 마음 아프게..." "나 씹 안 팔았어"라고 자신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지만 끝내 어머니는 구술자를 거절한다. 결국 "나 나가니까 이제 안 찾아올 거야. 엄마 돌아가셔도 안 찾아올 거야. 부르지 마세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온다. 구술자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추운 겨울" "2월 달"을 재차 강조한다. 온몸이 젖은 채 아침도 거르고 이른 새벽 집을 떠나는 구술자에게는 "추운 겨울" 날씨가 더 차갑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 "어머니, 수미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엄마하고 수미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그랬어. 그랬더니 "수미 싫다! 다시 나가라 그래라!"그러는 거야. 방이 있어? 방이 두갠데? 추운 날에? 어떻게 나가! 오빠가 이불 깔아줬어요. 파란색, 보란색, 원래 내 이불. 잤어. 안 잤어. 천원짜리 있죠? 물통! "추우면 물 데워서 따라서 자라" 물이 따뜻하잖아. 봤어. 내가 안 잤어. 그래서 여섯시에 나와 버렸어. 자나자나 이렇게, 이렇게〈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봤어. 이불에다 뿌리는 거야.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니까 추우니까 못자잖아. 나가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나와 버렸어. 그래서 일로 왔어. [엄마는 왜 이모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으라고. 내가 나가니까 그러는 거야. "너 씹팔았지?"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어? 엄마가 봤어? 나 나가서 씹 안 팔았어. 엄마가 봤어? 엄마 안보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 내가. “보면 모르겠지만 안보면 말하지 마요. 나 씹 안 팔았어” 씨발년, 나가서 씹팔았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마세요, 나 괴롭게. 엄마가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돼, 엄마. 나 나가니까 이제 안 찾아올 꺼야. 엄마 돌아가셔도 안 찾아올 꺼야. 부르지 마세요” “알았다, 나가” 그래서 나 2월 달에 나가버렸어.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5) 꿈의 보금자리 : “방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니를 설득하다 지친 오빠들은 구술자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잠시만 찜질방에 있으라고 한다. 하지만 성매매 경험으로 남성들에 대한 거부가 심한 구술자는 찜질방에서 편하게 잠 한숨 잘 수 없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쩔 수 없이 오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70만원을 구한 구술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업주를 찾아가 70만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S집결지 인근의 쪽방촌을 선택해 처음으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여기 너무 좋아. 내가 방 있으면 좋은지 몰라. 근데 내가 방이 없으니까... 어떡할 꺼야. 맨날 싸우나 가서 커피 먹고 그게 되나? 맨 남잔데? 어떡할 꺼야. 따 먹으면 어떡할 꺼야. 그래서 한 번씩 “언니, 나 집 해줘. 내가 돈 드릴게” 했지. 좋아. 다 남잔데. 따먹으면 몰라... 무서워 나 혼났어. 그래서 나 사우나 안 가는 거야. 무서워서.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오십 둘인데 조심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있으면 같이 가는데. 조심해야지. 참 힘들어. 힘들어. 마흔 아홉에 떠나버렸어. 안 해 아예 안 해. 삐끼하면 뭐해요. 오만원 부르면 이만원 뺀데, 아가씨 사만원 줘. 안하고 싶어. 편하게 살면 돼요.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하나씩 밥통도 사고... 그릇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이제는 제법 살만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구술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위험하다. 나무로 된 집에 쥐들이 가스관을 갉아먹어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1~3차 인터뷰가 모두 구술자의 집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배를 집어 무는 구술자를 보면서 잠시 머무를 뿐인 나조차 공포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이곳,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없는 이곳, 그렇지만 구술자에겐 첫 번째 보금자리이기에,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기에 더없이 소중하다.

구술자의 집은 F백화점 뒤편 일명 쪽방촌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 일층짜리 낮은 집이고 모두 나무나 시멘트로 허름하게 지어진 가건물이다. 이곳은 거주자 또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노숙자들 외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빈민지역이다. 또한 6~7명의 고령 성매매여성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다. 밤에 이곳을 방문하면 도로 쪽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곳곳에 나와 있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고령 성매매여성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구술자에게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여주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구술자는 “OOO에서… 아가씨 여기서 때우고… 여기서… 오십대 해먹었다. (중략) 나는 평생을 OOO에서 산 거니까… OOO는 아프고 힘든 기억도 있지만 여기서 쭉 살았지”라고 대답했다. 살아온 인생에 붙인 제목에 OOO라는 공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술자는 S집결지가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한다. 하지만 재개발되면 ‘작은 방이라도 하나 남겨질까’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 이곳에 머무를 예정이다.

6) 성매매 경험이 남긴 것들 : “테레비 돌려도 다 남자들이니까”

구술자에게 성매매 경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특히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연결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는 손님들, 그 중에는 병에 걸린 사람, 아내가 있는 사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구술자는 모든 남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바라보고 있었다. 가령 “돈 보고 결혼한” 남편, 칼을 들고 싸우는 오빠들, 젖가슴을 만지며 “맨날 그짓만 하자고” 하는 남자친구, 돈 들고 찾아들어오는 거지, 변태적 손님은 모두 남자라는 이름으로 구술자에게 똑같은 사람들이다. “무서워서 (시집) 못가는 거

야. (중략) 안가고 싶어...” “나도 신랑 있으면 때릴까 싶을까봐. (중략) 다 도둑놈인데? 이거(몸) 먹을라고?” 구술자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 연애, 친구 사기기를 모두 포기했다.

> 오빠가 집에 오빠가 있는데 싫으니까 나는. “수미야, 이쁘다” 이러는데도 내가 싫어. 징그러워. 오빠도 털이 이렇게 많어. 내가 싫어. 냄새나서 홀아비 냄새. 내가 싫어. 그래 내가 집에 안 가는 거야. 여자는 괜찮아. 여자는 냄새 안나. 남자는 냄새 나서... 꼬린내가 나는지 몰라~ 왜그래~? 내가 싫어 내가. 젖을 만지고 뽀뽀하고 안고... 더운 날에 여름에... 내가 싫으니까. 술 냄새. 나도 술 먹지만 싫어. 아주 드러워서 못 봐 드러워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냐~ 달러~~ (중략) 징그러워서 그런가봐. 맨 남자꺼 보니까... 남자꺼 보는 거 징그럽잖아. 나 그래서 안 봐. 택시타면은 “아줌마 손이 이뻐요~” 막 이러는데, 아, 징그러워. “아, 왜 그래 아저씨. 나 신랑 있어”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아휴 나 징그러워서 내가. 테레비 돌려도 다 남자들이니까 싫어 내가. 아휴 내가 그냥 징그러워서 내가... (3차 구술면접 - 2012. 7. 3)

“다 싫어서 막. 땀 냄새 뭐. 다시 보내. 보내버려 나는” “안 해. 냄새나고. 안하고 싶어” “냄새가 꼬린 냄새가 나...” “이쁜 거 입고 나오는데 몸을 닦아야지... 냄새나잖아...” 구술내용에서 ‘냄새’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구술자가 ‘일’하던 업소에는 샤워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손님을 받으면 간단히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성행위를 시작한다. 때문에 술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 정액 냄새는 구술자가 ‘일’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구술자는 우연히 집 앞 슈퍼에서 막걸리 한 잔 하다가 만난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 물론 구술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제는 아니다. 구술자는 “쫌 얘기도 하고... 놀러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남자친구는 가끔 찾아와 “젖이 이쁘네”하면서 “막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구술자는 친구가 필요한 것인데 남자친구는 구술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7) 쉰 두 살의 꿈 : “나도 재밌게 살고 싶어”

구술자는 술 취한 노숙자들이 와글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밤이나 낮

이나 갑자기 찾아들어오는 노숙자들 때문에 밤에는 TV를 끄고는 거의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가끔은 어떻게 알았는지 "돈 준다고" "한 번 하자고" 찾아들어오는 노숙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무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애 못하면 칼 맞"을까봐,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이(사면발이)"있는 사람에게 성병이라도 옮을까봐 두려워서 되도록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최근 지인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장애수당 3만원을 포함해 약 6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마흔 아홉에 '일'을 "그만둬버렸다"거나 "졸업해버렸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한다. 그러나 "삐끼를 하거나" "찾아오는 손님은 받고"라는 등의 구술내용은 업소에 고용된 형태는 아니지만 성매매 '일'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업소에 고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일'은 구술자에게 '일'이 아닌 것이다.

> 나는 일 안했어요. 안했어 나는. 안하고 삐끼해줬지 내가. 나 찾아오는 손님들은 받고 그랬지만, 삐기만 해줬어 삐기. 나는 못하니까. 찾아오는 손님은 했는데, 고무 쓰고 했지. 겁나서. 생리 나오면은 찝찝해... 생리 안 나오면 이상해. 여자는 나와야 되잖아. 생리 안 나오면 허리도 아프고 그래.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좋지... 어떻게 마흔 둘에 끝나버려. 오십에 끝나야지. 딱 끝나버렸어. (중략) 나도 돈 있으면 재밌게 살고 싶어.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고. 뭐하러 돈 있는 거 아들들 다 줘~ 내 돈 있어야지. 병원가야지. 나는, 소원이 있으면 재밌게 살고 싶어. 돈 나오면 잘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오래 살고 싶어. 백 살 살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우리엄마는 놀러 못 갔어. 이렇게 집에 있었어. 똑같이. 울 엄마하고 나하고 똑같애. 놀러 안 가봤어, 울 엄마는. 부산도 못가보고, 남산도 못가 봤어. 차가 있으면 해줄라고. 〈웃음〉 나도 남산에 안 가봤어. 참말로 깜깜해! (3차 구술면접 - 2012. 7. 3)

구술자는 마흔 아홉에 찾은 가족들과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낸다. 첫 인터뷰 당일 구술자는 I에 살고계신 오빠와 엄마를 만나고 온 뒤였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술내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구술자에게 차갑기만 했던 엄마는 이제 치매에 걸려 어린 아이가 되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홀로 "밥에 물만 말아서" 먹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인다.

구술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오면서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구술자는 아픈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는 오빠들을 대신해 "둘째 딸이니까" 파마도 해드리고 간식도 사다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우리 엄마도 놀러도 못 갔어요" "나하고 똑같애"라고 하면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 여행 한번 못 가 본 자신을 일치시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 내가 쪼끔 나이가 먹으니까, 오십 둘이니까 생각난다! 애기 낳고 싶어서... 지금은... 많이 뗐는데... 딸, 애기도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나 죽으면 누가해줘. 세상 살아봐야... 불쌍해... 내가 애기하나 데려올까 그러는 거야. 근데 애기 있으면 돈 못 받어. 다 가져가버려. 그니까 어떡할 거야. 혼자 살아야지 뭐. 깜깜해 나도. 어떡해... 아이참... 힘들고... 참... 혼자 사니까 힘들어. 또 그냥 먹고 싶으면 시장 갔다 와야 하잖아. 해먹어야지. 신랑 있으면 같이 먹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니까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내가 한 달에 돈 나오면은 바로 돈 타서 시장에 갔다 와. 그것도 갔다 와. 그래서 가면 많이 사요. 오래 먹을라고. 가서 또 오기 싫어서.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내가 먹을라고 사고 있지만 그것도 싫어. 그냥 누구 해주고 싶어. 엄마 이거 먹어봐. 내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하기 싫네. 다시 처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이가 먹으니까 싫어... 누구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엄마, 엄마 이거 먹어봐"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시집을 갔으면 딸래미 스무 살은 있을 껀데 〈깔깔깔〉 "엄마, 엄마" 그러고... 부럽더라 막... 딸이 있으면은... 놀러가고... 나 혼자니까 마음이 아퍼. 썰렁하고... 엄마 집에 가면은 오빠가 있으면은... 나는 아들이 있으면은(싫어서) 시집 안 가야겠다 그랬는데, 가고 싶어. '딸이 최고구나' 내가 엄마한테 하니까~~ '딸이 좋구나' 아들은 안 낳고. (3차 구술면접 - 2012. 7. 3)

구술자는 "아들 낳으면 뭐해. 내가 나이 먹으면 아들한테 욕먹고 그래요?"하면서 어머니한테 욕하는 오빠 같은 자식을 왜 낳아야 하냐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다가도 "신랑 있으면 같이 먹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니까 맛이 없어" "딸이 있으면은... 놀러가고... 나 혼자니까 마음이 아퍼. 썰렁하고"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 구술자는 한 평 남짓의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는 일 외에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바람이 더욱 크다. 2009년부터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S집결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구술자에게 유일한 낙이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잦은 이직과 각기 다른 성향은 구술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활동가라고 대답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잔뜩 털어놓는 것은 그만큼 활동가들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활동가들이 구술자의 '피 없는 가족'이다.

구술자의 집 앞에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같은 또래의 성매매여성들이 '일'하는 공간이 나온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가까이 모여 함께 식사도 해 먹고 술도 마시고 손님도 받고 있지만 구술자와 그들 사이의 공백은 크기만 하다. 구술자와 같은 또래의 성매매여성들은 구술자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구술자가 장애를 가지게 된 사연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같은 지역의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보조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구술자는 사람들이 "말을 붙여서(부풀려) 얘기하"고 "정이 없어서" 교회에서 만나도 눈인사조차 안 하게 됐지만 지금의 상황이 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외롭고 심심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구술자에게 의지할 사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른 이모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고 그래요?] 아니, 안 만나. 여기는 전라도 사람이 많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은 붙여서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고 얘기하면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 돼. 우리가 쪼금 친했다? 우리 오빠가... 엄마가 뭐...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붙여서 얘기하는 거야. 붙여서 나쁘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안 친해. 예전에는 매일 전화했지만. 지금은 안 해. 예전에는 친했지만. 그 언니가 당이 있어. "몸이 어때요?" 그러면 "괜찮다" "병원갔다와" 정이 있잖아 그러면. 근데 이제 안 해, 끝이야. 나도 사람이 말을 잘해주면 뭐든지 다 잘해줘. 그런데 끝이야. 이제 끝. 전화하면은 안 해. '좋다 이거야 너도 안하냐 나도 안 해' 안 친해. 지금은 한 번씩 교회서도 얘기안 하고. '아, 왔구나' 그냥 그러지. 근데 좋아... 많이 친하면은 사람 무서워서 말하면은 크게 말하니까 무서워서 말 잘 안 해. 여기는 입이 무거워야지... 안 돼... 좋은 거야... (1차 구술면접 - 2012. 6. 23)

제3절 변옥희 : 제약된 '선택'

변옥희는 연구참여자들 중 가장 심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가장 건조하게 생애 이야기를 풀어가는 인물이다. 변옥희는 자기의 삶을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자신을 주어로 삼는 문장도 극히 제한적이다. 즉, 이야기에서 자아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계급/계층에 따른 사회문화적 제약이 누적되면서 욕구나 욕망도 표현되지 않는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희생자'의 이미지로 엮지도 않는다. 변옥희의 서사는 현재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현재의 이야기로 끝난다. 연구참여자들 중 극복해야 할 현재의 과제를 가장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옥희의 구술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일대기와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어디는 어땠고, 어디는 여기랑 어떻게 달랐으며,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노동 공간에서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이 변옥희의 서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아동기(1961~1975년)

1) 고아원에 맡겨짐 : "내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데..."

구술자 변옥희(가명)는 1961년에 태어나 대구에 있는 고아원에 맡겨졌다. 정확히 몇 살 때, 어떤 경위로 고아원에 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지만 구술자의 성이 고아원 원장의 성을 따른다는 구술로 보아 친부모의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 직후에 고아원에 맡겨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술자가 구술하는 고아원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후에 새롭게 해석되어 구성된 것이다. 가령 고아원에서 구술자를 유난히 잘 보살펴 주던 언니가 친언니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핏줄은 땡기니까" 나중에 커서 느낌으로 알게 된 것이고 할머니 두 분이 구술자를 포항으로 데려가 "니 애비"라며 아빠를 만나게 해 준 이야기는 그것이 입양이었는지 친아빠와의 만남이었는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구술자의 기억에 따르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포항에 있는 아빠의 집에 데려갔고 어린 나이에 '애비'라는 뜻도 몰라 도망쳐 고아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포항에서 대

구까지 예닐곱 살의 어린 아이가 혼자 돌아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억이 삭제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구술자는 고아원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먹을 꺼에 구애"받던 시절이지만 또래 친구들이 모여 지냈기 때문에 재밌었다고 이야기한다.

> [엄마, 아빠 생각나진 않아요?] 아이고 옛날에 언니하고 나하고 들어왔는가. [고아원에?] 응. [그럼 왜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도 몰라요?] 응. [고아원에 보면 기록 같은 게 있을 텐데...] OO보육원, 옛~날에 한번 찾아갔는데 애들도 없고 어... 유치원 차렸어, 유치원. 유치원 되고 원장은... 그 당시에 목욕탕 그대로 있더라고. 옛날에 애기 때 크~게 했거든, 설날도. [그럼 언니도 같이 고아원에 갔는데,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이모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언니는?] 그때 언니는, 나 발 들으라고 한 뒤로, 나 일학년 들어가는 거 보고 없어졌더라고. 그땐 언닌 줄 몰랐지. 크고 나서 보니까 '아, 우리 언니구나' 핏줄은 땡기니까. 우리 언니는 쫌 컸으니까 맨~날 나 달래줘야지. 그 깜깜한데도 언니 찾아갔어, 애기 때. 그 생각은 나. [되게 어렸을 땐데...] 꼭~ 달래야지 잤거든. 일학년 들어가고 이거(발꿈치)를 들으라고 하더라고. 일학년 들어가고 언니가 없어졌어. [이거를 들으라니 무슨 말이에요?] 인자, 키 크면은 학교 들어간다 이거지. 일학년 들어간다 이거지. [아...] 쪼끄맸으니까.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 포항에서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왔는데 남자가 이렇게, 그때 당시 국민학교 졸업했을 때니까 부모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애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니 애비다" 그러니까 어떡해. 애비가 뭔지 뜻을 알아야지.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 보고 싶어서 포항에 친할머니 외할머니랑 니 애비라고 스이 있었는데 애들 보고 싶어서 또 그 집에서, 포항에서 나와 버리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때서... 신대방도 수양딸로 보냈어.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2) 수양집에서 겪은 성폭력 : "그 당시에는 아~무 뜻도 몰랐고"

고아원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구술자는 열네 살 때 서울 신대방동 부잣집에 수양딸로 가게 된다. 처음에는 중학교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맨~날 일만 시키고 밥하고 뭐 빨래" 하는 등 식모에 불과했다. 당시 구술자는 그 집에 입양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이 여전히 고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구술자는 고아

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 갑자기 낯선 동네로 오게 되면서 무척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아래층 중국집과 룸싸롱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오다가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하루는 늦게까지 놀다 대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배인과 함께 룸싸롱에 남게 되었다. 지배인은 구술자에게 "몸 안 건든다"고 했지만 당시 구술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더니 "막 아프고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룸싸롱에서 나와 무작정 걷는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게 "아다다시(아따라시)[42]" 줄도 몰랐는데 이후 객지에 나와 그게 몸을 빼앗긴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 [이모 그러면 처음에 거기 수양딸로 갔던 집에서 이모 아다다시(아따라시)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모... 그때 상황하고 이모 마음하고 그런 거는 어땠어요? 어렸고... 첫 성경험이었잖아요.] 그때? 첫 경험일 때? 아다다신(아따라시인)줄도 모르고 피가 엄~청 났어. 그 사람도 불 나가꼬 죽었어. 정도 못 받고, 나. [정도 못 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을 못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키가 크~고 잘~ 생겼거든, 완전히. 근데 알고 보니까, 뉴스에 그때 신대방동에 불 크~게 났었잖아. 거기 지배인이었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시장 갔다 오면은 저녁에 한 여섯시 반 일곱 시 돼서. 거기 멋있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놀러 가다가 어찌다가 거기. 인제 저녁에 늦게니까 집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안 건드린다고, 그 뜻도 모르고 같이 자다보니까 뺏겨버렸어. 그래서 챙피해서 집에 못 들어갔지. 그 바람에. 그 집 나와 버렸지. 안 그러면, 그 집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식모야, 식모. 이제 큰 딸이 인제 애들, 인제 내가 인제 반찬 같은 거 인제 익숙이 됐다하면은 그쪽에 마포로 보낼라 그랬는가봐. 애, 애 보라고. 그쪽에 식모로 인자 큰 딸한테 보낼라고. [그럼 수양딸이라는 거는 입양을 해가지고 이모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고아원에. 호적도 안 옮겼더라고. 지금까지. 혼인신고 하니까 나 혼자만 돼있더라고. 한 일 년인가 그 집에 식모로 있었는데 호적도 안 옮겨 놨더라니깐. 안 그러면 호적에 올려놨으면 내가 찾아갔을 텐데 나 혼자로 되어 있더라고. 대구로. 보육원에 나 혼자. (2차 구술면접 - 2012. 10. 20)

구술자는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화재사고로 사망한 지배인의 죽음을 함께 이야기했다. 이는 "키 크고 잘생긴 오빤데 정(情)도 못 받"은 것에

42) 구술자가 사용하는 '아다다시'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아따라시(あたらしい)'를 뜻한다. 문맥상 '순결', '처녀'를 의미하는 것 같다.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그날 구술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창피함과 당황스러움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의 구술에서는 그날이 현재의 삶을 구성한 결정적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유독 이 부분의 구술에서만 '뺏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집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자는 이 모든 원인을 성폭행 가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 배경으로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 걔한테 놀러갔어도 이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 내가 걔한테 정 붙이고 왔다갔다 하면은 이런 일이, 이런 일도 안할지도 모르지. 같은 고아원에서 컸거든. 근데 그 집에 친척 되는 집으로 갔는가봐, 걔가. 걔는 성격이 말이 없고 도~도하거든, 애가. [그니까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애가 수양딸로 간 집에, 친척집으로 이모가 갔었으면] 아니, 내가 거기를 놀러갔으면 도망 안 나왔지. 아다다시(아따라시)도 안 뺏기고. 걔한테만 자주 놀러가면(놀러갔으면), 한가할 때. 같은 고아원에 있었으니깐. [아, 그 잘생긴 오빠 있는데 가서 안 놀고 그 친구 만나서 놀고 이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꺼라고?] 응... (생략) (2차 구술면접 - 2012. 10. 20)

3) 노동착취, 성착취 : "여인숙엔가 뭔가 이상한 방에 데리고 가더라고"

그렇게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걷고 걷다 보니 신촌이었다. 구술자는 우연히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Y대학교 구내식당에 취직하게 된다. 아줌마들과 다락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낮에는 식당일을 했다. 구술자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진짜 재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떠도는 열다섯 살의 여자아이는 성적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다. 함께 일하던 주방장이 "여인숙엔가 뭔가 이상한 방에 데리고 가" "거기서도 그러는 바람에" 또 도망 나오게 된다.

> (생략) 거기서 아다다시(아따라시) 뺏기는 바람에 나와 가지고 연세대학 걸어서, 걸어서 오니까 신촌 있는데, 그때는 막 버스비도 없고 돈도 없고 걸어서 신촌까지, 신대방동에서 신촌까지 걸어서 가니까 인자 Y대학 안에 군인식당(구내식당), 냄비 하나에 삼백 원인가 오... 그랬었어. 돈까스가 오백 원이고. 그때 당시에 진짜 재밌었어. 그때 또 주방장이 여인숙엔가 뭔가 이상한 방에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서도 그러는 바람에 또 도망 나와 가지고.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구술자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피부관리숍에서 약 3년간 “수건 빨고 시다로” 일한다. 그러나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임금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 구술자는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그 시간들을 착취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경험은 구술자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부관리숍에서 “시다”로 일한 것은 성매매 유입이전 구술자가 장기간 고용된 형태로 일한 유일한 노동경험이었고 당시에 익힌 지압, 피부마사지, 눈썹소지 등의 기술은 한동안 부업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구술면접 때 속이 불편한 나에게 지압을 해주면서 구술자가 보인 모습, 그리고 “코도 샤도(세도우)로” 높게 만들만큼 뛰어난 화장기술을 가졌다는 구술은 자신이 가진 특정한 기술로 인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참 피부관리. 거, 월급도 안 받고 마사지, 지압하는데. 수건 빨고 시다로 내~ 있다가 삼년인가 있으니까 육만 원 월급 주더라. [한 달에?] 어. 그 당시에. [대신에 먹고 재워준다고?] 어.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피부관리. 그, Y대학 인자 그만두고. 거기 또 내발로 찾아갔지. 그게 딱 길에 눈에 뜨이드라고. 길에 붙어있는 거. 신대방동인가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를, 거기 한 삼년인가 있었어. 지압 같은 거, 피부마사지 같은 거. 인자 완전히 이제 다~ 하니까 월급 육만 원, 그 당시에 육만 원 주더라고.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구술자는 수양딸로 있을 때 알게 된 친구를 찾아간다. 왜 집을 나오게 됐고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에게 터놓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의 친구는 구술자에게 버스안내양 자리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을 읽지도 못하고 돈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구술자가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일이었다. 특히 “따먹는다”며 성적으로 껄떡대는 버스기사들의 추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두고 나온 구술자는 전단지를 보고 용산에 있는 호프집에서 일을 시작한다. 구술자는 “호프집”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손님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일반음식점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구술자의 성과 노동을 착취하려고 안달하던 사람들과 달리 “이거

만 날라주고 손님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호프집 주인의 태도는 구술자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2. 청소년기(1976~1981년)

1) 인신매매됨 : "어쩌다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구술자가 호프집에서 일하는 동안 알게 된 한 여성은 구술자를 밥 사준다며 꼬여내 성매매 업소에 300만원을 받고 "팔아먹는다". 구술자는 자신이 팔려간 곳이 서울인지, 지방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냥 오류동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다고 했다. 구술자가 말하는 오류동은 광명시 오류동으로, "이런 식으로"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여러 성매매업소들이 모여 있는 집결지로 추정된다. 구술자가 자신이 '일'했던 지역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은 "(양손과 발을)이렇게 묶어가지고 방 안에 가둬두고 손님 오면은 끌러주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방문 잠가놓고" 일을 하게 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 만큼 감시가 심했기 때문이다. 구술자가 '일'하던 곳은 방석집 형태의 성매매 업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술내용에 따르면 2차는 없었지만 손님들이 오면 함께 술을 마시고 "빨가벗으라면 벗어줘야 되고 막, 술도 여기(가슴)다가 막 딸고, 젓에다가" 등의 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고 한다.

> [그러면 이모 용산에서 그 오류극장?] 오두동, 오두동. [오두동? 오두동 극장?] 어. [아직도 있어요? 오두동이라는게?] 버스, 버스가 있더만. 오류동. [오류동?] 어. [아~] 거기 버스가 있드만. [오류동이 용산인가?] 용산은 아닌 것 같애. 모르겠어. 그거만 머릿속에 있어. 거기서 너~무 학대 받아가지고. 거기서. [오류동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있었어. 그때. 술집~ 술집이었어. 유리관에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안 잊어먹지. [그러면 들어가면 이런 방에서 술 먹고 놀아요?] 어, 어. 놀다가 빨가벗으라면 벗어줘야 되고 막 그래. 술도 막 여기(가슴)다가 막 딸고 젓에다가 막 딸고. 겨울에 얼~마나 추워. 아휴〈한숨〉 (2차 구술면접 - 2012. 10. 20)

구술자는 오류동, 군산 개복동, 대명동, 수원, 성남, 청량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를 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학대가 심한 곳 중의

하나로 오류동을 꼽았다. 감금, 감시, 폭력이 가장 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유도 모르게 군산 대명동으로 팔려간다. 구술자가 처음으로 몸을 판 곳이 바로 군산 대명동이었다. 두려운 마음에 움츠리거나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담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설이 날아왔다.

> 그래서 군산으로 팔아 넘겼지. 그래가지고 군산에서도 군발이가 긴 밤을 인자 자자고 했는데 몸 안준다고 마담한테 얼~마나 맞았는데. 니가 아다다시(아따라시)냐 해가지고. 코피 터져가면서 맞았는데~ 몸은 되게 애꼈었거든. [그럼 첫날, 처음 손님 받은 날에는 어땠어요?] 어... 그때도 막 밑에가 막 띵띵 부었고 그랬었지. 몸은 잘 관리를, 잘했었거든, 내가. 몸은 잘 안 팔았었어. [어쩔 수 없었었잖아, 군산에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줘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는데? 안 그러면 맞어. "니가 아다다시(아따라시)냐" 그러면서 "몸도 안주냐"고. 많~이 맞았어, 나. 몸 안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주니까 군산에 대명동, 이런데 쫙~ 있는데. 거기 역전에는 옛날에 유명했거든. 지금은 불나가지고 안하잖아. 그, 그 쪽으로 또 팔아넘기는 거야. 또 한 번 도망갔거든. 도망가다가 이리에서 잽혔어. 흐흐흐 잽혀가지고 대명동 거기 넘겨넌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빚 다 까가지고 인자 목욕탕이고 뭐고 자유가 있었지. 그때 당시에도 삼천원에 한 번 해줬는데. 흐흐흐. (2차 구술면접 - 2012. 10. 20)

2) 성매매 착취 구조 : "철장에 갇힌 한 마리 짐승"

구술자는 군산 대명동 업소에서 도망을 시도하다 잡힌 이후로 대명동 내에서 이 업소, 저 업소로 팔려 다닌다. 이때 소개비는 영락없이 구술자의 빚에 얹어졌다. 업주들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구술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수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빚을 늘려갔고 그에 따라 감금과 감시도 더욱 심해져 갔다. 당시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구술자는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몰라 손님이 오면 콘돔 없이 성행위를 했고 두 차례나 임신을 하게 된다. 이때마다 업주는 구술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구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낙태수술을 종용했다. 낙태에 사용된 비용도 구술자의 몫으로 돌아갔을 것임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여러 차례 임신을 반복하자 그때서야 동료여성들을 통해 콘돔, 경구피임약 복용 등의 피임법을 배우게 된다. 군산 대명동은 2000년 화재로 감금되어 '일'하던 다섯 명의 성매매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다. 2층 숙소에서 외부로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샤타문"을 닫아놓아 "때려죽인대도 못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는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구술자의 증언에서도 감금과 감시는 물론, 미성년자를 고용한 뒤 단속에 걸려도 교묘한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당시의 영업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래서 군산에서 불나가지고 여자들 죽었잖아요. 왜냐면 이런데 바깥에서 잠가놓고 창문에 철창 해놓고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밖으로 못 도망간 거야. 그래서 다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법 생긴 거잖아. 여성단체도 생기고. 몰랐는데 '이렇게 갇혀서 감시당하면서 일하는 거였구나.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아, 그 당시에는 그랬어. 나도 못 빠져나가가지고 동수라는 새끼가 내 짐하고. 남자가 있어야 된다니깐. 안 그러면 그런데서 못 빠져나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어? 그, 대명동 골목에 딱 들어가면 첫 골목이야. 첫 집이야. 거기 인자, 이층, 삼층까지 있어. 계단도 위험하지만은 거기 때려죽인대도 샤타문 내려놓고 때려죽인대도 못 빠져 나와. 그렇게 악랄했었어. 화대도 많이 띠어먹고 계산도 잘 안 해주고. 계산은 내가 할 줄 모르니깐. 근데 하~두 당해가지고 삼만 원짜리 일곱 개 보면 십만 오천 원씩 그건 알어. 그 뒤에 넘어가면 난 몰라. 계산은 할 줄 몰라. 거기서 쭉 빠져나왔다니깐. [동수는 누군데요?] 그 동거했다는 놈. 때린 놈. [그 남자가 도와준 거예요?] 어~ 그 놈이 내 짐 다 빼가지고 방 구해 놓고 동거했었지. 안 그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니깐. [빚이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빚은 없었지. 없는데도 그렇게 학대를 받아~ 빚은 벌써 다 까고 인자 빚은 거기서 자유 있게 나 데리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켰는거야, 업주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랬었어, 옛날에. [같은 군산에서?] 소개비 받아 처먹고 막 그래. 옛날에 그랬었어. (2차 구술면접 - 2012. 10. 20)

대명동에서 수년을 보내면서 어렵게 빚을 모두 갚았지만 감금과 감시는 여전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몸은 녹초가 되었고 목욕탕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은 "철장에 갇힌 한 마리 짐승[43]"과도 같은 삶이었다. 구술자는 손님으로 만난 남성(기둥서방)의 도움으로 업소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군산 일대에 집을 얻고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나 동거 남성의 착취와 폭력은 업소에서의 생활과 비슷했

43) 2000년 군산 개복동 화재로 사망한 뒤 발견된 성매매여성의 일기 제목 "철장 갇힌 나는 한 마리 짐승"에서 인용하였다.

다. 기둥서방의 역할을 하고 있던 구술자의 동거 남성은 도박을 하면서 구술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았다. 업소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구술자의 기대는 무너졌고 동거 남성의 갈취는 구술자를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로 몰아넣었다. 빚은 없었지만 동거 남성에게 돈을 마련해 주어야 했고 동거 남성의 아들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의 길이 없었다. 구술자는 군산에서 '여관발이[44]'로 '일'하며 실질적인 가장으로 동거 남성과의 생활을 영위해 가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살림이랑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을 결심한다. 당시 구술자의 나이는 스물일곱 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생략) [동거 여러 번 하셨었어요?] 아, 그럼~〈웃으며〉 [군산에서도 하고, 또?] 혼인신고도 안한다고 얼마나 팼는지 몰라. [남자들이?] 응. 죽~어도 안했었거든. [왜요?] 혼인신고 하다가 죽도 밥도, 내 인생 다 가게?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해주지. 막 두드려 패고 지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워. 오죽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나더러 도망가라 하더라니까~ 이런 애 키우지 말고 그냥, 그때 당시에 내 나이가 스물일곱인가, 여섯인가 그때.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3. 성년기(1982~2001년)

1) 빚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됨 : "근데 여관발이는 무서워"

구술자는 동거 남성을 피해 전라도 부안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관발이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 이때가 되어서야 구술자에게 자유가 생겼다. 20대 후반이었던 구술자에게는 따르는 손님이 많아 화대를 업주와 반반씩 나눠가져도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다. 이제까지 돈 한번 만져보지 못하다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구술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여인숙이라도 하나 차려 아가씨로서의 삶을 중단하고 싶었다고 한다.

> 군산에서는 여관발이 잘 됐으니까. 가면은 다 내꺼니까. 주인하고 반반 하고 얽매는 거 없어. 그러고 거의 여인숙, 내가 저녁에 일 나가면 여인숙에 거기 대기실이

44) '여관발이'는 여관에서의 성매매를 일컫는 성매매 관련 은어이다. 성매매여성들이 여관에 고용되어 일하기도 하고 손님의 연락을 받고 여관으로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있어. 자기네 손님 잘 받아 주면은 거기서는 반반씩이지, 여관이고 뭐고 나가는 거는 반반씩 아니야. 다 내꺼야. 근데 여관발이는 무서워. 내 귀걸이 막 큰 거 18K고 뭐고 다 그~렇게 애먹이드만은 다 빼가고 그래. 그래서 나 귀걸이 같은 거 안해. 그래서 악사리 같은 거. 옛날에는 금목걸이 같은 거 있었거든. 나도 잘 나갔었거든.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그러나 여관발이로서의 삶도 녹녹치 않았다. 업소에서는 업주와 삼촌들의 철저한 관리 하에 영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님과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업주나 삼촌들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었다. 하지만 여관발이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여성들이 방문하는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구술자 혼자 감내해야 했다. 때로는 난폭한 손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오히려 구술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손님들도 있었다. 따라서 구술자는 늘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주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오백만원을 사기 당한다. 고아원에서 자라 식당일과 피부관리숍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구술자는 거의 보수 없이 일했다. 처음으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모으며 꿈도 함께 키워가고 있었다. 그렇기에 업주가 가져간 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남자친구 사겨본 적은] 없지~ 맨날 이 생활 밖에 더 있어. 맨날 술집에 팔려가고. 여관발이나 뛰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기도 많이 당했지. 여인숙 할라고 돈 모아놔논거 고~대로, 전라도년한테 다 당하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안에, 부안에 있을, 을, 을 [부안?] 어. 부안이 여관발이거든. 여인숙발인데. 오백만원 차용증 써준다고. 금방 빌려 달, 전라도고. 나 이 돈, 그때 당시만 해도 뭔 맛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 인자 차용증을 언니가 인자 주인이니까 믿고 꿔줬더만은 도망가 버렸어.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업주가 도망가고 오고갈 데가 없어진 구술자는 수원으로 오게 된다. 구술자는 "팔아 넘겨졌다"는 표현을 썼지만 빚이 없던 상태였고 업주에 의해 오게 된 것도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소개로 오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구술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집결지 인근에서 호객행위를 한 뒤 구술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했다. 이때 구술자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다. 수원에서 '일'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일까. 수원에서의 경험은 거의 구술되지 않았다. 구술자는

이후 성남으로 지역을 옮겨 여관발이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 계속해서 지역을 옮기게 된 이유는 구술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는거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나의 질문에 "또 나갔다 오는 거지"라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손님이 없거나 단속이 심할 경우 더 나은 곳으로 지역을 옮기곤 했던 것 같다. 구술자는 성남 중동 집결지 인근 여인숙에 소속되어 주인이 손님을 연결해주면 화대를 반반씩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일'했고 "이리저리 막 바쁘게" 다닐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고 한다. 많은 지역을 오고간 탓인지 구술자는 정확한 시기와 나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남 지역에 대해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랜 시간 성남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구술자는 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나의 질문에 의해 잠시 머뭇거린 뒤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와 남편한테도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크게 구술자를 비난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어떤 연유에선지 구술자는 유난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 당시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여성들은 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 수감되는 경우에는 십오일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한 뒤 가족에게 인계되어 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술자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퇴소하지 못하고 취업교육을 선택한 뒤 일 년 동안 수감되어 있어다고 한다. 구술자는 다른 직업을 구하는 조건으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구술자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일 년 동안이나 수용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억울함, 아니면 수용소에서 흔히 발생했던 성폭력, 동성애 등[45] 생각하고 싶은 않은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단속 걸리면...] 거기? 논산에 있을 때, 거기 갔다. 부모가 없으니까 오래 있다가 왔지. [응... 왜요? 부모 없으면 더 오래 있어요?] 부모가 있어야 부모가 빼주지.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취업으로 나왔

45) 성매매여성들의 수용소 경험에 대해서는 원미혜(2010)의 연구(pp. 121-127)를 참고하기 바란다.

잖아. 미용으로. [얼마정도 사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한... 우리 신랑도 몰라, 이 언니도 모르는데.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때가 부모... 없으니까. 취업으로 나갔는데 일 년 있다가. [일 년 정도 지내다가?] 응. 면회 올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취업으로 해가지고 나갔지. 공장이면 공장, 미용이면 미용, 자수면 자수. [이모 , 미용하실 수 있겠네요?] 미용, 머리는 못하지. 마사지는 하는데. 지압 같은 거. [아 거기서 있다가 미용이면 미용, 재봉이면 재봉 배우다가 딱 어디 취직한다고 딱 정해지면 내보내 줘요?] 쯤 있다가 자격증 따면 내보내줘. 안 그러면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면 취업으로 내보내주고. 옛날에는 거기서 그랬어. 형제간에 면회 없으면 못 나와.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4. 장년기(2002년~현재)

1) 안정과 불안 사이 : “혼인신고만 됐지 같이는 잘 안살아”

구술자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를 경험한 뒤 S집결지로 오게 된다. 구술자가 S집결지에서 처음 ‘일’한 곳은 유리방 골목 바로 앞에 있는 업소로, 4~6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요새는 한 업주가 여러 명의 여성들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 업주 밑에 적게는 세 명에서 많게는 여섯, 일곱 명까지 여성들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내가 처음 구술자를 만나게 된 곳도 바로 이곳이다. 다른 여성들은 대부분 30~40대였을 무렵 구술자는 나이가 많아 보여 당시에도 상담원들의 눈에 들어왔던 여성이다. 구술자는 이때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하고 바로 건너편 쪽방촌에 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약 8년 전의 일이다. 구술자는 오랜 세월 성매매 ‘일’에 종사하면서 기둥서방으로부터 금전적, 성적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이 가는 남성이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들과 달랐다. 이것이 구술자가 손님으로 만난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하고 함께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당시에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구술자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 남편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고 집에 누워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한 달에 53~54만원(2인가구 기준)의 생계비

를 지원받고 있지만 20만원 방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제외하면 전혀 여유가 없다. 이것이 현재 구술자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

> [지금 같이 사시는 분 있으시죠? 남편분. 결혼 하신 거예요?] 결혼은 안하고 혼인신고. 결혼할 돈이가 어디가 있어. 혼인신고만 했지. 결혼할 돈이 어디가 있어. [그분은 어떻게, 언제 만나신 거예요?] 〈목소리 작게〉 이런데서. [아... 여기서 손님으로?] 어, 어. 이런데서 만났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혼인신고만 됐지 같이는 잘 안살아. 연애를 못하니까. 연애를 잘, 완전히. 저 사람도 다리가, 다리가 불편한데 돈이 있어야 수술을 해주지.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나도 돈도 모아논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있지 뭐. [나이가?] 육십, 육십여섯. [아... 많으시구나. 이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1년생. [정확한 거는 아니예요?] 진짜 나이는 모르지. [고아원에서 신고한 거?] 근데 신분증이 그렇게 돼 있잖아. 〈눈물을 흘리며 옷으로 눈물을 훔침〉 [왜 눈물 흘리세요?] 괜히 서러워서 그렇지, 뭐. 〈잠시 침묵〉 [그러면 남편분 이제 식사랑 이런 것도 이모가 다 해드리고 생활비도 이모가 다 벌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생활비 같은 거는 인제 동사무소에서 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자기가 밥 알아서 먹으니까.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구술자가 '일'하던 업소는 2층에 있는데 그곳은 나도 오르내리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가파르다. 구술자는 몇 년 전 '일'하던 도중 계단에서 굴러 팔 뒤꿈치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한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네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아직도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불편한 상황이다. 구술자는 피부관리숍과 수용소에서 배운 지압기술로 간간이 용돈 벌이를 해왔다. 손님이 너무 없거나 돈이 궁할 때는 유리방 아가씨들이나 업주의 부탁을 받아 지압을 해주면서 담뱃값이라도 벌어왔다. 그런데 팔을 다친 이후로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가끔... 꽁치고 돈 없을 때 지압해주러 돈 벌러 가끔 다녀. [지압해주러?] 어. 봉고차에 앉아 있잖아. 지압주면은 만원 줘. 담뱃값이라도 벌어야지, 흐흐흐〈웃음〉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담뱃값도 없는데. [지압은 그때 신대방동에서 배운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눈썹소지 같은 거, 손톱소지 같은 거 잘~해.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거는 인자 (피부관리숍에서)우리 서비스거든. 눈썹소지, 손톱소지 해주는 거는 서비스야.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2) 업주에 의해 소모되는 일상 : “옛날에는 진짜 학대 많이 받았잖아”

이후 구술자는 쪽방촌이라 불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일’을 했다. 업주는 방을 여러 개 구해두고 아가씨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대신 화대의 반을 떼어가고 호객행위로 손님을 몰고 오는 역할을 도와주곤 했다. 구술자의 업주는 70대 여성이었는데 구술자가 치질 때문에 대변을 볼 때마다 “피를 덩어리로 쏟는데도” 병원 한 번 데려가지 않고 악착같이 ‘일’만 시켰다. 그리고는 어수룩한 구술자를 속여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 팔백만원을 거짓으로 꾀어 달아났다. 구술자는 그곳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한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화대를 갈취하는 업주의 모습은 한 눈에 봐도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술자가 7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매개로 작동되는 권력의 힘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 특히 성매매 구조 안에서는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아니지. 요 앞에 길 건너 미정(가명) 언니 있죠? 그 집이, 거기 있었거든. 처음에. 그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 돈, 엄청나게 고생, 〈격양되어〉치질이 이렇게 덩어리가 졌는데도 일을 시키는 거야. 대변만 보면 피가 툭툭툭툭 쏟아지는데. 그때는 병원도 안 데려가고. 이거를 종로외과에서 고쳤거든. 거기서 일하다가 여기로 왔지. 옛날에는 진짜 학대 많이 받았잖아, 나. 오죽하면 궁뎅이 치질까지 생겨가지고 덩어리,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일시키는 거 봐봐. 그때 고생 많이 했어, 나. (2차 구술면접 - 2012. 10. 20)

3) 경제난이 가져온 위기 : “요즘은 너무 힘들어, 벌기가”

구술자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다. 다른 여성들은 해가 질 무렵에 나와 영업을 시작하는데 구술자는 오전 열시쯤에 나와 다른 여성들이 나올 때쯤엔 영업을 접고 들어간다. 구술자에게 이것은 하나의 영업 전략이다. 저녁이 되면 젊은 여성들에게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 ‘일’을 해야 그나마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전략으로 구술자는 많지는 않아도 방세 20만원과 생활비로 쓸 정도의 수입은 벌어들였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손님이 급격히 감소하여 하루 종일 나와 있어도 "공치고"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다. 구술자와 첫 번째 인터뷰를 하던 2012년 10월 5일은 추석이 지난 직후였다. 성매매 시장에서 명절은 대목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대목을 잡기 위해 눈을 더 부릅뜨고 '일' 한다. 그러나 구술자의 구술에 따르면 이번 명절은 평소와 달랐다. 손님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겨우 하나 잡힌 손님은 "실컷 가꼬 놀고 유방은 있는 대로 가지고 놀면서 실컷 쳐 놀다가" 사정을 못했다며 돈을 내놓으라는 진상이었기 때문이다.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리고 벌금 30만원이 떨어졌다. 요즘은 하루에 만원 벌기도 힘든데 그 돈을 어떻게 갚을까, 구술자는 근심이 많다.

>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도 벌금내고 나도 벌금내고. [아...] 그거 에어컨 고치는 거 그 회산가봐. 회사 가서 짤렸겠지, 인자. 그런데 다녀가꼬. 그 사람도 장애인이고 흐흐흐〈웃음〉 나도 장애인이고. 오죽하면은 지 쌌던 물을 갔다가 경찰에 가져갔다니까. 이게 내가 돈을 받아다 뺏어갔다고 하잖아. 지는 곧 죽어도 안 놀았다고 하길래. 이게 해먹고 다니는 거야, 사기. 전국적으로 해먹는 거야, 그놈이. 순경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이게 이런 여자들이 피해를 보니까는 아줌마도 고생하지만은 이 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가 쌌는 거를 가져갔다니까. 콘돔 끼고. [가지고 계셨어요, 다행히?] 응, 안 버리고, 마침.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홀로 낮 영업을 하면서 생존전략을 구사한 것처럼 손님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구술자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일인 구술자는 이제 "관상쟁이"가 다 되었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사람의 인상을 보고 가격 협상을 하면서 손님의 태도를 점검한다. 혹시라도 손님 때문에 골 썩을 게 예상되면 일부러 화대를 높게 불러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든다.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협상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었다. 예를 들어 돈을 물어달라거나 욕을 하는 등 난폭하게 구는 손님들에게는 이러쿵저러쿵 실랑이를 하는 대신 조용히 돈을 물어주면 된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고생해도 내가

봉사했다, 딴 사람이랑 잤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돔 사용에 있어서는 협상도, 포기도 불가능하다. 유독 콘돔 사용을 원치 않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콘돔 없이 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젊은 여성들에 비해 임신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일까. 콘돔 사용에 있어서는 많은 여지를 열어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이 생활"이 더럽게 느껴진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 [그러면, 콘돔은 항상 사용하시는 거죠?] 손님들이 사용 잘 안할라 그래. 사용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대줄 때도 많아. 콘돔 끼면은 나간다고 그래. 돈 이만 원 주고 안 낄라고. 안 그러면 돈 다 내달라는데 어떡해. 안 끼고도 해줘야지. 그래서 더러워서, 이 생활, 이 장사야.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첫 번째 인터뷰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해 달라는 나의 말에 구술자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여기는 힘들어요"였다. 어떨 때는 백 원짜리 몇 개가 없어 콜라 하나 사먹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한다.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사는 구술자에게 하루 담배 한 갑 살 이천 원이 없다. 구술자가 사는 2층 쪽방에는 구술자보다 나이가 열 살 가량 많은 여성 둘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도 성매매 또는 펨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 분은 비만으로 움직임이 불편하고 다른 한 분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구술자가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새벽이 되면 구술자는 인근 시장에 나간다. 그리고 상인들이 상해서 버린 야채 등을 주어와 식사 준비를 한다. 어떨 때는 젊은 아가씨들이 시켜먹고 남긴 반찬으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 아임에프 보다도 더 하네, 더해. 아이엠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했었어. 아이엠프에도 하루에 칠만 원, 팔만 원씩 벌었었거든. 나 여기 지희(가명)네 있을 때도 그래. 못해도 하루에 이십만 원씩 막 올렸었거든. 걔하고도 이렇게 반반씩 했었어도 그랬어. 근데 요즘 같으면 아이엠프 때보다도 더 심해. 없어, 지금. 담배 값도 없어가지고 옆에, 우리 언니한테 그 뭐, 뭐, 뭐, 울라고 막 그러는데. 어떨 때는 담배 값도, 콜라 같은 거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십 원짜리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달랑달랑 떨어진 거, 〈웃음 띤 목소리로〉 담배 미리 하나 사논 거야. 돈 십~원이 없으니까. (1차 구술면접 - 2012. 10. 5)

구술자는 11월에 다섯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 수술이 잘못되어 손가락의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감각을 재생시키는 수술을 하는 것이다. 다행히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밀리게 될 방세 때문에 걱정이 많다. 10월 20일, 2차 구술면접 당시에도 구술자는 방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자 구술자는 집주인에게 방세 20만원을 내는 대신 화대의 반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구술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구술자는 밀리게 될 방세 걱정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 달에 받게 되는 돈이 20만원에 못 미치자 구술자에게 욕을 해대며 방값을 내놓으라고 구박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2만원씩 갚아야 할 일수 도장을 못 받은 지가 언젠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 오늘 대목을 못 봤어, 오늘은. 지금도 이렇게 불경긴데. 개시하나도. 어제, 그게 꽁쳐노니까. 〈목소리 낮추며〉주인한테도 욕먹지. 내가 장사 안하는 것도 아니고. 길에, 공장 사장이 그러잖아. "옥희야 손님이 너무 안 다닌다" 얼마나 옆에 안쓰러우니까 고장사람들이. "옥희야 너무 손님이 없다, 안 다닌다" 이렇게 남들이 걱정을 해준다니까, 걱정을. 허〈한숨〉〈침묵〉(1차 구술면접 - 2012. 10. 5)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에서도 구술자는 다른 일을 알아보지 않는다. 다른 성매매여성들은 다른 일과 비교해 성매매 '일'이 수입이 좀 낫기 때문에 다른 일을 사양한다. 그렇지만 구술자는 조금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손의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접시를 닦는 식당 일도 어렵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까봐 겁이 난다는 것이다. 체격이 왜소하고 말이 어눌한 구술자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구술자를 함부로 대한다. 구술자는 이를 "텃세"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다가올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다른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일과 성매매 '일'을 비교하는 대신 구술자는 다른 지역과 S집결지를 비교한다.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구술자는 S집결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는 듯했다. 구술자에게 S집결지는 그냥 직장의 개념일 뿐이다. 복지가

괜찮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와서 살아볼 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우선이다.

제 4 장 생애사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개별경험 속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첫 번째는 출신 가족 배경이다. 모두 빈곤층에 속해 있었다. 특히 한쪽 부모의 부재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그 나이에 수행하기 버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했다. 당연히 충분한 돌봄과 보호도 부재했다. '딸'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수행한 젠더 역할은 이후 성별화된 노동 상황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된 배경이 된다. 두 번째는 성별화된 노동경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노동 이력을 보면, 식모살이(변옥희), 애기담살이(이우주), 식당노동(김수연), 버스안내양(이우주), 공장노동(김수미) 등 주로 저임금, 장시간의 성별화된 노동들이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얽혀 구성된 노동경험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폭력의 경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회피 또는 무시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고통에서 멀어지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여성 빈곤가장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일'을 지속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이다. 이혼, 사별, 또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들은 성매매 '일'을 선택했다.

본 장에서는 시간축으로 재구성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개별 체험자의 생애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가족, 일, 나이듦과 생애전망이라는 주제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애사 분석〉은 수집된 구술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연구참여자들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분류된 내용 중에서 중심적 주제를 도출하여 4장을 완성했다. 3장은 이야기된 생애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4장은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살아온 생애를 살피면서 3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이다.

제1절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와 가족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이야기에서 '가족'과 '빈곤'은 중요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연구참여자 김수미(52세)와 이우주(63세)의 서사는 출신가족 배경에서 시작되어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가족적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해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해결될/나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어제 겪은 일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당시의 트라우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연구참여자들은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생애사건을 경험한 뒤 가족 유대라고 할 만한 기반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현재, 쪽방촌과 집결지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새롭게 삶의 의미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자기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데 가족이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자기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부여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가족.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그 가족의 의미를 동료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발견하고 있기에 성매매 공간을 쉽게 떠날 수 없다. 1절에서는 출신가족과 생식가족, 그리고 새로운 가족 형태인 집결지 내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과 해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애정과 지원이 부재한 출신가족(family of orientation)[46]

1950~60대에 출생하여 급격한 산업화 시기의 혼란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연구참여자들은 몇 가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출신가족의 배경이다.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정서적 결핍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잠재적 발단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절대적 빈곤 속에서 생활했다. "우물가에 가서" "물 먹고" 배를 채워야할 만큼 빈곤한 삶을 산 연구참여자들은 이른 시기에 병이나 사고로 준비 없

46) 개인이 태어난 가족으로 방위가족, 지향가족, 원가족이라고도 한다.

이 부모까지 잃게 되면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기존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김수연(64세)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계전선에 뛰어든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이우주(63세)는 집안에서 가장 어린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생활 속에서 정서적 돌봄이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고 쓰러져 잠들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결핍과 부재를 느낄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서 출신가족에 대한 한탄이나 넋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무사히 그 시간을 견뎌 "지금 이렇게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하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말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설움 섞인 한탄으로 들리는 것일까.

> 어렸을 때 배고프면, 정말 우물가에 가서, 물, 물 먹고 배도 채울 때 있었죠. 그래서, 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슨 설움, 무슨 설움, 그래도 배고픈 설움이 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그럼, 어렸을 때 가정환경은...] 불우했지 뭐~ 그니까 엄마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고구마를 안 먹어요. 내가 요즘에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그걸 깨달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일어나면 시~커면 바가지 우에다가 고구마가 항상 쪄있었어. 엄마가 배고프니까 고구마 먹으라고 쪄준 것 같애. 그래(서) 고구마 안 먹어, 지금. 하하하〈웃음〉 내가 질렸나봐. 고구마 안 먹어. (김수연 1차 구술면접)

곤궁한 가정환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학문적 욕망은 실현되기 힘들었고 결국 자발 또는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교육기회에 있어서 아들, 딸 차별이 심각하던 당시에 아들은 '가족의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고 딸은 가사업무를 보조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으로 방출되었다.[47] 이우주(63세)는 우등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우고 싶은데 욕망"이

47) "성, 연령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여성의 경우 14~19세 미만의 미성년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진학 인구 확대와 함께 같은 연령의 취업자 구성비가 대조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개별 가족의 생계가 압박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노동시장으로 방출되는 대상이 여성이란 점을 드러내 준다(김원, 2005: 188)."

있었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남자들도 진학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기지배가” 중학교를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김수미(52세)는 본인의 결단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친구도 없고” 공부도 “재미없어서”였다. 김수미의 형제자매가 모두 고등학교까지 마쳤다는 것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김수미의 비진학은 자발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김수미가 진학을 포기한 대가는 매우 컸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 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지도, 학업을 통해 집안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도 않는 김수미에 대한 가족들의 배제와 무시는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김수미는 일하는 부모와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들을 대신해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 (아버지가) 여기까지 풍 와가지고... 다 내가, 그냥 내가 엄마랑 둘이 했죠. 오빠는 안했어. 나만했어. (중략) 수염 깎아주고 내가 모르고 내가 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진데 누가 해? 막내가 해? 오빠가 해? (중략) 지겨워, 지겨워. 말도 못해, 나는. 보면은~ 아가씨들은 엄마한테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참 말도 못해 나도... 그냥... 열아홉 살에 일하고 공장에서 밥 해주고, 밥하고... 말도 못해, 나는. 말도 못해. (중략) 나만 시켜. 아휴 징그럽게 일을 많이 했어. 개도 있지, 뭐 있지. (중략) 나는 일 많이 했어, 나는... 놀러도 못 갔어. (김수미 2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의 진학 포기는 이후 낮은 학력과 기술력의 부재로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적·사회적 자원의 부재로 연결되어 물질적·비물질적 빈곤의 원인이 된다.[48]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그 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이우주 구술중)” 지난했던 삶을 뭉뚱그려 해석해 버린다. 누구의 탓에 의해 당한 특별히 억울한 경험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전

48) 이 연구에서는 빈곤의 개념을 ‘소득의 결핍’이라는 경제적 차원과 교육, 근로,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 즉 사회적 배제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빈곤과 젠더의 관계를 다룬 정미숙(2007)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략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경험한 빈곤과 억압의 상황들을 생생히 기억하며 한탄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 국민학교는 우리 집에서 한 오 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도 국민학교라도 딴 애들은 학교를 안 갈려고 막 발버둥 치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에 소질이 있었는지 우등생으로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그래도 국민학교라도 졸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참... 음... 배우고 싶은데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갈 길이 없잖아. 중학교도 없지요~ 중학교도 갈려면 한 오십리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오십리 밖에다 하려면 유학을 갈려는 식으로 해야 됐는데... 그리고 가정 형편도, 옛날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유학을 보낼 수도 없었고. 정말 우리 동네서는 중학교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남자들도 그러고 살았었어요.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랐잖아~ 옛날에 대구에서, 대구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수양딸로 갔잖아. [어디요?] 수양딸. 거기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보내준다 했는데 옛날에는 다~ 식모로 일했잖아. (변옥희 1차 구술면접)

고립된 환경, 사회적 관계의 부재, 반복되는 생활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을까? 욕망을 인간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사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인 목표 없이 가족의 생계 및 남자 형제들의 교육을 위해 집을 떠난다. 연구참여자들의 노동에 대한 서사를 보면 개별 노동자로서의 경험보다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우선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서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이나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집은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 오빠가 다섯이예요. 만나면 싸우는 거야. 만날. 칼 가지고 와서 찔러. 그거 보니까 '나가야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가버렸어. 싫어서, 오빠 싫어서, 만날 싸우니까 나와 버렸어. 싫어. 집도 싫고. (김수미 1차 구술면접)

계급적·젠더적 개발경제체제 하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아는 집'에서 식모로 일하거나(이우주) 제조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하고(김수미, 김수연) 그나마 글이라도 읽고 쓸 줄 알면 버스안내양으로 일하는 게(변옥희, 이우주) 선택의 전부였다. 가족의 지원 없이 자원이라고는 달랑 '몸'이 전부인 연구참여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은 다른 어떤 노동 조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노동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술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반성매매 활동가인 나의 위치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이 성매매 경험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재단하였거나, 당시의 노동을 결혼으로 가는 과정 중의 단기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과 비교해 특별히 나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음... 옛날에는 병뚜껑, 따는 공장이 있어. 그거 공장에 들어가서 [병따개?] 응. 그거 들어가서 일 좀 하다가, 또 나중에는 저~ 진로회사 옆에... 거기에... 또 실 짜는 거 있어, 실. 실 짜면 그거, 옷 나오면 실... 가위로 다 짤라야 돼. 그거 하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내가 열아홉에 결혼을 했나봐.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전환점(turning point moment) 중 많은 사건들이 출신가족 안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출신가족 배경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일과 삶을 해석할 때 출신가족 내에서의 경험들이 기반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족 내에서의 성별화된 역할규범은 연구참여자들의 역할수행을 거쳐 정상화되었고 딸에서 아내/어머니로 역할이 이동했을 뿐 출신가족에서의 경험은 생식가족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2. 정상성 획득으로서의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49]

지긋지긋한 출신가족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찾고자 한 연구참여

49) 자기가 새로 형성한 가족으로 생산가족이라고도 한다.

자들의 욕망은 '괜찮은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어진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이 연구참여자들의 미래는 가족이라는 선택지 속에서 그려졌다. 하지만 남성 생계부양자의 '가족임금(family wage)'을 실현시킬 수 없는 조건의 빈곤한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가족 보살핌과 생계 보조라는 이중 부담에 놓이게 되었다(배은경, 2009: 46-48).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시킬 수 없었다. '사장은 사장 자식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사귄다'는 말처럼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계급적 경계선이 엄격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김원, 2005: 739). 이우주는 성적으로 껄떡대는 수많은 남자들과 달리 같이 밤을 보내면서도 '손만 잡고' 자는 남편의 모습에 신뢰를 느껴 결혼을 결심했고 변옥희는 남편이 업주나 기둥서방처럼 자신을 거짓말로 꾀어 돈을 뜯어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한다. 김수미는 탈성매매 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신세지는 것이 미안해 어머니가 소개해 준 남자와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을 일종의 '빈곤의 탈출구' 또는 '자율적 독립의 기회'로 전망했던 연구참여자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을 대신해 '즉각적 생계보조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이혼, 사별 등의 경험은 경제적 · 정서적 결핍으로 이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기억을 통째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그래서 일까? 자신을 성적으로 주체적이라고 설명한 이우주를 제외하고는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에서 연애와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일하기가 싫더라고. 그때만 해도 나이가, 시집가고 싶고, 나이가 어린데도 시집가고 싶고 고생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남의 회사 밑에서 간섭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옳다, 모르겠다', 없어도 둘이,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우주 3차 구술면접)

> 그 분이 참, 지금 생각을 하면은, 없이는 살았지만 굉장히 착했는 것 같아요. 남의 남자들은, 딴 남자들은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육체적인 것을 원했었어요. 근데, 애기 아버지는 그래도 인연이 될려고 애기를 낳고 이렇게 살림을 할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 면회를 가면, 같은 방에서 자도,〈잠시 쉬었다가〉 어, 자기가 지켜줄려 그랬는지 뭐 오빠들한테 허락을 받을 때까지라든지,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여자를 그래도 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건들지를 안했어요. 한 방에서 자기는 했어도. 그것만으로도 참 착했어요. (이우주

1차 구술면접)

얼굴은 별론데... 이 나한테 막 돈 해가꼬 오라 어쩌라 협박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거짓말도 안 시키기고 착실하니까.....(생략) (변옥희 1차 구술면접)

남편의 경제적 상황, 가족배경, 그리고 직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짧았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소소한 갈등은 폭언, 구타, 강간, 의처증 등의 폭력으로 일상화되었다(김수미, 김수연, 이우주). 연구참여자들은 '누구의 아내'로서 남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었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연구참여자들마저 가족 내 성차별/아내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정희진, 2000: 36-46). 폭력의 시작은 다양했다. 혼수를 부족하게 해왔다거나(김수미) 바람피운 사실(외도)이 발각되면서(이우주) 시작되기도 했고 이유 없이(김수연) 술만 먹으면 폭력을 일삼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저했다. 혼자 사는 연구참여자 김수미가 성적으로 치근대는 남자들을 향해 "왜 그래 아저씨! 나 신랑 있어"라고 대응하거나 "따 먹을까봐" 무서워서 혼자서는 잘 가지도 못하는 찜질방도 "남편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구술에서 짐작되듯이 폭력적인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이 다른 사회적 역할수행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하는 성별보상체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아내/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배은경, 2009).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데다 이미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경험한 뒤였기 때문에 가족을 벗어나 다른 정체성을 획득하여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나갈 수도, 두고 나갈 수도 없는 모성규범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우주).

여자로서 인생은 해야지. 이미 인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인생이) 정해졌으니까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변옥희 1차 구술면접)

내가 결혼생활 할 때도 그래. 내가 희생하면은 정말 모든 게 해결되겠지. 또 얘네,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도 참자. 나 하나 가지고 느그 남자들 둘(남편과 아들)이 행복하다면 무슨 내가 산 의미가 있잖아. (이우주 3차 구술면접)

[이모가 파워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힘 말고, 이모가 돈 벌어다 집 먹여 살리고 그 남자는 놀고먹고 하니까. 근데도 그걸(젠더폭력)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남자가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몸을 달라고 할 때? [네] 힘보다도, 저기 하잖아요,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어? 그래도 그거(섹스)를 줘버리면 조용하니깐. (생략) (이우주 2차 구술면접)

'참을만한 폭력의 수준(정희진, 2000: 88)'을 넘어섰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이우주, 김수미).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이라는 결단을 통해 가까스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위까지 '아내'에서 '이혼녀'로 내려가고 나니 여성빈곤가장으로서의 삶을 피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 중 많은 부분이 생식가족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기억, 경험, 감정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20~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당시의 답답하고 암담한, 그리고 치욕적인 순간들만 촘촘하고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이혼이나 사별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난 지 오래된 김수미과 김수연에 비해 최근(2011년)에 이혼한 이우주는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얘기만 나와도 "머리끝이 슨다"는 이우주는 구술면접 내내 고통스러워하면서 치유되지 않은 경험들을 끄집어냈다.

(생략) 한 달, 보름 살고 나와 버렸어. 찝게 있죠? 보지 찢는다고... 찢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를 작게 낮추며〉 보지 찢는다고... 찝게, 찝게 있죠? 그걸로 보지 찢는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죠. "오빠 이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텔레비전 쓴 거 가지고 왔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나보고 새 거 가지고 오라고. (김수미 1차 구술면접)

폭력을 써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했었어요. [실제로 때려요?] 예〈강조〉, 예. 정말 이가 부러져가지고, 폭력을 해서, 이가 부러져가지고 정말 이 해넣는데 백 얼마를 손해를 보고, 그런 남자하고 십삼년을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아침저녁으로 섹스를 달라 그래, 그 남자가. 그니까 환자잖아요. 어~디 가정 남자가 아침저녁으로. (중략) 나도 한번 실패를,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남자(두 번째 남편)하고 끝까지 살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견디기가 못해서... (이우주 1차 구술면접)

이혼 후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성매매 공간을 찾는다.[50] 이우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친구의 삶을 통해 성매매가 한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김수미는 인신매매로 약 10년을 성매매 구조 안에서 착취당한 뒤 겨우 도망 나온 뒤였는데도 '이혼녀'라는 낙인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으로 집결지에서의 삶을 선택한다. 갈 곳 없는 여성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 다른 자원 없이 '몸'만 가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매혹적인 조건이었다. 반면 김수연은 보모로 일하는 곳의 집주인이 성매매여성임을 알게 되면서 "저렇게 벌면 새끼들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당시에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몸 팔아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각 경험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60대인 김수연과 이우주는 성매매 유입직전까지 "남의 남자하고 자는" "그거(삼천원) 받고 뭐 하러" 하는지 모르는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를 '일'로써 선택할 수 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성매매 '일'에 대한 정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이었다.

> 근데 나도 정~말 이 동네가 너무 여기서, 발 딛기 전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아가씨 장사를 하는데, 그 사이가 내가 한 번씩 놀러왔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친구가 있으니까. 그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남자하고 잔다고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요, 저는 그 아이들하고 밥도 안 먹구요, 그 수저로 밥도 안 먹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깔끔했었어요.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나도 여기 있는 다니까 막 뭐라 그래, 안된다고. "알잖아~" 나도 애들 둘인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 가꼬는 있게 됐어요. 한 며칠 있다가 와가꼬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아가씨 돈이 삼천원씩 했어. 삼천원 하면은 주인하고 나하고 반씩 노나

50) 다시함께센터는 2009~2012년도의 상담사례분석을 통해 다시함께센터에서 지원받은 성매매여성들 중 50%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다시함께센터의 보고 내용은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유입 전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는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가~ (중략) 처음에는, 처음 손님 받을 때는 많이 울지... 막 눈물 주루룩 흘르고, 벌써 그러면 손님이 알아. "아줌마 여기 첨 왔어?" "예" 그러냐고 그러고 가고. 며칠은 그랬어. 울면서 그랬어. (중략) 이런 데가 아주 나~〈강조〉쁘다고 사람들은 인정하잖아. 옛날에 이렇게 지나가던 남자들보고 삼천원 막 이러면 "야, 아줌마들이 삼천원이랜다. 그거 받고 뭐 하러 연애해?" 막 그랬거든.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이혼과 사별로 가족이 해체되어 아내 노릇은 종료되었지만 어머니 노릇은 지속해야 했다. 산업화시기에 들어오면서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새로운 어머니 상이 되었다(김원, 2005: 726). 이우주는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더더욱 힘을 쏟음으로써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만회하고자 했다. 자녀가 있는 여성(김수연, 이우주)과 자녀가 없는 여성(김수미, 변옥희) 사이에는 성매매 '일'을 수행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있는 연구참여자들(김수연, 이우주)에게는 성매매 '일'이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자녀 교육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보다 자부심이 더 크게 드러난다. 오롯이 자신의 자원으로 자녀들을 길러냈다는 힘은 '성매매여성'이란 오명을 받아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독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잘하지" "잘 커서" "착해요" 등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풀어놓는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어머니 노릇, 그리고 자기 삶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이모가 그렇게 힘들게 아빠, 남편 없는데 돈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다 했어, 근데 이제 관계도 소원해 지고 뭐,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그] 〈흥분한 상태로 말을 자르며〉 아니지, 애들이 내가 해달라면 다 해주지. 내가 다리 아퍼서 못 걸으니까 내가 신발만큼은 좋은 거 사달라 그래. 그래서 이거 다 메이커 있는 신발들이여~ 〈한쪽 벽면 위로 신발 선반이 있고 박스째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다〉 싸구려 만 원짜리 신으니까 발바닥이 아퍼. 그래서 엄마 옷사줄까 뭐 사줄까 그러는데 내가 안 받지~ 자식하고는 왔다 갔다 하지. [만나면 이모가 자식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식당에도 가고 내가 집으로, 자식네 집에는 가지~ 내가 걔네들이 뭐 사준대도 싫다 그러지. "내가 아직 니네들한테 용돈 얻어 쓸 나이는 아니다" 그러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니까 알아서 먹고사

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자식들은 잘하지~ 즈의 집에 와서 살라 그러고. 근데 우리(내)가 안가지. (김수연 1차 구술면접 - 2012. 10. 12)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아두요,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후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이...(중략) 몸하고 웃음하고... 이렇게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를 제~일 밑바닥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자식들 가리켰죠, 예, 그리고 자식도... 자식들도 잘돼서 자식 걱정은 안하고 살고 그러는데.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대로 엄격한 규칙을 세워 수행한다(엄상미, 2007: 60). 김수연과 이우주는 성매매 공간에서는 흔했던 기둥서방 한 번 둔 적 없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몸하고 웃음하고 이렇게 팔고는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 노릇의 일부였다. 그래서 유독 자녀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서사에서는 자녀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자리한다. 자녀의 유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를 지난 삶의 보상이자 힘으로 삼는 이러한 서사 구조는 성매매여성인 연구참여자들만의 특징은 아니다. 학력, 계급, 계층에 상관없이 중고령 여성들의 구술에서 보이는 지배적인 서사 구조 중 하나이다.[51)]

정말 내가 여기서 돈 벌라고 남자한테 살을 대지,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남자를 알았다면, 진짜라니깐! 이 동네가 기둥서방도 만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정말 돈 때문에 남자하고 관계하고 정말 보내고. 쫌 그냥 괜찮게 생긴 사람은 쫌 친절하게 해주고. 쫌 못됐다 그러면 한 번에 땡 쳐버리고. 응. 두 번 다시 못 오게. 그런 식으로 살았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오직 불쌍한 애기니까. (이우주 3차 구술면접)

[그...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도 유리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여러 명 받잖아요. 근데 여자의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섹스를 하는데.] 물

51) 중고령 여성들의 서사와 관련해서는 전희경(2011)의 연구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안나와. 성관계도 맘에,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누가 나와. 그냥 "아, 아, 나왔다, 나왔다" 하는 거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전엔 괜히 "오빠, 물 나와, 물 나와 빨리빨리빨리" 이러고 "아, 아" 섹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진짜 지네 애인랑 할 때면 모를까. 우리같이(도) 섹스 아무하고나 안 해~ 그런 거만큼은 정확해.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성매매여성들 사이에서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 김수미가 자신을 실명에 이르게 한 가해 여성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씹 팔아 아들 둘"을 먹여 살리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관계가 느슨해진 상태이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도와줄 유일한 인적 자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없는 여성(김수미, 변옥희)들은 자녀가 있는 여성들(김수연, 이우주)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여성들은 가족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성매매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에 더욱 예민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가족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고충을 겪는다(엄상미, 2007: 61)."

술 먹으면 진상이야. 내방 들어오는 거야. 때릴려고. 때릴 거는 없잖아요. 미친 거야. 내가 신고 안했어. 나도 씹하는 지지밴데... 같이 들어간데 누가... 그래서 내가 안했어... "아가씨 빨리 도움 받어" 근데 애가 둘이야, 얘가. 애 엄마야. 근데 어떻게 신고해요. 불쌍한데... 나도 불쌍한데... 못했어. (김수미 1차 구술면접)

애들은 내가 이런데 있는 거 모르지. 그 전에는... 내가 집에 가면 내가 어떤 남자하고 사는 줄 알고 아저씨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저씨 없다고. 엄마 식당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식당이 어디냐 한번 가본데. 아이, 엄마 일하는데 챙피하게 뭘 오냐고. 맨날맨날맨날맨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그냥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야. 어딨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어디 있나보다 그러지,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여기서 정말 우리 자녀들...도 인제 사실 모르지. 내가 이렇게 인제... 만약에 안다면은 정말 내가 남한테 몸을 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살... 소동도 날 수도 있어요. (이우주 2차 구술면접)

성매매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여성들은 어머니이고 딸이라는 정체성을 지워

야만 섹슈얼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존중받을 만한 부분들은 표백되고 남성들의 환상에 의해 섹슈얼한 육체로만 환원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드러낸 어머니이고 딸인 정체성이 그 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시선이 성구매자인 남성의 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면서 '성매매 하는 여자'라는 이름을 붙인 뒤 그에 걸맞은 시각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적, 즉 성구매자의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야 할 것이다.

3. 유사 가족공동체로서의 집결지

자녀들이 있어 낮에는 집결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들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집결지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다. 이로써 집결지는 여성들에게 '집(home)(원미혜, 2010: 2)'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녀를 떠나보낸 다른 중년여성들이 그렇듯이 연구참여자들도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52]'으로 종종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였다.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자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목표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때 심리적, 물리적 빈둥지를 새롭게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동료여성들이었다. 쪽방촌 여성들은 점심이 되면 먹다 남은 반찬 하나씩을 들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 김장도 함께 담구고 술도 함께 마시며 여행도 함께 다닌다. 집안 대소사(부모의 장례, 동료의 결혼)에도 힘을 모은다. 휘파리 골목에서 '일'하는 변옥희는 비만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김수연과 청각장애로 대화가 힘든 권은미(가명)를 위해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하는 등 동료여성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때로는 움직임이 불편한 동료여성을 위해 손님도 대신 '물어다'준다. 변옥희는 단속이 심해지거나 불황으로 손님이 줄어들면 생계를 위해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의향이 있음을 밝힌 유일한 여성이다. 그런데 S집결지에서 떠

52)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은 중년의 주부가 자기 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다. 가정이 삶의 보람을 주는 애정의 보금자리라고 여기며 살아온 중년의 여성들은 자식들이 진학, 취직, 연애, 결혼 등으로 각자 독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리적 상실감과 시간적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의 여성들이 자신을 빈껍데기 신세라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몸이 불편한 동료여성을 도와야 한다는 동지애였다.

> 미희(가명) 알지? 미희? 걔가 미희가 지금 죽었거든. 죽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씨발 술만 처먹으면, 죽을 때 그러는가봐. 똥을 갔다가 무~대기로 싸가지고 그거 막 목욕시키고 막, 아효 내가 그 집에서 고생했어. (변옥희 1차 구술면접)

> 근데 여기 헐릴 때까지는 있어야 돼. 왜냐면은 언니랑 떨어지면 안 되잖아. 항상, 언제 언니가. 어저께도 감기 몸살 막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서 곁에 있어야지. 혼자, 남자도 없이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니까 아플 때 내가 따주기도 하고. 갑자기 채할 때도 많고 그래. 약 심부름도 내가 해줘야 되잖아. 돈만 있으면, 돈 많이 있으면, 자식도 있으면 뭐해. 혼자서 외로운데. [돈은 있어요? 쫌 여유로워요? 그 때 보니까 돈 거의.] 펨프 하러 나가고 그래도 사기도 많이 당했잖아. 거, 미애라는 여자한테. 나 데리고 있던 포주였었거든. 근데 그 언니한테 사기 많이 당했어. 그래서 죽는 중이야. 안됐고, 안쓰럽고 그래. [그래서 이모가 돌봐줘야 되는 구나?] 그래서 저 언니 할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지. (변옥희 4차 구술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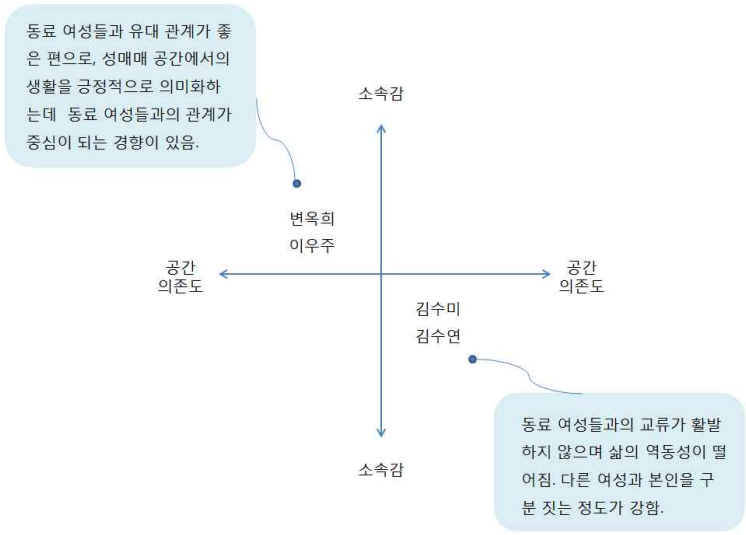
주류인 외부인에게 집결지는 '타락한 여성'들이 모여 있는 낙인의 공간, 일반 가정집과 분리된 '악'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성매매여성들이 가진 아내/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주류인 외부인과 구분되기 위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성매매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서로 공존하고 있다(원미혜, 2010).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의 공존이 가능한 것은 동료여성들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우주는 입양한 아들을 집결지에서 키웠다. 이우주가 손님을 받으러 갈 때마다 아들을 돌봐준 것은 바로 동료여성들이었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었을 때 동료여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동료여성의 시누이)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쪽방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친밀성을 돈독히 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등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쪽방촌은 '일'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생활공간이 된다.

> 그... 결혼 생활을 우리 18개월된 아이를, 정~말 그 아이를 또 이 동네에서 키웠

> 어요, 내가. 다리 밑에서 키웠어요, 걔를. 그 이제, 정말, 손님이 있으면 친구가 봐주고. 여 다리 밑에, 큰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서. 친구가 봐주고 가서 연애하고 나오고. 또 안그러면 거기 밑에서 같이 놀고. 또 손님 있으면 가서 연애하고 나오고. 그러다가 애기한테 못 할 일을 시킬 것 같아서, 친구의 시누가 있어. 그 시누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한 2년인가... 그 친구 시누가 봐줘서 2년 후에 걔를 집에다 데려다가 길렀죠. (이우주 1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이미 성매매 '일'과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우주는 펨프 역할만 하다가 스스로 '몸'을 팔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옥희는 업주의 구속에서 벗어나 여관발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수미는 인신매매된 목포에서 S집결지로 이동하면서 성매매 공간을 살만한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낙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집결지 외부 공간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접촉 없이도 생존 가능한 공동체적 삶을 집결지 내에서 형성하기 시작한다(원미혜, 2010: 131). 그래서 다른 정체성들과 성매매 '일'을 병행할 필요가 없는 여성일수록 집결지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경향이 크다. 아내/어머니의 정체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우주가 성매매 안팎의 공간을 모두 삶의 중요한 터전으로 간주하는 것에 비해 성매매 공간을 넘나든 경험이 많지 않은, '성매매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집중하는 김수미, 김수연, 변옥희에게는 성매매 공간이 생존의 공간으로 더 크게 의미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3〉 연구참여자들의 공간 의존도 및 소속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혼, 사별 등의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 유입 배경이 되는데 반해, 성매매 '일'을 지속하는 중에 있었던 결혼이나 재혼 등의 생애경험은 탈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성매매 '일'과 공간이 삶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 '일'과 공간의 상실이 곧 삶의 기반이 상실되는 것이라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에 근거한 각종 지원들—취업정보 제공, 생계비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만으로는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삶을 채워줄 굉장히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이 생활하니까 다 끊어졌지, 이제. [만나기 힘드니까?] 아니, 이 생활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나가지. 그리고 친목회도 들었었는데 친목회가니까 아줌마들이 "야, 너 어디서 장사하냐? 우리가 팔아줄게 말해봐", 이런데 식당에 일한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친목회도 끊어버리고. 저쪽 사회에서 발을 다 끊어버리는 거지. 여기서만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 외부 사람은 몰라. 외부 사람하고는 접촉이 안 해지더라고. 내가 이 생활하니까 창피하니까.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성매매 공간 내부에서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성매매 공간에서 오랜 시간 생활해 온 여성들은 성매매 공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낙인에 저항할 수 있는 자원과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엄상미, 2007). “손님을 가려 받고” “지네들끼리” “창녀”, “떡집”, “냄비 어쩌고”하는 남자들을 향해 “떡집이 뭐야, 개새끼들”이라고 대응하면서 낙인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내부의 경계를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우주는 공간에 따라 외모 관리와 행동을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낙인을 관리한다. 가령 출근할 때 입는 옷과 ‘일’할 때 입는 옷을 구분한다든가, 외모가 무서워 보인다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처한다. 김수연은 집결지를 벗어난 공간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반면 생활세계가 한정적인 김수미와 변옥희는 낙인을 경험할 특별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매매 공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주, 동료(젊은)여성들과의 위계와 따돌림에 더 민감한 편이다.

> 애들한테 그~렇게 왕따 당해도 쳐온다면서.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이. 옛날에 OO네서 밥차려 주고 그럴 때 애들이 오냐, 오냐 했거든. 이제는 아니거든. 저번에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완전히 왕따를 시켜가지고. 야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막. 나이 어린 애들한테 그게 뭐냐. 왕따 당하고. 나한테는 안 그랬어. 애들 밥 다 차려주고 돈 벌면서 애들 다~ 관리 내가 해줬거든. 나한테는 왕따는 안하더라. 애들이. (변옥희 2차 구술면접)

독장사의 형태로 수행하는 성매매 ‘일’은 중간 알선이나 업주의 관여 없이 성구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행해지기 때문에 성구매자와의 관계 역시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일’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이 만나는 성구매자들은 일회적으로 찾아오는 성구매자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수년, 수십 년 가까이 단골로 찾아오는 성구매자들은 이미 성매매여성들과 화대,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일이 별로 없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손님 빼앗기’등의 싸움 거리가 적고 ‘누가 더 벌었네’하는 경쟁의식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구별 짓기는 빈번하다. 여성들 내에서는 자존심이 곧 권

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박 경험 및 알코올 중독 사실, 기둥서방의 존재, 수용소 경험, 자식 문제 등 본인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우려되는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알아서는 안 되는' 이슈이다. 여성들 사이의 존중감은 성매매 공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기제가 되고 성매매 공간을 좀 더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 왜 이거(텔레비젼) (소리) 크게 트는지 알아요? 들을까봐 그러는 거야, 들을까봐. [옆집 주인은 이모 사연에 대해 잘 몰라요?] 어, 몰라요. 내가 크게 하는 거야. 작게 하면 다 들어. 내가 한 번씩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 들을까봐. 크게 말하면 다 들어가니까... 들을까봐 부르르르 떠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지. 안 좋잖아. 내가 힘들고... (김수미 3차 구술면접)

> (수용소 얘기는) 우리 신랑도 몰라, 이 언니(동료 여성)도 모르는데.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변옥희 1차 구술면접)

최근 제도(복지정책)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관계망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쪽방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서비스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인근 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장애등급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명절에는 쌀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식도 치러준다. 건강 이상이 즉각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는 고령 성매매여성들에게 사회복지 제도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2009년부터는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쪽방촌 인근에 드롭인 센터가 설치되어 활동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의료, 법률, 자활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엔 여성단체의 방문을 꺼리던 여성들도 병원 동행(김수미), 이혼 및 기타 소송 지원(이우주)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다. 이는 국가 복지제도의 확장과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제도, 그리고 S동의 지역적 특성(민간단체, 교회들의 활발한 지원활동)이 결합된 것으로 여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있다. 아직 혜택을 받지 않고/못하고 있는 여성들도 '65세가 되면 수급자 신청 해준다더라', '아플 땐 병원도 데려가준다더라'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득이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보호망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

낌을 주는 활동가들을 중요한 타자로 생각하고 있다.

> 병원가면은 멀리 못 봐. 안보여. 그니까 선생님이 같이 가는 거야. “이모님, 병원 매일 가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모르니까 같이 가는 거지. 눈이 하난데. 쪼끔한 거는 못 봐~ 큰 거 봐야지. (김수미 4차 구술면접 - 2012. 7. 20)

> 아... 위자료 못 받고. 위자료를 원하고(면) 고소를 한 대요. 근데 그 고소도, 무슨 고손가... 그 이유만 쫌 알고 싶었는데 끝까지 알지 못하고... 우리 지아(가명) 선생님하고 가정법원까지 갔었어요. 그... 저기... OOO에 있더만요. 그걸 의논을 또 해봤죠, 지아(가명) 선생님한테. “나 이래저래 해볼려고 하는데 법률 사무소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생략)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2012. 9. 10)

> 그리고 여기, 이 동네가요. 없는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살기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안 나와도, 나이 먹고 한 사람들은요. 동사무소에서도 쌀도 다 주죠... 또, 그 뭐야, 하여튼 간에 복지관에서 뭐 좀 나오죠. 또 여기 교회에서도 명절이면 정말 라면이라도 한 박스씩 주죠. 없는 사람은 참 이 동네가 진짜 좋아. 가정 동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예, 맞아요. 큰 역할을 하더라고. (이우주 2차 구술면접)

> (생략) 목사님이 인상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지. (중략) 그래가꼬 우리 지금 몇 달 다녔는데 (중략) 이번 추석에 갔지. 라면하고 쌀하고 주고. 티켓 신세계꺼 만 원짜리 넉 장 주고. 그니까 사만 원, 오만 원, 육만 원 돈 되지. 받아가꼬 그렇게 왔어. (중략) 겨울엔 쌀도 오지 뭐도 오지 더 많이 와. 김치도 오지. 도와주면서. 딴 데는 안 그래. 여기 쪽방이라 그러지. 왜? 쪽방이라고 많이 도와줘. 저기 뭐야, 동네, 사회의 이런... (중략) 그러고 저기하면 또 수급자도 맨들어 준다 그러더라고. [좋네요~ 필요하면 여기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그렇고 이모네가 도움 요청하면 다 해줄 수 있는데] 여성단체 오면 병원가자 그러면 병원 데려가잖아. (김수연 2차 구술면접 - 2012. 10. 16)

제2절 고령 성매매여성의 일 경험과 정체성

성별권력에 의한 착취 구조들이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성매매로 이끄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행위자’로서 여성의 경험을 맥락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매매 '일'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선화, 2006). 이미 3장을 통해 성매매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해석은 각각의 노동경험에 대한 의미의 연속선에서 형성된 것이고, 젠더-경제 체제 속에서 주체적 행위성을 제한받아 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전체 노동경험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노동으로부터 성매매를 변별해내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사회의 성별화된 노동구조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이외의 다른 노동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생애를 보완하기 위해 비슷한 세대의 노동경험을 다룬 연구 및 영상들을 참고하여 분석할 것이다.

1. 일의 이력과 삶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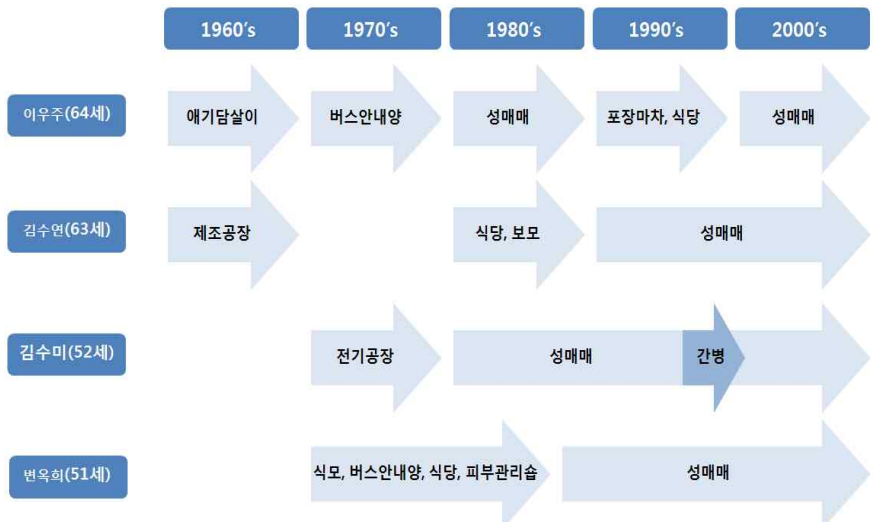
개별 여성들의 생애전망은 젠더와 계급에 의해 상당부분 틀어진다(배은경, 2009: 45). 제대로 된 기술이나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로부터 배제되고 생존전략의 하나로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 빈곤계층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노동참여는 생존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김정화, 2005: 85).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단위의 생존권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인권의 수많은 권리 중의 하나인 생존권을 위해 다른 권리들을 포기했다(김연주, 2011b). 연구참여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동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대부분 노동권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임금 장시간의 고된 노동들이었다. 특히 여성 특유의 봉사, 희생, 친절을 강조하면서 섹슈얼리티까지 자원으로 요구하는 노동들은 감정노동과 성적 서비스를 수반하면서 일상에서 연구참여자들을 성적 존재로 환원시켰다(박홍주, 2005: 74-75). 연구참여자들의 노동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권력을 작동시키는 방식(변혜정, 2004: 43)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이수 · 신경아(2001)는 일은 ①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②성격과 세계관 등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며 ③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일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항상 만족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적 동기에 따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방해가 되기도, 때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한다(40-41).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의 이력과 성격을 찾아보는 것은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 성격, 그리고 세계관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던 1970년대 자본주의와 국가 이데올로기의 지원을 받아 온 성별 정치학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독립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성차별적 관행에 의해 주로 비공식부문의 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김영옥, 2001: 2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37.2%에서 1975년 40.4%로 증가하였지만 여성취업 상위 15개 직종에 공업 관련 노동자의 비율과 '식모'로 불리던 가정부 및 관련가사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강이수, 2007: 9-11). 연구참여자들의 일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4〉 연구참여자들의 일의 이력(나이순)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노동은 식모/애기담살이(변옥희, 이우주), 버스안내양(변옥희, 이우주), 공장노동(김수미, 김수연), 식당노동(김수연, 이우주) 등이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의 노동경험에서는 저임금 장시간의 성별화된 노동이라는 특성 이외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발견된다. 1960~70년대 연구참여자들이 종사하던 직종의 여성들은 국가, 성산업을 비롯한 전체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호명되었다는 것이다(김원, 2005: 746). 당시의 노동시장은 무작정 상경한 어린 여성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부분 식모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공장에 취직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국가는 이들에 대해 범죄 또는 윤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요보호여성[53]'이라는 호명을 사용하면서 감시와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다(김정화, 2002: 88). 여기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구술면접 과정에서 보이는 자아 정체성 및 일에 대한 해석이 사회적 지배 담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일의 유형과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노동경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구조의 정상화된 착취와 폭력을 수용하는 배경과 기준이 다른 노동경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① 식모

1960년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의 장소는 가정에서 공장으로 눈에 띄게 이동하였고 값싼 노동력의 필요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김영옥, 2001: 29). 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공장노동이었지만 어린 나이의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

53) 1960~70년대 여성정책은 보호정책과 지도사업으로 양분된다. '요보호여성'이라 함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그 대상은 주로 '모자가정'과 '윤락여성'으로 정의되었다고 한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상에서의 '윤락'은 법적 개념이기 이전에 매우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풍속을 저해하는 사범을 처벌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자(혹은 그럴 위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선도, 교화, 직업보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도덕적인 타락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로 간주되는 대상이 주로 가족의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되는 식모, 버스안내양, 여성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요보호여성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황정미(2001)의 연구 pp. 74-177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 않았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처럼 낮은 학력에, 기술력까지 갖추지 못한 여성들은 제조업 등 안정적인 노동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김정화, 2002: 81-83). 임시적으로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 식모살이로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식모살이는 출신가족 입장에서는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딸을 안전에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과 결혼 전 살림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장려되었다.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족지원 없이도 생활 가능하다는 점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1965년 당시 경찰이 추산한 식모가 서울에만 약 5만명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식모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극히 싼 임금으로도 그들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 10월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만 1천 640원이었고 식모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00~600원에 불과했다고 한다(ibid., 89-91). 그러나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참여자 이우주는 열네 살 때 친척집에서 식모로 일했는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기억한다.

> [이모 그러면 전라북도 OO에 애기 보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친척 집이었어요?] 네, 친척 집이었어요. [먹고 자고, 그리고 임금도 줘요?] 임금을 글쎄... 그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네. 안 받았을 것 같네. 먹여주는 걸로 땡친 것 같은데, 생각에! 지금 생각하, 나 이제 그것도 기억 안할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사이를 얘기할라니까 그게 나왔어. 잊고 지내다가 정말. 이런 것 같애. 그냥 애기 봐주고, 밥 얻어먹고. 그때만 해도 나하고 동갑짜리, OO이어서 OO 시내니까, 전라북도 OO 시내여서 걔네들은 나하고 동갑짜리가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집으로, 시골로 갔나보다. (이우주 1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 변옥희는 수양딸로 들어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식모와 같은 생활을 했다. 변옥희의 경우에는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했다. 학교를 보내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 식모생활에 관한 연구(김정화, 2002)에 따르면 1968년까지 직업사전에는 '식모'를 '하녀'로 표기했

다고 한다. 식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고도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었다. '하녀'라는 표현에서 짐작되듯이 합의된 주종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식모살이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변옥희와 이우주의 구술에서는 식모로 일하는 동안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이 식모살이라는 것을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진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식모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큰 오빠 올케 밑에서 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서울로, 서울이 아니고 그때는 전라북도 고모님 댁으로, 그니까 얼른 쉽게 애기담살이지 뭐. 나이 열네 살에 뭘 했겠어?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이듬해니까. 그 고모네 손자들 봐주러 서울로, 아니 전라북도 OO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근데 이모는 학교 안다니셨고?] 응. 학교를 안 보내 주는데 뭐. 맨~날 일만 시키고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 그랬지. (변옥희 1차 구술면접)

> 나는 완전히 인자 설거지하고 막, 그때는 식모였잖아. 야간학교 보내준다 해도 안 보내주니까, 중학교. 완전히 안보내주더라고 학교를. (변옥희 2차 구술면접)

주종관계는 노동권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이 주인에 속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5년 김호선 감독의 영화《영자의 전성시대》는 식모로 일하는 어린 나이의 영자가 주인집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죄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식모로 일하는 여성들은 주인집 남자들로부터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식모에 대한 담론들은 식모를 건전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여성'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가정 내 식모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숨어 있었다고 한다(김원, 2005: 185; 전혜진, 2003: 45). 연구참여자 변옥희도 식모로 있던 집에서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 길로 집을 나오게 된다. 열네 살의 변옥희는 식모로 일하면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신체적·인격적 보호에서 배제되었다.

> 거기서 아다다시(아따라시) 뺏기는 바람에 나와 가지고 연세대학 걸어서, 걸어서

> 오니까 신촌 있는데 그때는 막 버스비도 없고 돈도 없고 걸어서 신촌까지, 신대방동에서 신촌까지 걸어서 가니까 인자 연세대학 안에 구내식당, 냄비 하나에 삼백원인가 오... 그랬었어. 돈까스가 오백원이고. (변옥희 1차 구술면접)

이 시기의 '가정'이라는 것은 '거리의 여성'과 '정숙한 여성'을 나누는 공간적인 경계로서 기능했다(전혜진, 2003: 45에서 재인용). 가부장인 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감독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주변부 여성들은 이미 성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깨진 그릇'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비난과 동시에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착취당해도 괜찮은 여성'으로 간주되었다(ibid., 47). 이러한 담론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삶을 해석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참여자 김수미는 "오빠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럼 이 짓도 안할지 모르지"라고 하면서 가부장인 오빠들의 감독과 관리의 부재가 성매매 유입으로 연결된 직간접적 배경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수미는 가정과 가정 밖을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 사이의 공간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② 버스안내양

1961년 건설교통부가 차장제를 도입하면서 '버스안내양(버스차장)'이라는 직종이 생겨났다. 이전에는 시내버스 안내원이 남자였지만 버스안내양이 섬세한 서비스를 요한다는 명목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김정화, 2002: 97). 당시 버스안내양은 식모와 여공 못지않게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는 대표 여성직종 중의 하나였다. 연구참여자 이우주는 버스안내양으로 일하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연애하자고" "남학생들이 쫓아다니는" 등 "지루하지 않고" "사감 선생님들도" "잘 챙겨줬다고" 이야기한다. 이우주의 구술내용에서는 버스안내양의 애환이 제대로 묻어나지 않는다. 이는 예쁜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버스안내양에 대한 선망, 그리고 버스안내양을 식모나 여공(공순이)보다 좀 더 나은 직종으로 인식했던 데서 온 해석일 것이다.

실제로 버스안내양은 취침시간 4~5시간과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8~19시간을 일해야 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체력을 요했고 임금도 월 2천 400원 정도(1966년 기준)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었다(ibid., 98).[54] 하루 종일 "오라이!!", "발차!!"를 외치며 만원 버스 뒷문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일하는 와중에도 요금을 받고 거스름돈을 착오 없이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집중을 요했다고 한다. 정산 때 오차가 생기면 고스란히 버스안내양의 책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 그때 당시는 서울 시내에 그거 있었잖아요. 버스안내원 있었잖아요. 버스안내원으로 이제... 어렸을 때도 이상하게 버스안내원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구요. 이렇게 차 타고,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버스안내양 하는 게 참 좋아 보여. 참 그때는 버스안내양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뭐 중학교도 나와야 되고 한다는데, 그래도 어... 어렸을 때 쪼끔 미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나 가도 환영을 받았어. 그리고 귀여움을 받고 자랐어, 어른들한테. 그래서 정릉에서 서강 가는 1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1번 버스... 으... 버스안내양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안내양하면서 되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때는 남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다녔잖아요? 가방,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에다가 뭐도 숨겨가지고 와서 나를 주고, 버스를 타면... 응... 그런 에스...프레스가 있었고... 또... 연애하자고... 어... 쫓아다니는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참 진짜, 거기서 참 재미나게 일을 했었어요. 정말, 거기에 지루하지 않고... (이우주 1차 구술면접)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곤란했던 버스안내양들은 '삥땅[55]'에 의지하며 살았다. 삥땅이 심해지자 버스안내양의 팬티까지 벗겨 '센터(몸 수색)'를 하는 등 수색이 강화되었고 이에 치욕을 느낀 버스안내양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종종 보도되었다.[56] 30~40명이 수용되는 기숙

---

54) "우리는 달린다/비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해뜨기 전에도 별 없는 밤에도/우리는 달린다/바람 부는 날에는 가로수를 벗 삼아/해 뜨거운 날에는 바람을 벗 삼아/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달린다/빠르고 안전하게 즐겁고 편안하게/언제라도 좋다/가는 곳이라도 시간을 해치고 거리를 달린다" — 1981년 김수용 감독의 《도시로 간 처녀》에서 버스안내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우리는 달린다〉 — 해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버스안내양의 생활상을 잘 표현한 노래이다.

55) '삥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56) 자세한 내용은 "김원, 2005, 《그녀들의 反역사 여공 1970》, 이매진, pp. 747-750" 참고하기 바란다.

사에는 삥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창문에 철창을 설치하곤 했는데, 화재의 발생으로 기숙사에서 자던 버스안내양 5명이 숨지는 사건(1971년)도 있었다.[57]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김정화, 2002: 99-102). 연구참여자 이우주도 버스운전기사의 급정차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림5〉 버스안내양의 생활상[58]

버스안내양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은 단순히 '애환'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59] "잘 먹고 잘사는 게 곧 인권"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논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그대로 방치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을 연상케 한다. 감금과 감시, 그리고 숙식비 명목으로 제하는 터무니없는 금액, '센터(몸수색)'를 통한

57) 네이버 지식백과 "그 시절 그 이야기 — 시내버스 여차장의 애환1~2"
58) 1981년 김수용 감독의《도시로 간 처녀》中
59) "하루 종일 지친 몸에 도둑년 취급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알몸까지 보여야 한다니 우리 안내양들은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란 말입니까? (중략) 심장병이 생기고 쫓기는 꿈만 꾸는 생활이 순결한 처녀의 생활입니까?" — 1981년 김수용 감독의《도시로 간 처녀》에서 주인공 이문희가 '센터(몸수색)'에 항의하면서 자살하기 직전의 대사

일상화된 폭력은 성매매의 착취 구조와 유사하다.

더 문제적인 것은 '어린' 버스안내양을 향한 젠더폭력과 이들의 성에 대한 담론이었다. 식모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돌봄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버스안내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운전수들은 버스안내양을 하나씩 데리고 산다"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형성하였다(김정화, 2005: 104). 그리고 실제로도 버스안내양들은 승객의 성추행, 운전수의 상납요구 및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변옥희와 이우주의 구술내용에서도 운전수의 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된다. 변옥희는 "산수 공부는 원래 빵점이라" 버스비를 계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운전수들이 "따먹는다"며 성희롱하는 바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우주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향해 "침 질질 흘리며" 껄떡대는 기사들이 눈에 가시였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버스운전수들이 버스안내양을 두고 버스를 출발시킨다든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고의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버스안내양이 삥땅을 쳤다는 오해를 받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버스안내양이 버스운전수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게 했다는 일화들이 종종 보고 되었다.

> 그리고 거기에 사감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자들 관리하는, 안내양 관리하는 사감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돈 훔칠까봐, 막 '센타'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가씨들이 돈 훔칠까봐?] 그렇지, 아가씨들이 돈 훔칠까봐. 돈 훔쳐서 자기들 기사끼리 나눠 쓰고, 그런 것도 많았어, 하여튼 간에. (이우주 1차 구술면접)

> 그 옛날에는 남자들이 막 따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막 따먹을라고 막. [이모 버스안내양 할 때?] 어. [누가?] 이제 아저씨들이. 막 짓궂고 무서웠어. 도망 나와 버렸지. (변옥희 2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 이우주와 변옥희가 식모를 거쳐 버스안내양으로 일하면서 형성한 본인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연구참여자들은 빈곤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인격

을 타인에게 점유 당했고 공적 공간에서 항상 주변적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다. 언제라도 밤거리의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기대'를 지워버렸다. 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둔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배경에 있었던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삶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③ 공장노동자

1970년대 여성들의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생활세계가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공정영역인 노동시장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참여를 꿈꾸게 되었지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식모(가사도우미), 식당노동 등 비공식부문의 노동이나 3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이 가능한 대안이었다. 그 중 미혼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이 공장노동이었다. 당시 공적영역의 노동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거쳐야 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노동에 불과했지만 비공식부문의 노동과 비교해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공장노동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성별분할 논리가 적용되어 공장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일은 명확하게 구분되었을 뿐더러 임금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고 보고된다(김원, 2005).[60] 이는 지배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식모나 버스안내양은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주로 종사했던데 반해 공장에는 기혼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이우주가 이혼 후 장롱공장에 취직하여 일했던 것, 그리고 김수연이 "아줌마들과 섞여" 일했다는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모 공장에서 일하실 때 뭐, 에피소드나 그런거... 없어요?] 어렸었지. 너무 오래돼서 몰라~ 그런거. [그래도?] 생각이 잘 안나. 그냥, 공장에 다녔어. 아~무일 없이. 몰라~ 그 생각이 안나. 아무 탈 없이 일 다녔어, 그냥. [그래도 뭐, 지난, 옛날에 뭐 있었던 일이나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추억될 만한 게 없어. [그래도 이년 정도 일하신거 잖아요. 병뚜껑 공장에서...] 다니고... 놀다가 또

60) 이에 대해서는 "김원, 2005, 『그녀들의 反역사 여공1970』, 이매진" 참조하기 바란다.

> 그 재봉, 그, 실밥 띠는 그거 다닌 거지. 잘 기억이 없어. 별~ 나게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애. [음...] [그때 공장에는 또래들이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목소리 높이며〉 뭐, 또래만 있나. 나이 먹은 아줌마도 있고 다 있지. 아줌마들도 같이 장사했어. 아니, 일했어. [그렇게 일해서 이모가 돈 벌어가지고 시집가신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지. 그까짓 거 벌면. 그때는 공장 다닐 때 돈 얼마 못 벌었지~ 못 벌었어~ (김수연 2차 구술면접)

여공에 대한 여러 연구들(전혜진, 2003; 김원, 2005)은 근대화 시기의 여성 공장노동자들을 분석하면서 성별분업에서 기인한 노동의 성격과 평가, 그리고 여성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정체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여공, 식모, 윤락여성, 농촌 부녀 등의 사회적 위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김원, 2005: 693에서 재인용). 그것은 국가, 고용주, 지식인의 공모작이었다. 차별, 천시, 학대, 무시, 무식 등의 표현은 당시 여공들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였다. '공순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여성 공장노동자에 대한 비하가 매우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ibid., 693).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공장에서 노동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인지 공장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 덜 예민해 보였다. 대신 구체적 노동환경에서의 착취적 조건—장시간 노동(잔업), 저임금—이 좀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여공 교육에서 "출근 시 수위실에 인권, 자존심은 맡겨 놓으세요(ibid., 698)"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수 있었던 것에서 여공들의 인권이 얼마만큼 무가치하게 여겨졌는지 짐작된다. 연구참여자 김수미와 김수연은 결혼 전에, 이우주는 이혼 후 2~3년간 전기공장, 제조공장, 장롱공장 등에 취직하여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당시의 노동경험을 생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매매 '일'을 그만두고 전업을 상상하는 부분에서는 공장노동과 비교해 성매매 '일'은 '그래도 할 만한 일', '덜 힘든 일'로 해석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짧은 기간의 노동경험인데도 공장에서의 불합리한 노동자 대우가 이렇게 강하게 각인되는 이유는 그만큼 공장노동이 착취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저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았던 경험과 다섯 손가락이 잘려나갈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기억 때문에 공장

에서 일하느니 성매매를 하고 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다.

> [이모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셨잖아요. 식당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이것도 아가씨로 일할 때도 있었고 펨프로 일할 때도 그렇고.] 지금 펨프.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면서 그 일들을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아이, 내가 몸뚱아리 팔 때가 좋아~ 흐흐흐 그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김수연 1차 구술면접)

> 쪼끔 힘들지만 이게 좋은 거야, 여자들은. 공장가? 힘들어서 일 못해~ 이런 아가씨들은... 편하게 사는 거야. 다 돈이니까. 응? 쉽게 버는 거야. 공장에 가면은 뭐 뭐 말하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 쉽게 버는 거야, 많이. 한 달이면 얼마씩 버는데... 쉽게 벌어~ 잘 먹고... (중략) 회사가면 힘들잖아. 야근하고 뭐하고... 힘들잖아. 돈도 쪼금 주고. (김수미 4차 구술면접)

1960~70년대 식모, 버스안내양, 공장노동을 수행한 연구참여자들은 당시의 부녀보호정책에 의해 '건전한 가정'에서 이탈한 주변부 여성으로 간주되면서 교화와 계몽의 대상이 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착취로 인해 결국에는 윤락행위 등으로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전혜진, 2003: 48). 여성 노동자, 특히 식모, 버스안내양, 공장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할 뿐 아니라 남성의 유혹을 받기도 쉽고 '건전한 가정'을 위협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의 여성들은 사회에서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과 '성의식의 결여는 교육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김원, 2005: 718)'이라는 판단 속에서 체계적으로 공정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시골에서 꿈을 갖고 상경한 영자가 식모가 되었다가 주인집 아들에게 강간당한 후 버스안내양을 거쳐 장애를 입고 결국에는 성매매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1970년대 산업화가 낳은 억압적 노동환경과 피폐한 생활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영옥, 2001: 39). 영화를 보다보면 연구참여자 변옥희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자와 변옥희는 유사한 삶을 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화에서 재현되는 '식모→버스안내양→성매매'라는 도식처럼 당시 식모와 버스안내양, 그리고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동일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식모, 버스안내양, 공장노동이라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 현재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의 선택과 행위를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연구참여자들이 속해 있던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그에 따른 비난은 연구참여자들을 점점 더 사회로부터 배제시킬 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 과정과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는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젠더-경제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와 다른 노동의 특성을 변별하지 못한다. 이들의 생애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한다.

2. 성매매 '일'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평가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노동경험을 거쳐 대안적 노동의 하나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성별화, 성애화된 지난 노동경험은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노동과 성매매의 모호한 경계를 넘어보기로 했다. 성매매가 다른 일에 비해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이삼식(2007)은 노년기 노동참여의 내재적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경제적 이유'를 '비자발적 동기'로 분류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이유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 전환점, 즉 부모의 죽음, 이혼, 사별 등과 그 시기가 겹친다. 연구참여자들이 당시에 전망했던 생애과정에 공식적/비공식적 노동참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노동 참여 자체가 자발적 동기였다고 해석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건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성매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20~30년간 성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연구참여자들은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때의 '빈곤'에는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등 비물질적 빈곤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과거 노동경험의 연속선에서 성매매 '일'이 가진 특성과 사회적 가치평가, 그리고 그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빈곤이 지속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로 유입된 시기의 개인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유입 이전에 경험한 비공식부분의 노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고 기회와 선택의 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즉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로 유입되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배경으로 경제적 요인을 설명한 바 있다.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예된다는 것은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금이 제공되거나 그날의 수입을 그날 바로 챙겨갈 수 있는 성매매 '일'의 특성은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이 성매매를 '일'로서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임무에도 불구하고 내외적 자원의 부재로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소득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김정화, 2005: 90).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연구참여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또 다른 원인은 성매매 '일'의 특성 때문이다. 성매매는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경험한 과거의 노동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감정적,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노동을 수반한다(김선화, 2006: 31). 또한 성매매는 '젊음' 또는 '여성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에 따라 등급이 형성되고 고용과 배분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연구참여자들이 구술면접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유리방의 젊은 여성들과 연구참여자들의 차이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유리방의 젊은 여성들은 나이든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짧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을 화대로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력을 가짐으로써 권력을 가진 남성과 섹슈얼리티를 자원으로 보유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젊은 성매매여성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이 가능하다. 가령 콘돔 사용, 서비스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여성들에 비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더 불합리한 요구들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젊음'과 '여성성'을 사고자 하는 남성과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나이든 성매매여성들 사이의 욕망이 불일치되면서 불평등한 교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김선화, 2006). 김선화(2006)는 성매매 '일'의 성격

과 빈곤이 연결되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성매매를 통한 성적 침해에는 성애화된 젠더 권력의 남용과 '환불'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포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성빈곤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김혜영 외, 2005: 17) 성매매여성들의 지위가 섹슈얼리티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성매매 '일'의 특성은 불평등한 교환 관계로 이어지고 결국 연구참여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성매매 '일'의 유형과 특성 못지않게 연구참여자들의 빈곤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가치평가와 관련된다.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면서 사회적 참여, 통합, 권력의 상실로 연결되는 원인이 된다.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부터 배제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이유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분리시키는, 즉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서 기인한다.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모든 책임을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돌리는 지배적인 사회 시선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와 멀어지고 가족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된다.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공동체의 유대 약화는 치명적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건강의 이상은 곧바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재는 또 다시 '몸'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불가피하게 교회, 여성단체 등의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 (벌금) 아직도 못 갚았다~ 아이씨. 지금 두 번째 용지가 날라왔어. 수배 내리게 생겼어, 지금. [수배는 안하지?] 세 번째에 안내면 수배내리는 거야. [그럼, 그 전에 갚아야 겠네...] 응.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 돈이. 또 날아오지, 이제. 이달에 날아오지. 지금 두 번 날아왔거든. (변옥희 3차 구술면접)

> [지금 가장 힘들고 고민되고 뭐, 바람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그거 뭐야...〈잠시 생각〉 그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 [수급자?] 수급자. 그거나 해주면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큰 욕심도 없어~ [그거만 나와도 밖에 나가서 일 안하시고 그래도 되니까.] 응. 그래도 나가서 손님, 그 전에는 이 단속 있기 전에

> 는 손님 몇 개씩 끌었어, 새벽에 나가면은. 지금 하~나도 나가서, 우리 세 명이 나가 서 있는데 한 명도 못벌어. 만원도 못 벌고 그냥 들어온다니까. 죽겠어. 어제께 전기세 석 달 치 이십 얼마 내야 되는데 못 내가꼬 지금...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성매매 공간을 떠나 다른 일을 시도한다. 식당, 포장마차 등의 창업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자원으로 간병, 농사, 공장 등의 일에 도전한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의 시도는 경험 부족, 우연한 사고, 지원세력 부족(엄상미, 2007: 83) 등으로 모두 실패로 이어졌다. 자원을 상실한 연구참여자들은 또 다시 현금 벌이가 되는, 다른 일에 비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성매매 집결지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모든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로 이어지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공간 밖에서의 삶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매매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시도는 성매매 공간을 벗어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 저~기 어디야. 동두천, 산골짜기에 가니까 보증금도 없이 방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장롱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장롱공장에 다니다가 어, 손도 다쳐서 어 이제 이렇게 6급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살다가, (중략) 내가 여기 펨프를 할려고 온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오면은 그때만 해도 손님이, (내가) 젊으니까 되~게 많이 꼬여. 젊고, 또 처음 왔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영업 안하고 아가씨들을 연결해 주면은 나하고 놀자고 돈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 그거 내줘야지 어떡해. 나는 그때 영업을 안 하니까. 그... 그러다가, 또 내가 여기가 너무 싫어~ 나는 또 돈이 생기면 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한 거야, 마음속으로. 이 동네가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불고기집을 한다고 불고기집을 냈지! 실패. 불고기집을 내가지고 불고기집 실패했지. 또 왔어. 갈 데가 없으면 여기를 오게 돼. 여기 오면은 현찰이 생겨버리잖아. 손님 하나 모셔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와리 떼 주니까. 삼분의 일 떼 주니까. 그러면 이제 모아서, 또 돈 생기면은 또 뭐 한다고 나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좋아서 사는 게 지금까지도 아니고. 또 돈 좀 모아지면 저기 마장동에 아는 사람 있다고 거기 가서 포장마차를 해보라고 해서 마장동 도살장에 들어가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다가 또 거기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또 여기에 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항상 현찰이 생기니까. 그니까 이 동네에서

아무리 이모들끼리 트라블이 생기고 그래도 현찰이잖아. 여기는 외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트라블들이 생기는 거라, 이거는 돈이니까. 그니까 현찰이 생기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여기 들어오고 사업하다 망하면 여기 들어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 좀 생기면 나가서 사업하고 또 없애먹으면 와서 돈 벌어서 사업하다 없애먹으면 들어오고. 그니까 여 동네사람들도 그럴 꺼야.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물론 여기가 친구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안 왔지~ 그런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와 가지고. 살 곳이 없으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 딛어 놓은 지는 거의 이십년 됐다고 봐야죠. (이우주 2차 구술면접)

집결지 내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 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변옥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 없이 '지금 당장 여기서 일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업소를 그만두고 나온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집결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찾아 간다. 농사를 짓고 있는 아는 언니를 찾아갔다가 치질에 걸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업주에게 놀러갔다가 소개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는 탈성매매는 언제든 적당한 곳에 눌러 앉을 수 있는 성매매 구조의 특성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시도되곤 한다. 주류 영역에서의 배제로 새로운 일 찾기에 실패한 여성들은 집결지로 돌아와 내부 자원을 개발하고 내부 통제력을 향상시킨다.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공간 내외부에서 발현할 수 있는 주도성의 정도에 명확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이제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 공간 외부에서 겪은 사회적 압력, 문화적 기대감, 좌절적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류 영역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정미숙, 2007: 76).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치질이 걸리는 건가?] 아니지. 청량리 내 (돈) 뺏어갔다는 언니랑 잠시 있었거든. 이런데 이 생활하기 싫어서. 안살라고. 남갈리에 있었거든. 밭을 이렇게(쪼그려), 이렇게 깻잎이고 고구마 밭 막 이렇게 하니까 치질이 생긴 거야. (중략) [그 언니는 어떻게 알게 된 언닌데요?] 술집에서 인자 알게 된 언니. [그 언니가 그렇게 농사짓고 살았어요?] 어.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살라고?] 어. 무당인데, 무당. [근데 왜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신 거예요?] 인자 어...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언니한테 밥만 먹을 순 없잖아. 밭도 매주고 깨도 막 심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치질이 걸리는 것도 모르

> 고 나도 막 대변 넣기가 피가 막 쏟아지잖아. 에이, 모르겠다. (다시 집결지로 들어와 버렸어.) (변옥희 2차 구술면접)

> 내가 마흔 아홉에 집에 들어갔어. 집에. 동에서 보면은 찾는 게 있더라. 찾았죠. 두 달 살았어요. 근데 다시 나왔어요. 내가. 싸울까봐. "어머니, 수미가(도) 같이 살자고..." "나는 싫다. 나가라 그래라"그러는 거야. 오빠가 "어머니, 수미가 불쌍하니까 어머니랑 같이 삽시다" 안 된대. 오빠는 불쌍해 죽겠지. 나와 버렸어, 그냥. 이월 달에. 그래서 내가 일로 왔어. 숙이 이모가 해줬어. [그분은 뭐하는 분인데?] 삐끼. 언니가 여기 77만원 해줬지. (김수미 1차 구술면접)

왜 그만뒀다 다시 돌아왔냐고 물으면 연구참여자들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익숙한 일,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61] 연구참여자들에게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고통은 이미 경제적 이득으로 상쇄된 뒤였다. 성매매 착취 구조도 '내가 조금만 똑똑하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안 당하는', 모든 일 속에 내재하는 위험 요소 및 스트레스 정도로만 인식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안팎의 공간에 변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원미혜, 2010: 83). 나는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행복'이나 '만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행복이나 만족감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어와 반찬을 만들어 먹고,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 성병에 걸려 성기에서 누~런 고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화대를 포기할 수 없어 구강성교(oral sex)를 감행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을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하니 행복한 거구나'라고 해석해 버릴 수는 없었다.

> 요새 애들은 안 당하잖아. 나도〈강조〉 이제는 안당하지. 모아노면 떼어먹고 이러다보니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업주한테. 이제는 안속아. 절~대 안속아. (변옥희

61) "왜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느냐는 이유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있다. 그런데 매춘부가 되는 데는 그다지 신비로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19세기 영국에서 직업 없는 가난한 어린 소녀가 "무엇을 위해 너는 남자에게 몸을 대주니? 소시지 롤을 위한 거니?"라고 (『나의 은밀한 생활 My Secret Life』의 저자에 의해) 질문 받았던 것처럼, 여성은 그녀의 신체를 양식을 위해 팔 수 있다. (중략) 일반적으로 매춘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여성에게 열려 있는 대부분의 다른 일자리들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한다(캐럴 페이트만, 2001: 271)".

2차 구술면접)

> 지랄을 해야지, 싸지(사정을 하지). 안 그러면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응. 쌀 것 같으면 뒤로 엎어져라. 앞으로 엎어져라. 안 쌀라고. 뽕 빨라고. 흐흐흐 아이고, 어떨 때는 진짜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 데도. 어떡해. 배운 게 이것 밖에 없는데. 또 그 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랬나 싶어. 바깥에 또 앉어 있어. 흐흐흐 아이, 진짜 그렇게 애 먹일 때는 고만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 가고 나서는 한 십분 실 컷 욕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마음이 또 풀어져. 풀어지면 또, 또 하나 또 잡아. 흐흐흐 (변옥희 3차 구술면접)

아래 성매매 '일'에 대한 김수연의 구술에서는 "누가 구속은 안하니까"라는 말이 강조되다가 "모아논(놓은) 것도 없"지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몸 팔 때가 좋아"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순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누가 구속은 안한다는 말은 그간 김수연이 노동세계나 생활세계에서 겪은 억압이나 구속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고 모아 놓은 것도 하나 없다는 말은 성매매가 자본주의 시장의 '정상적인', 그리고 '공정한' 교환관계라는 것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의 성욕 해소와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결지를 없애면 안 된다는 말은 성매매 '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아직도 성매매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연구참여자의 특성상 당연한 서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김수연은 자신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해석하지 않고 남성들의 성욕 해소와 우리 사회를 성매매 음성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김수연의 사례처럼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자신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해석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서사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언어의 부재가 인식의 부재로 연결되고 거기에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담론이 더해져 자기 '일'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누가 구속은 안하니까. 내가 나가서 아침에 한 푼 벌면, 모아서 집세주고 병원 다니고 그러니깐. 누가 구속은 안 해~ (김수연 1차 구술면접)

[그럼 이모 마흔 살부터 계속 이 동네(에)서 일했으면 거의 이십년 일하시거잖아요. 그러면 돈 모아두신 거는...] 모아논 것도 없어요. 모아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어. 모아논거 있으면 좋지. 근데 모아논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야. (김수연 1차 구술면접)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 남자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성적 충격(충동)을 어다 풀어?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어느 구역에다 해주고서 자유롭게 놔둬야지. 없으면 강간이나 이런 말 맨날 나오지. 어저께가 그저 깬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호텔인지 어딘지에다 막 짓고 그러대~ 그런 거는 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냅둔다고 해서 거기가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지. [그건 여기를 막아서 생긴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른 방식의... 로 성욕을 풀고 싶은 게 있어서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진거지, 이런데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예요.] 그런 건가?. 흐흐흐(웃음) 나는 이런데 없애가지고 그런데 생겼나 그랬지~ (김수연 1차 구술면접)

제3절 성매매 구조 안의 젠더-나이체제[62]

중고령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엄상미, 2007; 원미혜, 2010)은 성매매 공간에서의 나이듦(aging)을 자원의 상실 또는 '능력없음'으로 간주하면서 '이중억압'의 개념틀 속에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몸을 출산할 수 있는/섹시한 '젊은' 몸으로 환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전희경, 2011: 12). 성매매가 여성성(젠더)과 섹슈얼리티를 자원으로 한 서비스와 돈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나이듦에 따른 여성성과 섹슈얼리티의 쇠퇴는 곧 자원의 상실로 여겨진다. 그래서 나이든 성매매여성들은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대신할 다른 자원을 개발해야 성매매 공간에서 생존 가능하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내용에서도 이런 해석은 여러 군데에

62) "'젠더-나이체제'란, 나이를 성별화된 위계에 따라 배열하고 나이듦을 시간적으로 각본화함으로써 젠더를 작동시키는 사회문화적 체제를 의미하며, 나이를 통해 권력을 작동시키는 제도, 신념, 관행, 규범, 지식들의 총체이다. 한편으로 젠더-나이체제는 횡적 측면에서 나이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하며, 법적 권리와 의무, 인간관계에서의 존중원리와 행위 양식은 나이 위계에 따라 배열된다. 다른 한편으로 젠더-나이체제는 종적 측면에서 당대의 지배적 시간틀에 부합하는 '나이듦에 대한 지배 서사'를 포함한다(전희경, 2011: 28)"

서 포착된다. 가령, 손님이 나간다고 할까봐 콘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거나 '젊은' 아가씨들에 비해 화대를 낮추어 받는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성매매 공간에서의 나이듦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길 원한다. 나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울퉁불퉁했던 경험들을 현재의 시점으로 불러내어 재구성하는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구성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난 생애를 구성해 내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억압과 희생의 삶을 넘어 자신의 일과 삶의 즐거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주체로 우뚝 서고자 하는 의지였다.

한 개인이 젠더체제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대한 해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전희경, 2011: 26). 내가 10~20년 전에 연구참여자들을 만났다면 아마도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10~20년 전의 연구참여자들은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매매 구조 안에서도 급격한 위치 변동을 겪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잠깐 '일'하려 했던 것이 그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50~60대인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그 시간을 거치고 이겨낸 후의 시점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제 막 변동의 과정을 끝내고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아직은 성매매 공간에서 살아갈 힘과 자원이 남아있기에 좀 더 나은 기대를 품어볼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현재는 끝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전히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환경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운운한다.

3장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된 생애를, 4장의 1~2절은 살아온 생애를 보여주고자 했다. 분석의 마지막인 3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생애를 성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남은 생애를 전망하는 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 공간에서 나이든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변화와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성매매여성의 나이든 '몸'과 건강권

"50~60대에도 성매매를 해?"라는 질문은 내가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변 반응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50~60대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는다. 이는 여성에게는 '젊음'이 성적인 존재로 인식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만큼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존재와 경험이 드러난 적 없다는 증거이다. 연구참여자들도 이러한 성별 각본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몸의 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연구참여자들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몸은 성별 정치학과 섹슈얼리티의 실천이 깃들어 있는 문화적 공간이자 노동이 행해지는 물질적 장소인데(김영옥, 2001: 27-28) 어느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나이듦에 대한 해석은 세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50대인 김수미와 변옥희는 건강 문제 못지않게 외모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걔 화장 지우면 짜글짜글 해", "동갑인데 나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잖아" 등 외모에 따른 보이지 않는 위계의 작동을 짐작케 한다. 반면 60대인 김수연과 이우주는 '젊은' 외모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거의 없다. 이들에게는 외모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건강이 생존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건강의 이상은 노동할 수 없음으로 연결되어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성매매 공간에서는 외적 조건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된 육체노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몸은 자본과 직접 연관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외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미 공간과 '일'의 형태면에서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점을 지나친 것이다.

>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하는 큰 계기가 뭐 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파. 허리가.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다리도 아프고... 일곱시까지 있는 거야. 힘들어서 내가. 마흔 아홉에 그만 두자~ (김수미 4차 구술면접)

> [아까 그 이모는 이모보다 나이가 많아요?] 똑같애. 오십둘. [그 이모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던데...]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손님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이모는 혼자 낮부터 나와 계시곤 하던데...] 낮에만 하는 거야. 손님이 없어~ 주름도 많어~ 화장도 안 하면 할머니야, 할머니. 내가 낫지. 화장 안 하면 칠십대 할머니야. 오만 원짜리는 없어. 안 들어가. 삼만 원, 이만 원 그러지. 오만 원 부르면 안 들어가. (김수미 4차 구술면접)

요집에 온지는... 한... 십년 됐을 걸요, 이집에 온지는. 이집에 온지는 한 칠년 됐나봐. 칠년 됐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인제 손님을 못 받잖아. 그니까는 나가서 내가 펨프를 해. 새벽에 네시반에 나가면 여기 커브 도는데 있어요. 커브 돌아서. 네시반 되면 아가씨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펨프해가꼬 그걸로 방세주고 내가 혼자 이제 자취하는거지.(중략) [그러면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하겠네요?] 넉넉지는 못해. 그냥 나 방세내고 약값하고 그러고 살아.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여. (중략)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거든. 허리가 아파서 여기서 지금 시장가는 것도 쉬었다 가고, 앉았다 가고 그래야 돼요. (김수연 1차 구술면접)

나이듦에 대한 해석은 연구참여자들이 '일'하고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연구참여자 김수미와 이우주가 생활하고 있는 쪽방촌은 50~70대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으로 젊은 여성들이 '일'하는 유리방과 공간상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유리방의 여성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쪽방촌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단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수연과 변옥희가 '일'하고 있는 휘파리 골목은 공간적으로 유리방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40여개의 유리방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중심으로 휘파리 골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수연과 변옥희가 '일'하고 있는 곳은 유리방 업소가 모여 있는 골목 끝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시간도 그들과 겹치기 때문에 유리방을 찾는 성구매 남성들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가령, 단속 때문에 유리방 영업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유리방을 찾았던 남성들이 휘파리 골목으로 흘러들어와 휘파리 골목의 영업이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50~70대의 중고령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은 화대가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반면, 3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휘

파리 골목은 외모나 나이에 따라 화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 경쟁에서 뒤쳐진 나이든 여성들은 외국인, 노인, 술 취한 사람, 일명 '진상'이라고 불리는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이 많으면 업주의 대우도 달라지고 업주에게 인정받는 여성은 동료여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손님을 받아도 낮은 화대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은 고령 여성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동료여성들과의 차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나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아는 동료(젊은)여성과 업주들은 고리를 띠어 먹는 등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 내가 쪼금만 더 젊다면은 더 이쁘다면은 애, 애들한테 이제 지지는 않지. 젊다면은. 화대도 굵게 받는 애들보면 부럽지. 부럽고 쫌 욕심이 나지. 그런 마음이... (변옥희 2차 구술면접)

> 펨프 해주면은 직접 받고 이만 원 띠고 줘야 되는데 손님 보고 들어가서 계산한다는데 나는 바깥에서 기달려야 될 거 아니야. 영~ 안 나와. 돈 안줄라고. 한두 번도 아니여~, 쟤는. (변옥희 2차 구술면접)

고령 성매매여성의 나이든 '몸'은 건강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현재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여성주의 성매매 연구 및 실천 분야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의 건강권은 줄곧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이때 주제로 삼는 것은 주로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 성매매 '일'이 가진 특성 때문에 산부인과 질환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과 같은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건강권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당뇨, 관절염, 치질 등 한두 가지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특별한 병명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등 몸의 쇠약을 실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몸'은 성매매 공간에서의 경험이 깃든 몸으로, 그들 '몸'의 쇠약은 성매매가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몸을 돌 볼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정책에 의해 성매매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지원은 성매매와 관련된 질병에 국

한되기 때문에 고령 성매매여성들에게 지원 가능한 항목은 많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보험 등 노후대책도 제대로 준비해 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를 유예하고 있었다.

> 여성단체 그 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된다~ 허리를 왜 다쳤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여기서 휘파리 할 적에 눈 오는데 쿵!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친 건데 쫌 해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니. 전번에 해준다 그러더라고. 해준다 그랬는데 막상 해주면 한 일 년은 쉬어야 되는데 방세는 뭘로 내고. 그 약값은 뭘로 먹고. 그래서 또 지금은 (내가) 안 되겠다 그랬다니까. 해준다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김수연 1차 구술면접)

>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종인데도 동사무소에서 돈 나와도 먹을 거는 저거해도, 병원비는 있어야지. 돈 모아논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죽겠는 거야, 지금. 나도 하루에 일이만원 받아가지고 방세도 지금, 밀려가지고 죽겠는데. 요즘은 선거 날이라 더~ 없어. 전에는 반반씩 해도 돈 모아놨었거든. (변옥희 3차 구술면접)

상황이 이렇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그만둬야 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단체의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스스로 생산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지난 30년간 성매매를 지속해왔지만 번듯하게 적금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다. 성매매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들은 성매매를 섹슈얼리티를 활용한 주체적 노동의 하나, 즉 사랑이라는 감정을 분리하고 정해진 성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섹슈얼리티의 부분적 거래라는 특성을 들어 성매매를 인권 침해와 분리시킨다. 그런데 30년간 성매매 공간에서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성매매 '일'에서는 '경력', '능숙함', '숙련'의 의미가 이른바 '정상적' 노동시장에서 해석되는 것들과 차이를 가진다. 통상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되는 것과 달리 성매매 '일'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정해진 성서비스'만 제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콘돔 사용여부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들에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성매매 공간에서의 일상적 관계를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능숙함', '숙련'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능숙함'이나 '숙련'의 의미는 '무뎌짐'이나 '인내'와 동의어였다.

> [이모는... 내가 그때도 OO이모한테도 물어봤는데 요새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이런데서 손님이랑 단 둘이 있으면, 지금은 여기 OO이모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하거나... 예를 들어서 콘돔 안끼고 할래, 후장 할래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손님이 나한테 막 나쁘게 때리거나...] 아이고, 빨개 벗고 그냥 나가버려. 안 맞으면 할 수 없어. 그러고 부엌에 문 잠가버려. 흐흐흐. 빨가벗고 나가버려. 이거 잠바는 이제 언니방에 납두고. 손님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방에 잠바 안 걸어놔. 나 위에 꺼는 잘 안 벗거든, 원래. 입 댄다 그러면 기겁을 하거든. 징~그러워서. 유방까지 막 빤다고 그래. 팍 올라와버려. 입만 댔다하면. 아, 근데 한번은 막 "시발년아" 욕도 뭐 굉장히 잔인하게 잘해. 그러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할 거는 다 하는데 꼬투리 잡어. 팬티도 안 입고 갖고 나가버려. 허허허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서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안된다면 억울해도 돈 내줘야 돼. 돈 안내주면 또 파출소 신고하네, 다 때려부수고 지랄하니까. 할 수 없이 고생해도 내가 봉사했다, 딴 사람이랑 잤다 그런 맘먹으면 속이 편해. 그렇다고 술 먹으면 나만 손해고. 일 못하고 속 아파서. (변옥희 2차 구술면접)

> [손님들 오면 주로 어떻게 서비스 해줘요?] 입으로 해주지. 자지 다 빨아주지. 안 그러면 안 논다 하니까. 그래야 단골이 생겨, 그래야. 그렇게 안하면 단골 안 생겨. 항상 사탕 같은 거 이천원짜리 항상 갖다 놓는데. 그거 빨고 나면 내 자신이 입내 나는 것 같애. 그래서... 물론 인자 입을 막 헹구고. 안 그러면 커피. 커피 먹으면 냄새가 안나. 어떨 때는 자지에 약 뿌리고 오면 혓바닥이 쎄~하고 얼마나. [약 칠하고 오는 사람?] 어. [아, 오래 할려고?] 어. 이게 안 스(서)니까. 안 스(서)니까 약 처바르고 온다니까. 혓바닥이 쎄~ 써 죽겠어, 아주. 그때는 양치질 하는 거야. 양치질해도 그래. 쎄~ 해가지고. 아주 죽겠어, 막. 포경들 하면은 자지 딱 까잖아. 딱 뒤집어 보면 애무고 뭐고 없어. [아, 포경 안 하면은?] 응. 하~얗게 벌레고 뭐고 낀단 말이야. 아이고,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콘돔 안 끼면 애무 안

해. 약 바르는 것 보다 이거는 더 지독해. 애무고 뭐고 없어. 안 빨아줘.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그러지. 말로 꼬서야지, 말로. 흐흐흐 (변옥희 3차 구술면접)

2.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확장

한 공간에서 뿌리를 내린지 오래된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성매매 '일'보다 성매매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서 성매매 '일'과 공간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얼핏 성매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도 성매매를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성매매가 가진 경제적 보상보다는 성매매 공간이 주는 안정감에서 오는 것 같다. 성매매 공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에 대한 통제력은 감소하지만 공간에 대한 통제력은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면서 삶의 지향을 성매매 공간 내부에 두게 되는 것이다. 관계와 일상이 성매매 공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지향이 성매매 공간 외부에 존재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자 했을 때는 창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성매매 공간을 벗어난 삶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 '몸을 파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쪽방촌에서 임대업을 하거나 여인숙을 차리는 등 성매매 공간 내부에서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나는 놀고는 못 산다. 내 능력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서 못 벌면.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나이 먹어서도 그냥 어떻게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어. 방이라도. 독방이라도 얻어서 집세 주면서 거기서 나머지 나 용돈 쓰고. 손자들 용돈 쓰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영업을 안하더라도. (이우주 4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은 아내, 어머니, 딸로서의 정체성과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생애 시간 속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업주 밑에서 일하던 젊은 날에는 업주의 구속과 감시 때문에 제약을 받았고, 먹고 살

기 바쁜 때에 관계나 소속감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 쌓이고 무겁게 짊어졌던 자기 역할이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조금씩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와 만나게 되었다.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시선도 '좋은 게 좋은 거'로 바뀐다. 하루 1~2만원 벌기도 힘들다는 요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여유와 편안함은 다른 노동과 다를 것 없이 성매매 '일'이 사회적 유대와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집결지가 생존과 연대의 공간, 주도적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성매매여성들의 자활 정책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결지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만을 부각시킬 경우에는 성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폭력성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분리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옛날 과거에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어. 우리 목사님도 과거는 다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고 즐겁고. 그거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 현실은 안 바뀌니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과거에 우울하게 살았다고 계속 우울하게 살아봐. 사람이 뭐가 돼? 신경질이나 내고 폭력이나 할려그러고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러면 승질이나 내게 되지. 근데 (나는) 누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예를 들어서 나한테 쪼끄만 꼬투리를 잡아서 다다다다 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 "어이야~ 저기하니까는 이해를 하소. 내가 잘못을 했다면은 자네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고 큰소리치지 말고 사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그것도 다 자식들한테 간다~ 자네도 자식 있고 손녀 있고 나도 손자가 있고 하니까는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성질내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내려간다,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네~ 언니~ 자식 얘기하니까 눈물 나올라 그래요" 그러고 감탄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다고 같이 그래봐. 싸우고 시끄럽고 동네 망신이지. 딴 사람하고 싸워도 아이고, 이해들 하세. (이우주 4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성매매여성'이라는 정체성의 끝자락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일로 새롭게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다. 그것은 또 다시 삶의 불안정을 만드는 일이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조금

‘위험한 일’이지만 그나마 성매매에 관해서는 예측과 계획이 가능하기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집결지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벗어나 점차 생활세계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연구참여자 이우주는 구술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용을 배워보기로 결심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자활에 대한 의지 때문이 아니다. 척박하게 살아온 삶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남기기 위해 배움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매매여성임을 알면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집결지 인근 교회를 통해 공유와 나눔에 대한 의식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동네의 노숙자들을 경계하고 무시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어느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추위에 자고 있는 모습을 걱정하는 등 주위 사물과 사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시도는 성매매가 아닌 다른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들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를 일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소원은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이다. 걱정 없이 쇼핑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연구참여자들이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었다. 남산 한 번 가본 적 없다는 김수미는 친구들과 함께 남산에 놀러가 보는 것이 소원이고 변옥희는 월세 걱정 없이 팔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근데 이들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소원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단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난생 처음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동료여성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방에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군데군데 붙어있다. 소소한 활동들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을 확장하는 여성단체의 프로그램들은 중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톡톡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고령 성매매여성의 나이듦과 생애전망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별로 없다고 대답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고 물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삶이 너무 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딱히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결혼이나 학업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정도의 상상은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모두 상상과 이야기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실현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여기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자신과 사회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억울한 경험들을 부정적으로 안고 있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지 않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다'라는 정도의 해석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천 가능한 방식의 행복을 연륜과 경험을 통해 찾아가고 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건이나 사고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 또한 경험의 축적이 만들어 주는 대범함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 속에 울분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 해석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나도 공부 더할껄. 중학교 들어갈껄 후회가 돼. 공부 못 하는게 진짜... 계산을 할 줄 모르는게 그게 후회지. 나도 배운 거는 없지만. 그때 배웠을 껄 조금 후회가 돼. (변옥희 2차 구술면접)

> 내가 쪼끔 나이가 먹으니까, 오십 둘이니까 생각난다! 애기 낳고 싶어서... 지금은... 많이 뗐는데... 딸, 애기도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나 죽으면 누가해줘. 세상 살아봐야... 불쌍해... 내가 애기하나 데려올까 그러는 거야. 근데 애기 있으면 돈 못 받어. 다 가져가버려. 그니까 어떡할 거야. 혼자 살아야지 뭐. 깜깜해 나도. 어떻게 해... 아이참... 힘들고... 참... 혼자 사니까 힘들어. (김수미 3차 구술면접)

>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돈을 번 것도 있지만 아빠 뭐 식사 차려드리고 이런 것부터 해서, 오빠 부양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 이제, 본 남편하고 이

혼하고도 애들을 내가 책임을 졌잖아요. 일단은 애들 학교, 교육비고 뭐고 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부양이지. 또 입양 해다가 열입곱, 고등학교 1학년이면 열입골 살이지? 올해 열여섯살. 걔도 세 살, 한돌 지나고 나서 데려다가 십... 오년 동안을, 십 삼년 동안이라고 할까? 하여튼 간에 애... 돌 지나고 십팔개월만에 데려다 부양을 했으니까. 아빠는 걔 부양하는 동안에도 돈 얼마 안 들어갔어. 내가 다~ 정말 맡겨서. 응? 키우고. 내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키우고. (중략) 힘들었다고 계속 힘들게 살아봐, 얼굴이 어떻게 되며~ 마음이 어떻게 되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사람은. 옛날에 고생 지질라게 했다. 그래, 나 육십년대 올라와갔고 나 고생 지질라게 했어. 지금도 그냥 우울해가지고 살면, 얼굴이 찌부러져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나는 현실에도 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정말 이 중 생활하는 거랑 똑같잖아. 여기서는 다 알지만 동네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또 우리 동네가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교회, 광야교회 사모님이 여기서만 보다가 밖에서 보면은, "어머~ 어머~ 자매님~ 어머 어쩜 그렇게 공주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 주셔서" 그렇게 감탄을 하잖아. 응, 나 그렇게 살어~ (이우주 4차 구술면접)

이제는 억울한 거고 뭐고, 지쳐가지고. 만사에 인자. 그런 거에 인자. 내 인생 인자 평범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 억울한 거 이제는 다 지냈고. 후회도... [한참 제일 우울하고 후회되고 이럴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끔 지금도 생각하지. 어떨 때는 울고 싶기도 하고. 여기 백화점 오는 사람들 보면 그럴 때 부럽더라고. 근데 부러우면 뭐해.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떨 때는 셈나서 쳐다볼 때도 있고. 나도 저렇게 백화점 카운터도 볼 수 있고. 엄마 아버지 잘 만났으면 저렇게 구애 안 받고 저렇게 계산대 딱~ 앉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은행 같은 데 가면 부러워. 쪼끔만 더 배웠으면 나도 그럴텐데. 그 생각이 왜 안 들어~ 들지. 근데 이제 남의 것은 탐도 안나게 돼. 어떨 때는 돈을 막 내 앞에서 막 세운다~ 아이, 쳐다도 안 봐. 쳐다보면 뭐해. 내 것도 아닌데. 하하하 (변옥희 3차 구술면접)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젠더와 계급의 틀 속에서 주어진 흐름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하지만 특정 생애사건들을 거치면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성별권력 구조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회의는 성별권력 구조에 대한 지식의 획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 이우주는 이혼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결혼 생활 중에 겪은 경험들이 폭력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김수미는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수행한 역할이 성차별적이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변옥희는 4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의 그 사건'이 성폭행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공간에서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진행 중인 경험이기 때문에 되돌아보고 성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런 태도를 두고 자활에 대한 의지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에서 '성매매'라는 글자를 지우고 보면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여느 중고령 여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험이나 해석에 낙인을 찍고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서는 자활에 대한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얼핏 자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참여자들도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도를 엿보고 있다. 얼마 전 용산 집결지가 폐쇄되는 과정을 보면서 S집결지의 폐쇄 임박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필요,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탈성매매의 시기를 계속 유예해오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집결지 폐쇄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집결지를 없애면", "폐쇄되면"으로 시작해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그 뒤의 삶에 대해 상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여전히 추상적이다.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신청 관련 정보를 알아보거나 주소지를 옮겨두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시절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다. 이제 그 목표대로 자녀들을 키워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대비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도 자녀에게 의존할 마음이 없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공간에서 '당분간' 더 살아야 할 필요를 만들고 있다. "큰 욕심 없이 남한테 구걸하느니 용돈이라도 벌어"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하는 노년의 희망과 난

생 처음 구속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유는 앞으로도 고령의 연구참여자들을 성매매 공간에 머무르게 할지 모른다.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거 다 지냈”기에 과거를 잊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태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아직은 끄떡없다”는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본 논문은 성매매여성들 내부의 차이는 물론, 개별 주체의 행위성 역시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문제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비가시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이 연루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체제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제약하면서 권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들은 그에 기반한 위기들 앞에서 주어진 흐름을 받아들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적 문제들을 지워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매매를 '일'로서 선택하는 것을 신자유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적응하는 대안적 '선택'인 것처럼 다루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성매매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과 모색 역시 여성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삶 속에서 각각의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경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S집결지 인근에서 '일'하고 있는 50~60대 성매매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살아온 삶 전체와 그 안에서 성매매 경험의 위치를 회고적으로 구성한 구술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를 최대한 분절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삶과 일상을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생애사건들이 성매매 유입 및 탈성매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살피고 가족, 일, 나이듦의 의미를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구조가 여성들의 삶을 '선택'이라는 맥락으로 구조화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내에서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1950~60년대 출생하여 산업화 시기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빈곤 계층에 속해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했다. 특히 한쪽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보호받던 '딸'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책임져야 하는 '생계책임자'로 전락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성별화된 역할 분담에 익숙해져 갔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을 지속하는 대신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으로 방출되었지만 계급적·젠더적 경제개발 체제 하에서 안전한 노동기회를 제공받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욕망이나 권리와는 상관없이 가족전략에 따라 형성되었고 고립된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개별 노동자였기 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희생자에 불과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중요한 생애사건들은 출신가족 내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것을 성매매를 '일'로서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출신가족 내에서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일'과 삶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 내에서의 성별화된 역할규범은 연구참여자들의 역할수행을 거쳐 정상화되었고 딸에서 아내/어머니로 역할이 이동했을 뿐 출신가족에서의 경험은 생식가족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출신가족에서의 역할이 버거웠던 연구참여자들은 '빈곤의 탈출구' 또는 '자율적 독립의 기회'로 결혼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전망은 실패로 끝났다.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아내/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제공하는 안정성 뒤에서 남편에 의한 폭언, 구타, 강간, 의처증 등의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라는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혼, 사별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개인의 욕구와는 상

관없이 또 다시 생계 전선에 투입되어야 했다. 그들은 낮은 학력, 기술력 부족, 비공식 부문의 짧은 노동 이력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좁은 문을 뚫지 못했고, 현실을 직시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노동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불확실한 정보와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여 성매매 '일'을 '선택'하게 됐다. 결혼이라는 전략의 실패는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김수미, 김수연, 이우주)이 성매매로 유입/재유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는 자원이 부재한 기혼여성들에게 노동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매매로 유입되는 시점에 주거지를 집결지로 옮겼거나 자녀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에 맞춰 집결지 공간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S집결지에서 숙식과 '일'을 겸하는 형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고령의 성매매여성들에게 집결지는 여전히 '집(home)'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참여자들이 집결지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집결지를 '살만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거쳤기 때문이었다. 성매매 공간 안팎의 경계를 오가며 낙인을 관리하는데 지쳐있던 연구참여자들은 집결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집결지 내에 삶의 지향을 두고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동료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 복지와 여성단체의 지원이 활발해진 S동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집결지 공간 내에서 유사가족의 형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롭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2) 연구참여자들의 노동 이력은 성별권력에 의한 사회구조들이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성매매로 이끄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각의 노동경험에 대한 의미화의 연속선에서 성매매 경험을 해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노동들에서는 저임금, 장시간의 고된 노동이었다는 점, 섹슈얼리티까지 자원으로 요구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을 성적 존재로 환원했다는 점,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식모, 버스안내양, 공장노동과 같은 노동들은 '요보호여성'이라는 호명 하에서 주변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발견되었다. 특정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낙인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에

게 다른 노동과 성매매 '일'의 착취성과 폭력성을 변별해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사회적 배제와 낙인은 이들이 '성매매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만 한정해서 경험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노동경험을 거쳐 대안적 노동의 하나로 성매매를 선택했고 20~30년 이상 성매매 '일'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성매매로 유입될 당시의 상황, 성매매 '일'이 가진 특성, 그리고 성매매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에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빈곤, 자원 상실, 지원망의 부재, 일상화된 폭력 등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다른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성매매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젊음'과 '여성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성매매 '일'은 섹슈얼리티에 따라 여성들을 등급화하고 고용과 배분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켰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성빈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이 '일'을 지속하는 해가 길어질수록 상품 가치가 하락하면서 성구매 남성과의 불평등한 교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 '일'의 특성은 연구참여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다. 성매매여성들을 도덕적 질서에 따라 분리시키는 사회적 낙인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멀어지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성매매 공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3) 나이듦의 따른 몸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연구참여자들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섹슈얼리티의 실천적 측면과 노동이 행해지는 물질적 측면 중 어느 것에 더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 세대(50대냐, 60대냐)에 따라, '일'하는 공간(고령의 여성들이 '일'하는 쪽방촌이냐, 젊은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휘파리 골목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50대인 김수미와 변옥희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 못지않게 외모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60대인 김수연과 이우주는 생존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쪽방촌 여성들(김수미, 이우주)은 나이든 '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30~40대의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휘파리 골목의 여성들(김수연, 변옥희)은 젊은 여성들과의 차이에 예민한 편이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은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소위 '진상'

이라고 불리는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화대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시장에서는 외적 조건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된 육체노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몸'은 자본과 직접 연관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젊은 여성들과 유리되어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점을 지나쳤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보다는 당뇨, 관절염, 치질 등 '일'에 제약을 주는 건강의 이상에 더 민감했다.

복지제도나 여성단체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생산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로 유입된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성매매 공간에 대한 통제력은 높은 편이었으나 나이든 여성일수록 '정해진 성서비스'만 제공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콘돔 사용여부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들에 타협해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매매가 정해진 성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섹슈얼리티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주체적 노동의 하나라는 주장은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배제한 주장이며 성매매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였을 때 그것은 허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면서 삶의 지향을 성매매 공간 내부에 두는 것은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적 실천에 상반된 메시지를 제공한다.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공간에서 통제력을 향상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구축하는 의지이지만 공간 통제력이 향상될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매매 '일'에 종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빈곤한 삶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통스런 과거의 삶에만 천착해 있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사회를 재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경험과 연륜이 만들어내는 생존 전략의 하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성별권력 구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 중에 있었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일상과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S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논의가 불거짐에 따라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그 뒤의 삶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풀어내는 방식, 그리고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일상과 관계, 모든 역경을 살아낸 생존의 힘이 조화를 이뤄 창조적인 삶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후속 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를 사고해보고 그동안 이들이 배제됨으로써 '사실'처럼 여겨졌던 기존의 담론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 세대의 경험만 보게 될 경우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여성들의 '선택'을 맥락화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성매매 유입 배경,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경험, 그리고 탈성매매 이후의 경험을 분절하여 분석할 경우 각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 살필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성매매 공간에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아낸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전체 삶을 살펴봄으로써 구조적 문제와 성매매가 갖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성매매 구조 내의 문제에만 천착하게 될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성매매 시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 구조 밖에서의 경험을 함께 살펴본다면 여전히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을 빙자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고령 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젠더, 빈곤, 가족, 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매매여성'이라는 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자는 성매매 내부 구조뿐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성차별 기제에 주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성매매 경험을 제외하면 소위 '일반여성'들의 경험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다. 연구참여자들도 딸, 아내,

어머니,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취약한 상태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집중되었을 때 적응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을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기에 그들의 다양성과 생존의 힘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경험들에 사회가 제대로 반응해 왔는지,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떤 환경들이 연구참여자들의 '선택'을 구조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환기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왜 이들은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다른 창조적인 삶을 상상하지 않는가. 행위와 개념이 놓여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매매여성의 선택 또는 자율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 선택이란 어느 정도의 권력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힘의 발현이다. 변옥희가 성폭행 당해 홀로 먼 길을 걷고 있을 때, 이우주가 맨 몸으로 집을 뛰쳐나왔을 때, 김수미가 인신매매되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옆에 누군가, 또는 그들을 도와줄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들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했고 가족, 일, 그리고 성매매 공간에서 나이듦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와 성찰의 기회, 가능성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경험이라도 서로 의미화하는 정도와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세대 및 일하는 형태와 공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이 점이 본 연구에서 각 경험들을 비교분석하는데 한계였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한계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연구참여자들과의 면접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성매매, 가족, 일, 나이듦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에는 이 한계들을 보완하면서 가족 관계 및 주거 여부에 따른 공간의 의미, 세대(10~70대)에 따른 성매매 경험과 해석의 차이, 연구참여자들의 노동경험과 다른 노동경험을 가진 성매매여성들에게 일의 의미, 학력 및 계층 간의 차이, 지역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강유진 외.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인생전환점 · 삶의 맥락 · 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3호. pp. 96-126.

강유진. 2003. 『중년후기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 명지대학교 여성 · 가족생활연구소.

강이수. 신경아. 2001. 『여성과 일: 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강이수. 2011. 『일 가족 젠더(한국의 산업화와 일 가족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_____. 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pp. 1-35.

_____. 2011.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고정갑희. 2005.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이론』 12호(2005 여름). pp. 10-34.

_____. 2007.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 성노동자 운동의 쟁점과 방향”. 『성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9. “매춘성노동의 이론화와 성/노동/상품의 위계화”. 『경제와사회』 81호. pp. 112-130.

곽삼근 외. 2008.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4호. pp. 141-174.

국경희. 2007. 『한국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 2005.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 성매매방지법을 넘어서”. 『여/성연구』 15호. pp. 56-73.

_____. 2007. “성노동에 관한 이름붙이기와 그 정치성”. 『성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8.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 『여/성이론』 18호. 도서출판 여이연. pp. 78-98.

김선화. 2006.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희 외. 2005. “성매매관련 정책의 변동과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년 공동

하계학술대회』. 한국거버넌스학회. pp. 3-30.
김성례. 200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pp. 31-61.
_____. 2004. “한국 여성의 구술사: 방법론적 성찰”. 『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소연. 2004. 『성매매 현장에서의 경험이 탈성매매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연주. 2011a.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_____. 2011b. “성매매 경험 있는 십대 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1호. pp. 189-215.
김 영. 1997. “기혼여성의 취업, 생업인가 자아실현인가”. 『여성과사회』 8권. pp. 276-296.
김영옥. 2001.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제18집(2001). pp. 27-48.
김애령. 2008. “지구화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경제와사회』 통권79호. pp. 254-273.
김예란. 2005. “성매매특별법의 보호와 처벌 담론―육체와 권력의 관점에서―”. 『언론과사회』 제13권 4호(2005가을). pp. 146-181.
김 원. 2004.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食母)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1호. pp. 181-236.
_____. 2005. 『그녀들의 反역사 여공 1970』. 이매진.
김은정. 2010. “저소득층 성매매 십대여성들의 성매매와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일 연구”. 『가족과 문화』 22권 3호. pp. 31-72.
_____. 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미용사 L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집 1호. pp. 64-100.
김인숙. 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한국아동복지학』 제30호. pp. 133-157.
김인숙 외. 2008. 『여성복지 실천과 정책』. 나남.
김정은. 2008. “성노동자운동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들”. 『문화과학』 53권 5호. pp.

268-276.

김정화. 2002.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권(2002). pp. 81-107.

_____. 2005. “1960년대 기혼여성의 노동—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5권(2005). pp. 63-107.

김주희. 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2.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김지혜. 2010. “성매매방지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Vol.1(1). pp. 237-242.

김현순. 2005.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 2010.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pp. 1-33.

김혜경. 2007. “여성의 노동사를 통해 본 일과 가족의 접합—60년대 산업화 이후 친족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27권 2호. pp. 37-82.

김혜영 외. 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권 1호. pp. 5-51.

다시함께센터. 2004a. 『‘다시함께’와 함께걷기1: 피해자 법률지원 사례집』.

다시함께센터. 2004b. 『성매매 피해여성 종합적 의료지원을 위한 포럼』.

_____. 2006a. 『Out of the trap. Hope one step』.

_____. 2006b. 『‘다시함께’와 함께걷기3: 다시함께센터의 의료지원 사례』.

_____. 2006c. 『다시함께센터 의료포럼—성매매로 인한 질환발생과 사회적인 책임의 상관성에 대하여』.

_____. 2007. 『‘다시함께’와 함께걷기4: 살아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막달레나의 집. 2002.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도서출판 삼인.

문은미. 2005a. “일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합시다”. 『여/성연구』 12권 1호. pp. 35-49.

_____. 2005b. “성노동자운동. 낯설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 『진보평론』 26호(2005 겨울). pp. 164-175.

_____. 2009. “성노동은 어떤 노동인가?—친밀한 노동으로서의 노동”. 『여/성이론』 2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현아. 2007. “비범죄화의 진실과 오해”. 『성노동』. 서울: 여이연.

민가영. 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1호. pp. 173-202.

민경자. 1999.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권 4호 pp. 101-132.

_____. 2005. “생애를 통해서 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 『경제와사회』 통권68호. pp. 133-160.

박이은실. 2006. “노동하는 성애: 성노동”. 『진보평론』 제29호.

박재환.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일상생활연구회. 한울아카데미.

박정미. 2009. “서구 ‘2세대 페미니즘’의 성매매 논쟁 —전개 과정과 이론적·실천적 함의—”.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pp. 233-267.

_____. 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홍주. 2005.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일”. 『황해문화』 46호(2005). pp. 65-81.

변정애. 2004. 『성매매 고착기제 연구: 탈성매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혜정. 2009. “성적 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성교없는 성상품’ 업소(자유업)에서의 거래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3호. pp. 109-149.

배은경. 2008.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산업화 시기 한국 어머니의 모성 경험”. 『페미니즘연구』 제8권 1호(2008). pp. 69-123.

_____. 2009. “‘경제 위기’와 한국여성”.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pp. 39-82.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07a. 『경계와 차이의 틈새』. 그린비.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07b. 『붉은 벨벳앨범 속의 여인들』. 그린비.

성매매없는세상[이룸]. 2009. 『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서해정 외. 2005.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자활서비스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pp. 280-302.
송승영. 1999. “비공식부문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여성의 일과 삶의 질』. 미래인력연구센터 · (주)생각의 나무.
신광현. 1996.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 형식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사회비평』 제14권. pp. 177-200.
신혜선. 2006. 『산업형 성매매 종사자 여성의 성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준리. 2009. 『성매매여성의 생애사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상미. 2007. 『중장년 성판매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혜진. 2006. “1980년대 여성주의 성매매반대담론의 성격”. 『페미니즘연구』 6호. pp. 53-97.
_____. 2007. “성매매. ‘어떻게’ ‘입장’으로 진입할 것인가”.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pp. 223-230.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팀. 2007. 『성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오김숙이. 2005.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야기들: ‘전국성노동자준비위한여연’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텍스트 분석”. 『여/성연구』 제13호. pp. 74-101.
오혜란.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7호. pp. 37-78.
옥선화 외. 2004. 『빈곤 여성가장의 삶』. 하우.
유숙란 · 오재림 · 안재희. 2007.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과정 비교분석”.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pp. 49-86.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윤택림. 2002. “구술사연구 방법론”. 2008.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8 No.1. pp. 1-16.
_____.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_____. 2010. “여성은 스스로 말 할 수 있는가: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적 논의”. 『여성학논집』 제27집 2호. pp. 77-111.
원미혜. 2002.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면”.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 집 저. 도서출판 삼인.
_____. 2004. “여성주의 성정치: 성매매 ‘근절’ 운동을 넘어서”. 『여/성연구』 통권10호.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5a.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성판매 여성의 ‘인권’ 탐색을 위한 시론”.『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_____. 2005b. “성매매 감소와 성판매자의 인권을 위한 모색”.『황해문화』Vol.46.

_____. 2010. 『‘성 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1a. “여성의 성위계와 ‘창녀’ 낙인: 교차적 작용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제50권 2호. pp. 45-84.

_____. 2011b. “‘성판매여성’ 섹슈얼리티의 공간적 수행과 정체성의 (재)구성”.『여성학논집』제28권 1호. pp. 43-78.

이근무. 유은주. 2006.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제58권 2호. pp. 5-31.

이나영. 2005.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한국여성학』제21권 1호. pp. 41-85.

_____. 2007a.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 남한의 미군정기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통권75호(2007 가을). pp. 39-76.

_____. 2007b.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제23권 4호. pp. 5-48.

_____. 2008.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한국여성학』제24권 3호. pp. 77-109.

_____. 2009. “성매매‘근절주의’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제25권 1호. pp. 5-34.

_____. 2012. “‘과정’으로서의 구술사. 긴장과 도전의 여정”.『한국여성학』제28권 2호. pp. 181-217.

이동주. 2008. “한국 성매매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7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사회연구』제15호. pp.9-39.

이삼식. 2007.『노년기의 노동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학술정보.

이성숙. 2006. “한국 성매매특별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 오리엔탈리즘: 성노동자가 말할 수 있는가?”.『담론201』9월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_____. 2009.『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이영자. 2005. “성매매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성평등연구』 제9집. pp. 83-118.

이옥정 구술/엄상미 글. 2011. 『막달레나. 용감한 여성들의 꿈 집결지』. 그린비.

이자림. 2008. “성매매피해 경험 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1호. pp. 69-103.

이재인. 2004. 『한국 기혼여성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유형과 결혼생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6. “서사방법론과 여성주의 연구”. 『젠더연구의 방법과 사회분석』. 도서출판 다해. pp. 65-94.

이종구 외. 2005.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

이하영. 2009. 『성매매방지법 전후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0.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04년 이후 한국의 ‘성매매’ 운동의 지형도읽기”. 『여/성이론』 23호.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11. “한국 성노동자운동의 전개”. 『진보평론』.

이현재. 2007. “매춘에 대한 여성철학적 접근: 독일의 매춘합법화를 중심으로”. 『성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8. “성노동자의 도시권 요구와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 『여/성이론』 18호.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9. “성노동자들의 인정투쟁과 윤리적 지평의 확장: 민주성노동자연대의 거주생존권/노동권 주장에 대한 인정 이론적 담론화”. 『한국여성학』 제25권 2호. 한국여성학회.

이희영. 2005. “성노동자 운동의 이해와 과학화”. 『사회운동』 10월호. pp .27-39.

_____. 2007.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재구성: 탈성매매 여성의 생애체험과 서사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5호. 한국사회학회. pp. 98-133.

_____. 2008a.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pp.120-148.

_____. 2008b.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추라”. 『여성이론』 18호(2008년 여름). pp. 99-105.

전혜진. 2003. 『미혼 공장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희경. 2011.『'전데-나이체제'와 여성의 나이: 시간의 서사성을 통해 본 나이경험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미례. 2010.『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탈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정미숙. 2007.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페미니즘연구』통권 7권 1호. pp. 55-92.

정박은자. 2011. "무엇이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가".『여성과인권』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년 하반기(통권 제6호). pp. 97-119.

정희진. 2000.『'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3. "나이 듦. 늙음 그리고 성별".『당대비평』vol.22.

_____. 2005a. "성판매여성.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방법메모".『여/성연구』12호. pp. 50-68.

_____. 2005b.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황해문화』446호. 새얼문화재단.

_____. 2005c. "성판매여성의 인권".『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조 국. 2003.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적 대응".『형사정책』제15권 2호. pp. 259-289.

조옥라. 2004.『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조중헌. 2008. "남성성 규범과 젠더화된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성구매".『젠더와사회』제7권 1호. pp. 219-253.

조혜선. 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가족과 노동의 접합".『한국사회학』제36집 1호. pp. 145-169.

최병각. 2004. "성매매 행위와 형별권의 한계". 조국(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사람생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위원회 증언팀. 2011.『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허미영. 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부산·경남지역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제22권 4호. pp. 235-262.

홍현정. 2007.『가출청소년의 성매매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미. 2001.『개발국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7.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 · 어머니 · 노동자 지위". 『페미니즘연구』 제7권 1호. pp. 13-54.

2. 번역서

캐럴 페이트만. 이충훈. 유영근 역. 2001.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캐슬린배리. 정금나 · 김은정 옮김. 2001.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3. 국외 문헌

The Personal Narratives Group(ed). 1989. *Interpreting Women's Lives: Feminist Theory and Personal Narrative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Amia Lieblich. Rivka Tuval-Mashiach. Tamar Zilber. 1998. *Narrative Research :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Publications.

Philip Hubbard. 1999. "Sites of sex work. spaces of resistance?". *Sex and the city : geographies of prostitution in the urban West.* Lecturer in Human Geography Department of Geography Loughborough University.

Julia O'connell Davidson Am Arbor. 1988. "Narratives of Power and Exclusion". *Prostitution. Power. and Freed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hannon Bell.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Indiana University Press.

4. 영상 자료

이장호 감독. 1972. 『별들의 고향』.

김호선 감독. 1975. 『영자의 전성시대』.

김수용 감독. 1981. 『도시로 간 처녀』.

임권택 감독. 1997. 『노는 계집 창』.

*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5. 인터넷 자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7&contents_id=1137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7&contents_id=1173

Abstract

The Life History of Aged Prostitutes

— Focused on the Meaning of Family, Work, and Aging —

Shin Grina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int of departure of this study was the acknowledgment of three facts: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studies concern the experiences of prostitutes although the experiences of the women directly involved have been emphasized greatly; even a few studies taking account for the experiences have focused on so called 'young' women; and they were based on segmental thoughts of prostitution in the binary of 'being victimized vs. making the choice by free will' without contextualizing their experiences of selling sex in the holistic sense of life. This critical awareness became more specified through my own experiences with prostitutes and the realization of the gap between academic studies on prostitution and the actual field of prostitution. Thus I decided to

study the life history of prostitutes in their 50s and 60s who had been selling sex for a living for thirty years or more. The experiences of the aged prostitutes had been excluded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orum of discussion, although, in order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prostitution and prostitutes, it is methodologically critical to look into the accumulated experiences of these women who are able to retrospectively construct their entire lives and to locate their experiences of selling sex within such context. Listening to the aged prostitutes about their experiences through the method of oral life history does not aim to discover the objective truth of the past but to understand their present lives by comprehending their subjective truths constructed at the time of the speech. I have know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since 2009 and they currently 'work' on their own at flophouses or on streets around the S brothel district.

This paper revolves around three different axes. The first shows the entire process of this research from agonizing over the best methodology to study prostitutes' experiences to reconstructing their life history chronologically and drawing conclusions while working together with the participants. Therefore, this study is a creative construct which was made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me as a researcher. The second presents the 'reconstruction of their life history' of which my participants and I collaborated on. The participants not only provided their oral data, but also took part in editing and reconstructing it chronologically. The purpose of this 'reconstruction of their life history'is to understand their individual lives based on lives the participants shared. The third is comparative 'life history analysis' under the topics of family, work, and aging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individual contexts of their lives. The constructed 'life history analysis' focused on the participant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hile following the major topics and provides the backgrounds of which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ulterior stories the 'life history analysis'

does not mention.

Analyses results are as followed.

1) The experiences within one's family affect participants greatly when constructing and interpreting their own life-worl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poverty not only on the economic level, but also emotional level while growing up. Ones who were brought to the labor market instead of school due to the families' survival strategy mostly formed their identities apart from their own desires or rights and adapted to the gendered division of roles as informal sector laborers. They strategically chose marriage as a chance either to 'exit the poverty' or to 'autonomously become independent.' The solid class boundaries, however, caused their prospects to fail and pushed them to the labor market once again and most of them re/entered prostitution in this process. The participants with weaker familial bonds began forming communal lives while 'working', living, and orienting themselves around the S brothel district for almost thirty years.

2) The participants consider their 'work' in prostitution in the continuum of their interpretations of their labor experiences in the past. The nature of their labor experiences was comprised of low wage and hard labor, while reducing them to sexual beings by demanding womanly service, sacrifice, kindness, and even their sexuality as a part of the labor resources. The jobs they had in common such as housekeeper, bus conductress, factory worker were especially marginalized and they were called 'women to be observed' in the bigger frame of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state and the sex industry. Because they interpreted 'work' in prostitution based on their past labor experiences, they could not distinguish the exploitation and violence of which prostitution caused. Nevertheless, it is not apt to conclude they were lethargic to the social judgment and stigma on 'working' in prostitution. Although they chose to 'work' in prostitution for financial reasons, their commodity value kept falling and their

dealing with clients became tougher the longer they worked since they are rated by their sexuality in the prostitution market. This was the reason these aged participants could not avoid poverty by selling sex.

3) The meanings of their aging and bodily changes differ depending on their age group and their place of 'work.' Because the changing value based on the appearance and the intense physical labor in the prostitution market, the participants' bodies directly connect to the capital. However, their age already had past the period of competing with each other's good looks and they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ir health changes directly affecting their livelihoods. Even though they did not verbally mention that the time where they would have to quit 'working' in prostitution was soon to come, their dependence on welfare policies and support from women's organizations showed that they had realized their lacking productivity and had begun seeking a direction for their lives afterwards. The longer they live as prostitutes, the more control—such as management of stigma—they achieve, but at the same time, their social isolation gets deeper. Despite the fact that their present lives have not changed much from the past in the sense of poverty and the absence of social relations, they did not stay in their misery. The participants' will to re/signify themselves and the society and to unravel their lives with their positivity is the survival strategy they have obtained over years of experience and such will shows the possibility of new lives.

This study holds it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broadens the understanding of aged prostitutes and considers the gender-economy system structuring prostitutes' experiences and choices. It reveals not the way the other lives but the process of the other being created, an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will affect other feminist academics' work and practices attempting to take action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and outside of the structure of prostitution. Why do they say that they are happy now? It is impossible to discuss

prostitutes' choices and their autonomy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text where actions and concepts lie. Conducting this study made me turn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ociety has been properly responding to the experiences prostitutes go through as women and whether the society is ready to respond to them. It is crucial to think about the circumstances of which structured the choices of the participants. I did not take experiences in prostitution considering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labor experiences, and regions into account for this study and anticipate more studies on these to come.

Keywords : prostitution, prostitutes, life history, family, work, aging

Student Number : 2011-20203